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2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0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수화통역 보실

손끝으로 표현되는 몸짓 언어인 불교수화 보급에 10여년동안 힘써온 원심회 김장경(31)씨. 김씨가 수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88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마주친 '장애인의 날' 수화방송을 접하고부터다. 손을 사용해 의사를 소통한다는 것이 김씨에게는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이때부터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에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또 수화 동아리 '다다회' 회원에 가입 복지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처음에는 군 제대후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알아보던 중 수화도 다른 세계의 언어라 생각하고 익혔습니다. 배워가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원심회 창립이후 수화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반인들은 많았지만 끝까지 초발심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 이런 풍토에서 김씨는 89년부터 단 한번의 외도(?) 없이



주2회 기초반 지도를 맡아오며 장애인들의 말벗이 돼왔다. 짧지 않은 세월동안 수화지도를 해온 김씨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심전심의 표정으로 답할때다. 말이 아닌 손끝으로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데서 김씨는 법열과 장애인들의 아픔을 잠시나마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도 한 김씨는 수화 지도 뿐만 아니라 원심회의 회원관리에서부터 전산화작업에 기여한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어렵다는 법문 통시통역도 도맙아 하고 있는 김씨는 "타종교에 비해 교계의 수화용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장애인 포교를 위해서라도 수화에 대한 불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조계종 정화회의 – 종회 – 총무원 – 본사주지연합회 대표자 5차례 회동

화합의 길 찾기 '진통'

비상종회구성안 이견 … "대화계속" 공감

교구본사주지연합회가 조계종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나서 마라톤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승려대회 대회장 탄성스님과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이 27일 오후 4시경 조계사 인근 찻집에서 만났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종단화합의 물꼬를 트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던 이 만남은 40여분간의 대화끝에 성과없이 끝났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가 중재를 위해 마련한 정화개혁회의와 중앙종회, 총무원의 조계종 사태 해결회의가 26, 27일 이틀동안 계속됐으나 27일 밤까지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고 28일 오후 3시로 다시 연기됐다.

4단체의 대화는 24일 오후 7시 본사주지연합회가 자리를 주선하며 시작됐으나 별다른 대화의 진행 없이 26일 오전 10시 타워호텔에서 다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본사주지연합회 측에서 법장, 밀운, 중원, 성덕, 도흔, 진하, 보선, 현지 스님이 중앙종회측에서 법등, 청화, 명진, 현응스님이 총무원측에서 도법, 일칠스님이 정화회의측에서 정우, 성문, 종광스님이 참가했다.

각 진영의 대조율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해결해야한다"는 원론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사태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의견의 접점은 종채 도출해 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저녁 7시로 시간을 바꿔 다시 대화를 재개했으나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사주지회의가 '비상종회 구성'을 골자로하는 6개항의 합의안(3면 참조)을 제안한 가운데 대화는 27일로 연기됐다.

27일 오전 10시부터 본사주지연합회의 합의안을 두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으나 정화회의는 합의안에 지지한 반면 종회측이 "중앙종회를 통해 비상입법 조치를 한 뒤 비상종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날 대화에는 탄성스님과 월탄스님까지 참여해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렬됐다. 결국 저녁 7시 탄성스님과 정화회의측의 정우, 성문, 종광스님 본사연합회측의 법장, 중원, 밀운스님과 종회측의 법등 영담스님 주지연합회의 합의안을 둘러싸고 대화를 진행됐으나 종회측의 입장 고수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날 대화에서 중앙종회는 "본사주지연합회의 의견을 존중해 승려대회를 연기했는데 정화회의가 26일 개원회의등을 진행한 것은 대화 의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2면 '회동'으로 계속 ➡



◇탄성스님(사진 우)과 월탄스님이 27일 오후 조계사 인근 찻집에서 만나 종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눴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고명배 기자(ygo@buddhapia.com)

종헌개정-해종특위법 제정

26일 정화회의 개원 … 현판식도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는 26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153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원 회의를 열고 종정관한을 강화한 종헌 개정, 정화개혁회의법 폐정, 해종행위특별위원회법 제정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무원 청사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정화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제2정화불사의 취지에 찬동하는 종도들에게 문호개방 △30일 승려대회의 중지등을 밝혔다. 정화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총무원을 제외한 중앙종무기관장 및 위원을 선임했다. 초심호계위원회 위원장에는 태관(마곡사 부주지), 재심호계위원회위원장에 밀운(봉선사 주지), 법규위원장에 천제(해인사 백련암) 선거관리위원장에 혜총(석림동문회장), 해종행위조사특위위원장에 도각(전 보리암 주지)스님등이 각각 선임됐다. 정성윤 기자(swjung@buddhapia.com)

전국승려대회 30일로 연기

종회, 청사반환등 5개항 결의

조계종 제135회 정기중앙종회(의장 법등)가 24일 삼성동 봉은사에서 속개돼 27일 조계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승려대회를 30일로 연기했다.

81명 종회의원 가운데 47명이 참가한 이날 종회에서 전국 승려대회의 일정과 관련 23일 본사주지연합회가 결의한 승려대회 유보의 결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날 종회는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조직을 발표했다. 봉행위원회의 증명은 서옹스님, 고문 원로회의의원 및 명예의원스님, 대회장 탄성스님, 공동봉행위원장 법장, 법등, 지선스님, 공동집행위원장에 도법, 청화, 명진스님 등이 각각 선임됐다.

또 종회는 종단사태와 관련 5대 방침을 결의하고 12월 1일(장소미정) 제136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속초에서 목포까지'

전국 8곳 순회 국태민안 서원

IMF에 처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11월29일 목포에서 회향됐다.

"동서화합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종단을 초월해 전국에서 모인 불자 4천여명은 목포 보현정사(주지 정각)에서 지역화합을 다짐하는 철야 3천배정진을 하고,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사경한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사경집을 부처님전에 공양 올렸다. 〈차주 상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 총지 법륜종이 주관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는 국민회의여등회 자민련불자회 한나라당불자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후원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총8차에 걸쳐 열면서 국난극복 의지를 확산시켰다. 〈관련기사 2면〉

1월5일 강원도 신흥사 통일대불앞에서 첫 법회를 시작한 국난극복법회는 매달 1회씩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지를 돌며 법회를 마련, 연인원 10만여명이 동참해 참회정진했다. 특히 불자 전두환 前대통령이 사면복권 이후 첫 공식행사로 제1차 신흥사법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총 6곳의 법회에 동참해 화제가 됐다. 대구 나 순천 선암사 법회와 전대통령 퇴임후 첫 목포 행사에 참석한 보현정사 회향법회는 동서화합의 물꼬를 터 국민정서에 큰 반향을 일으켜 교계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일정

조계종	속초 신흥사	4월 5일
조계종	예산 수덕사	5월 25~26일
천태종	서울 관문사	7월 4일
관음종	대전 엑스포광장	7월 10일
총지종	부산 정각사	9월 22~23일
진각종	서울 총인원	10월 15~16일
태고종	순천 선암사	11월 15~16일
법륜종	목포 보현정사	11월 28~29일

제8차 목포회향법회 김대통령 메시지 보내

김대중 대통령은 11월 29일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의 제8차 목포 회향법회에서 한화갑 문화관광부장관 특별메시지를 통해 "이 법회는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극한 발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님 품안에서 東西화합의 물꼬를 열어주신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영란 기자

금강산 다녀온 스님 · 불자 목소리 18면

군포교 기금마련 하루찻집

신수회(회장 이영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군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포교기금마련 하루찻집을 엽니다.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과의 대화시간과 국악연주도 마련됩니다.

- 일시: 12월5일(토) 오전10시30분~오후8시
- 장소: 한마음사랑방(02)736-3782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옛 녹수장산)

gva
(주)건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에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02)3443-7851~5 · 02)555-1567~8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02)3443-7891~3 · 02)555-1567~8

A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02)3443-5155~6 · 02)555-15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8-9(정석빌딩3층) 대표이사 김 기 상



사 설

국난극복 법회 회향하며

지난 4월부터 우리 불교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이 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참회대법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왔다.

지금까지 여덟 번에 걸쳐 개최된 참회대법회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를 맞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간절한 참회를 통한 깨우침과 자비의 길을 인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어려움이 욕심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불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가르쳐 준 것이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으면서 진정한 호국·호법의 의미를 깨우쳐 준 법회였다.

11월 29일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회향은 목포 보현정사에서 이루어졌다. 참회대법회의 마지막인 이날 법회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 동서갈등-영·호남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화합의 길을 모색한 소중한 장(場)이였다. 개최지인 목포는 김대중대통령의 연고지인데다가, 이날 영남출신의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하여 영주시장 등 많은 영·호남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여 동서화합으로써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실천의지를 부처님앞에서 보여주었으니 이 얼마나 뜻 깊고 역사적인 일인가.

범종단적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꾸준히 여덟 차례에 걸쳐서 참회대법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은 최근세사의 불교계의 행보로 볼 때 극히 다행스런 일이다.

다른 종교 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불교계의 뜻에 동참하여 나라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난극복 의지를 다지고 화합하여 제2건국을 성취하는데 앞장서게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로 빚어진 종단의 파행상이 아직 극복되지 못해 종도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불교의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많은 국민들이 불교계를 향해 혀를 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불교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조계종의 불협화음이 장기화되어서는 한국불교에 희망이 없다. 불미스러운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은 진정으로 부처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조속히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화합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계종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 진정으로 불교와 종도들을 염려한다면 반불교적 사고와 행동을 물리치고 뜻을 하나로 모아 청정승가의 전통을 되살리는 계기를 하루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4년전 개혁정신을 되살려 종헌종법을 수호하면서 올바른 승가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 화합의 지혜를 모아 종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종단 체제를 회복해야 한다. 불교계가 국난의 위기를 참회대법회를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처럼 종단의 희망과 안정과 질서를 하루빨리 도모해 여법한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본래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승·재가단체 조계종사태에 두 목소리

교계 갈등확산 우려

조계종사태에 대한 승·재가단체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체간의 입장이 달라 일부 승단의 불화가 자칫 불교전체의 반목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승·재가 단체들이 11월 26, 27일 발표한 성명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총무원-정화회의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은 27일 하루 동안 '실천불교 비구니(소장) 모임 동참자 일동'에선 '정화개혁회의 해산'을, '동림 비구니 동문회' 외 6개 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서에서 '종정교시 지지'를 밝혔다. '제2차 비구니 정화개혁회의'가 주도해 종정교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참가단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표했다가 해당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재가단체비상대표자회의는 25일 '정화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반면 전국신도회와 양산불교산악회 등 11개 불교산악회는 25일과 22일 각각 '종정교시 봉대'를 주장했다.

또 한 단체 안에서도 입장이 달리 발표되는 경우도 있어 단체 내부의 분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21일 대불청 서울, 경인지역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종헌종법 유린 세력들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불청은 14일 종정교시 봉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가단체에 지지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속앓이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가단체 관계자는 "현 사태에 대해 어느 단체든 자유롭게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일부 스님들의 불화가 승·재가 단체의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마치 대리전을 치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3일 동안거 결제

불기 2542년 동안거가 경북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비롯 전국 70여 선원에서 3일 일제히 결제에 들어간다. 이날 영축·해인·조계·고불·덕숭총림 방장스님들은 결제법어를 내린다. 이번 동안거는 99년 3월 2일 해제한다.

선임법사회서 인사초안 작성

군승단, 규정등 개정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11월 2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승단 규정' 및 '법당운영 청규'를 개정했다.

군법사 인사와 관련, 앞으로는 선임법사회에서 군법사 인사초안을 작성해 육군본부에 제출키로 했다. 선임법사회는 임관 15년 이상된 15명의 군법사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은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종단보좌관이 군법사 보직 및 장기선발에 관한 인사초안을 작성했다.

군승단은 또 개정된 청규를 통해 모든 군법당이 일정 양식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찰의 모든 재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성운 기자

클린턴 방한 청와대만찬

월하종정 참석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클린턴 미국대통령 방한 만찬에 불교계에서는 월하 종정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치 경제 노동 언론 문화 학계 인사 1백20여명 중 월하스님과 월탄스님을 초청했다. 그러나 월탄스님 초청을 놓고 월주스님과 지선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와대에 항의해 월탄스님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불교 바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461명은 11월 26일 "승가대중은 수행과 교화에 전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불교바로서기 지성인 선언

재가불자 461명 동참 "출가정신 회복" 촉구

조계종 사태와 관련 재가불자들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서 전 교육개혁위원장, 박광서 우리는선우 이사장,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 김재일 통산반야회장, 류시화시인 등 재가불자들은 11월 26일 조계사내 산중다원에서 '불교바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선언'을 발표했다.

지성인 선언에는 학계, 언론 출판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의료계, 문인등 4백61명이 동참해 "종권쟁취를 목표로 일부 권승들에 의해 벌어지는 폭력사태의 악순환은 재가불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참회와 무소유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 대중공의와 종헌종법에 의거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이온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1면 '회동'에서 계속

정화회의측은 "본사주지연합회의 수습안에 전격 동의했는데 종회측이 승려대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역시 대화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맞서 서로의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승려대회를 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회장 수락을 보류한채 대화의 장에 나서고 있는 탄성스님과 합의안을 내놓은 본사주지연합회, 그리고 합의안에 동의한 정화회의와 중립집행부 구성을 통한 선거 재개를 주장하는 중앙종회의 입장이 얽힌 가운데 4단체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참회로 다시 일어서자" 국민의지 결집

국난극복 전국순회법회 회향 의미

종단별 특성살린 법회

전 前대통령 6차례 참석

농산물 직거래장터 '인기'

진정한 불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진한다. 6·25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처했다는 오늘의 고통을 간절한 참회와 발원으로 이겨내려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법회'가 회향됐다.

4월부터 올 한해동안 강원도에서 출발해 서울 대전 부산 목포까지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정진과 기원을 해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는 호국불교 정신의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법회의 의미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산돼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켰다는 평이다.

이 법회는 과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대 팔만대장경을 조성해 외침을 막고, 승병 의병으로 나서 이땅을 지켜온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오늘날 닥친 경제난 극복을 국민 각자가 자기자리에서 참회하는 수행정진에서 출발점을 삼았다. 종단협의회 주최의 합동법회로 열린 이 법회는 불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주관하는 각 종단의 특성에 따라 대참회를 전제로, 참선정진 관음정진 염마니반메훔정진 수계연비 3천배 등 다양한 수행으로 진행돼 일회적 전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법회로 역할했다. 또한 각 종단 종도들은 이 법회를 계기로 다른 종단의 수행법을 체험해 신행의 폭을 넓혔다고 입을 모았다.

부대행사로 농·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도농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왔고, 설악산 신흥사에 '국민화합 나무'를 심고 진각종 총인원에 '국난극복기원 진언비'를 세워 결연한 의지를 모으기도 했다.

이 법회를 후원한 3당불자회장과 불교언론 3사의 참여열의도 돋보였다. 각 정당별 불자회의 활동이 이 법회를 통해 두드러졌던 것도 눈여겨 볼만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회에서 주목을 끌었던 인사는 전두환 前대통령. 사면 복권된 이후 첫 공식행사로 국난극복 제1차 신흥사 법회에 참석한 전 前대통령은 총8회 열린 법회 가운데 6회를 참석했다. 전 前대통령은 본인의 사면복권을 위해 서명해준 불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대통령을 지낸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의 어려움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前대통령은 법회의식때 단주를 돌리면서 〈반야심경〉을 외워 주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특히 전 前대통령은 순천 선암사에서 5·18관련자들로부터 날계란 세례를 받고도 예정된 목포 지역화합법회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지역화합을 기원하는 목포 회향법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전 前대통령의 신심과, 동서화합만이 국민화합에 이를 수 있다는 목포 지역민들과 불자들의 큰 마음이 부처님 품에서 함께 작용했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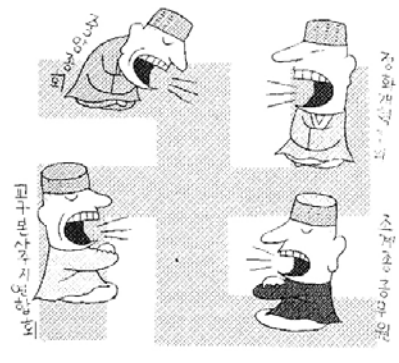
동서화합의 물꼬를 튼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는 20세기 호국불교의 몫을 해냈다는 여론이다. 특히 다른 종교계는 국난극복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벌이지 않는 현실에서 특별히 불교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국민적인 관심을 끈 것이다.

위영란 기자 (yryul@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화합들 하시죠

봉행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 일 시 : 불기 2542년 11월 30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증 명 : 서 옹

·고 문 : 관응 고송 혜암 비룡 운경 도천 석주 종산 원담 응담 벽암 도견 일타 성수 행원 청하 탄성 지유 정천 지종 녹원 도원 정영 보성 청화

·대회장 : 탄 성

·지도위원 : 고산 능가 광덕 지관 덕명 밀운 정락 혜산 벽파 이두 혜정 법정 대정 월주 법홍 화엄 도성 인환 종하 봉주 월운 정대 향운 현지 중산 월성 법연 명선 평전 법경 중원 성타 정무 활안 정관 근일 세민 보선 종걸 현기 고우 고봉 철웅 보광 무비 종진 원산 성덕 도후 혜광 진허 세민 적명 원융 무여 종범 법산 신철 현성 대선 덕민 법혜 송월 정원 무진장 암도 종성 인각 청화 능엄 일봉 중천 도선 청우 현우 동광 대성 오현 홍교 동춘 법조 활성 통광 선래 성오 혜산 광우 진관 태경 법운 명성 묘임 상륜 대행 법성 경순 지원 정광 도영 호진 자민 재운 (무순)

·공동 봉행위원장 : 법장(본사주지연합회장)·법등(중앙종회의장)·지선(백양사 주지)

·봉행위원 : 지현 성관 종림 광복 정대 세영 청화 마근 도완 정념 지명 진각 장곡 정묵 법등 종운 종상 능관 도각 수완 영담 정인 석호 정각 설송 근일 평상 원행 성오 화범 진만 종삼 범종 영조 월우 종하 탄우 대원 진원 일면 경훈 성우 월서 명진 현봉 지욱 현응 향적 지하 법안 법성 혜창 정우 여연 영배 정휴 법민 장윤 지홍 원명 범하 원경 인걸 지연 설파 원타 장산 원정 일수 광제 호월 법현 범여 일장 설봉 도현 원오 지운 의정 정수 화암 장적 토진 현공 정산 자성 일문 법일 무여 진우 원종 다정 동훈 진월 종호 동명 심경 성적 성종 성연 보행 휴정 선혜 의광 천담 진현 혜범 일봉 법연 정완 성주 성용 보각 백운 정광 해봉 상운 도원 정고 정찬 법해 지태 원천 철안 태공 혜림 진각 진성 혜자 지성 도호 인덕 청안 수경 연관 수진 대각 지운 혜남 도형 혜권 지현 무관 철우 도일 혜능 종열 지홍 정묵 지환 무문 천진 법현 계성 지상 대원 정련 심경 성직 정호 성로 원경 정완 정견 성주 도광 영도 지홍 홍진 영오 지정 설응 대암 문석 도견 월면 일봉 원행 정광 삼지 현각 경덕 화광 성천 정도 현중 현관 황석 원진 원담 법전 진언 법용 원혜 태관 관응 대진 덕상 성수 법안 법광 지운 선광 지만 혜천 효성 주경 법성 도진 정일 정신 청안 자광 성웅 효담 대혜 유광 만우 허운 법광 원현 성운 회룡 혜정 법달 종문 운성 지현 종우 종수 진현 휴정 자성 묘유 법광 중현 상훈 승원 효명 청봉 원우 정만 선재 정산 원행 명현 현산 지장 지태 무애 정진 무여 일현 정우 경호 무이 무착 법나 성호 영진 평중 덕산 지장 원성 견진 회일 법현 무공 진우 현묵 일수 지운 자성 원명 현광 지진 현전 영진 청현 지원 보경 은성 법정 혜향 지우 몽산 혜일 법인 법각 도훈 재훈 재진 법현 범여 혜산 재석 법경 서운 자현 심진 무관 의광 보인 태공 혜림 명우 수현 법성 도문 일법 운달 지형 계호 해주 본각 경륜 일연 일진 상덕 탁연 묘순 광옥 영안 성우 정성 정덕 일우 각림 보각 혜선 지문 법진 법명 자광 길상 혜원 혜조 홍승 진명 혜견 효문 지연(무순)

·공동 집행위원장 : 도법 청화 명진

·집행위원 : 영담 지명 정휴 지하 지홍 여연 대원 종수 일철 현각 일화 혜운 종호 금강 하림 지명 원명 혜용 부경 덕영

·대 변 인 : 향 적

·부대변인 : 법 민

·외 호 : 우리는 선우/ 대불련총동문회/ 전국교사불자회/ 스카웃불교지도자회/ 대불청 서울지구/ 대불청 경기지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봉은사신도회/ 석왕사신도회/ 금강정사신도회/ 대각사청년회/ 서울불교청년회/ 수원불교청년회/ 중앙종무기관원우회/ 대불련 천안지부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대회장 탄 성

사태해결 모색 긴박했던 이틀

탄성스님 "대화 계속해 화합해야 한다"

월탄스님 "모두 잘될 것이다 기다려달라"

▲26일 오전 10시

타워호텔에서 본사주지연합회 측의 법장, 밀운, 중원, 성덕, 도후, 진허, 보선, 현지스님 중앙종회측의 법등, 청화, 명진, 현응스님 총무원측의 도법, 일철스님 정화회의측의 정우, 성문, 종광 스님등이 만났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계속된 이 회의에서는 23일 본사주지연합회가 결의한 수습원칙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4단체는 24일 오후7시 예비모임을 가졌다.

▲26일 오후 7시

타워호텔에서 비공개로 대화가 계속 됐으나 종회와 정화회의는 합의 점을 찾지 못했다. 중재역을 맡은 본사주지연합회가 '비상종회 구성'을 내용으로하는 6개항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 모임에는 총무원측이 참여하지 않았다.

▲27일 오전 10시

타워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역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화회의측의 정우, 성문, 종광스님과 종회측의 법등, 영담스님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의 법장, 중원, 밀운스님이 단나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탄성스님과 월탄, 도법, 지선스님과 이길융 총무실장이 방문해 회의 분위기 한결 고조됐다. 이자리에서 정화회의측은 본사주지연합회가 내놓은 합의안에 전격 동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비상종회가 구성되면 비상종회에 즉각 청사를 내 줄 것이라는 의향도 비쳤다.

▲27일 오후 4시

조계사 인근 찻집에서 탄성스님과 월탄, 명진스님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탄성스님은 "중립집행부를 구성해 하루빨리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종단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월탄스님은 "어떤 형태로든 종단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승려대회를 연기해 원로스님들과 종정스님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직후 월탄스님은 "종도들의 걱정이 많은데 빨리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잘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27일 오후 6시

타워호텔에서 탄성스님과 종회측의 법등, 영담스님 정화회의측의 정우, 성문, 종광스님 본사주지연합회측의 법장, 밀운, 중원스님이 만나 2시간 가량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8시 30분경 저녁식사를 위해 회의가 중단된 가운데 법장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법장스님은 "탄성스님이 승려대회를 하지 않는 원칙 속에서 대화를 계속해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히고 "정화회의는 본사주지들의 합의안에 동의했으나 종회측이 입장을 달리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장스님은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걸 다 털어 버리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의사까지 비추며 "이렇게 양측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면 우리도 우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또 하나의 총무원을 차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보였다.

저녁식사후 기자들에게 공개된 회의는 20여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종광스님이 "원론에 대한 합의라도 해야한다"고 말을 꺼냈으나 법등스님이 "각론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원론의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승려대회를 연기했는데 정화회의는 개원회의 등을 진행하지 않았느냐"며 맞섰다. 결국 "승려대회를 하려면 하라" "송월주의 예하 부대가 …"등의 언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법등스님은 "비상종회도 중앙종회를 통해 적법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정화회의측은 "본사주지연합회의 합의안에는 동의하지만 종회측의 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탄성스님이 "종회의장스님이 종회의원들과 더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를 더 하자"고 제안해 회의는 28일 오후3시로 연기 됐다.

특별취재팀

"사부대중의 바람은 종단 정상화"

조계종 사태

월하스님 승려대회 엄금 담화(21일)

●…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승려대회를 금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월하스님은 2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금후 어떤 승려대회도 엄히 금한다. △종정의 교시와 원로회의의 결의를 거역해서는 안된다. △정화개혁회의는 빠른 시일내에 정화개혁조치를 마무리해 여법한 절차를 거쳐 새 집행부를 탄생시켜야 한다. △전 종도는 정화개혁회의를 중심으로 뭉쳐 제2의 정화불사를 원만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라고 밝혔다.

법등 · 도법스님 반박 성명(21일)

●… 월하스님의 담화문과 관련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같은날 공동명의의 반박성명을 냈다. 두 스님은 성명에서 "더 이상 불법 폭력집단을 비호하지 말고 가헌종법이 여법히 지켜 지고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평무사한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화회의, 승려대회 논평(21일)

●…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는 21일 '해산된 중앙종회 명의의 승려대회 개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정화회의는 논평에서 "해산된 중앙종회 일부 스님들이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결의 발표는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스님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전 종도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해종행위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종회에 승려대회 유보요청(23일)

●…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23일 오후 3시부터 타워호텔에서 21명의 본사주지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종단 상황과 관련, 수습대책위원회를 11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단 안정을 위한 수습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사주지연합회는 수습대책위 구성 외에 대책위 활동의 기본 방침도 정했다. △종헌 종법 개정시에는 본사주지 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현 사태는 총무원장 선거로 해결한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히는 것을 원칙으로 수습방안을 강구한다. △중앙종회측에 27일자로 예정된 승려대회는 일단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 △정화개혁회의 측에 수습기간 동안에는 종단 분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진행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수습노력이 무산될 경우 능동적으로 승려대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를 해결한다 등.

도법스님 "정화회의 해산해야"(23일)

●…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헌종법에 의거한 선거를 통해 조속히 종단기구를 정상화하고 종무행정을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법스님은 "종헌종법을 부정하고 종정을 전단하는 정화개혁회의는 해산해야 하고 즉각 총무원 청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청사만 접수하면 종정을 전단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화회의, 장기집권야욕 비난(23일)

●… 이날 정화회의는 '월주스님 측근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월주스님이 무대 뒤편에서 상좌인 도법스님을 권한대행으로 임명, 장기집권의 야욕을 변칙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종무원 공권력무능 규탄(23일)

●… 조계종 중앙종무원 100여명이 23일부터 매일 오전 9시 총무원 청사앞에서 청사반환을 요구하며 출근정진을 하고 있다.

한편 종무원들은 23일 오전 11시 '폭력 방조 공권력 규탄 집회'를 광화문 4거리에서 갖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공권력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정화회의 부원장에 현근스님(23일)

●…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은 23일 집행부 부원장에 현근스님을 임명했다. 정화회의는 종무원 복귀시한 30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으일 것"이라며 '종단의 질서회복과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1080인 서명운동'을 계속 결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가단체비상대책회의는 교사불자연합회 대불련총동문회 우리는선우 삼보법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승가대 구종구교법회 연기(25일)

●…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와 학생회는 25일 개최키로 했던 '구종구교법회'를 연기했다.

총동문회와 학생회는 "화해의 상황에서 법회를 연기한다"며 "앞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법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려대회 협조공문 전달(26일)

●… 김영화 종로경찰서장은 26일 정화개혁회의 원학 호법부장을 만나 "현재 총무원건물 안에는 쇠파이프와 각목, 음료수병 등 흉기로 돌변할 소지가 큰 물품들을 여 총무원을 관리한다.

4.비상종회 구성안에 어느편은 합의하고 어느편은 반대할때 합의가 되는 측과 힘을 합해 비상종회를 구성한다.

5.양측 공히 우리의 제안을 거부 할 때는 본사주지연합회가 독자적으로 종단 비상사태를 해결한다.

6.수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본사주지는 어느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한다.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종단사태 합의안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의 11인 대책위가 작성한 수습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앙종회측과 정화개혁회의 측이 합의하면 그에 따른다.

2.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과 본사주지 동수로 비상종회를 구성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비상종회는 종단의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한다.

3.비상종회가 구성될 경우 비상종회에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과도집행부를 구성하



◇26일 오전10시부터 정화개혁회의, 중앙종회, 총무원, 교구본사주지연합회 등 4단체가 종단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조계종 정화개혁회의는 26일 개원회의 직후 총무원 청사에서 정화개혁회의 현판식을 가졌다. (기사 1면)

자진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서장은 총무원 호법부장 혜운스님에게도 "승려대회 당일 각목 등을 조계사 경내로 반입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달라"면서 폭력사태방지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정화개혁회의보 발행(20일)

●… 정화회의는 20일자로 대판 4쪽 분량의 정화개혁회의보를 발행 정화회의 활동을 홍보했다. 이에 앞서 정화회의는 16일자로 정화개혁회의보 특보를 대판 8쪽 분량으로 발행했다.

조계종보-승려대회보 간행(27일)

●… 조계종 총무원이 30일 승려대회를 앞두고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7일자로 대판 12쪽 분량의 조계종보를 발행했다.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도 25일자로 대판4쪽 분량의 '전국승려대회보'를 발행 전국 사찰과 불교 유관단체에 발송했다.

강원연합 사태해결 촉구(27일)

●…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은 11월27일 현종단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강원연합은 결의문에서 △정화개혁회의의 즉각적인 총무원 청사반환 △종헌종법에 따른 조속한 총무원장 선거 실시 △비폭력 △종단분규에 동원시킨 학인들의 강당 복귀 △대규모 집회 자제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문화부 종무실 중재 나서

●… 조계종 사태 해결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종무실(실장 이길융)도 적극 나서고 있다. 종무실은 13일 중앙종회와 총무원,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정화회의 측을 한자리에 초청해 대화의 자리를 주선했다. 그러나 이자리에는 총무원과 중앙종회측이 불참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종무실은 또 20일 서울 프레스센터로 4단체를 초청했다. 4단체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이자리에서도 해결의 '열쇠'를 갈아 내는 소득은 얻지 못했다. 23일 종무실은 종무관실에서 4단체 대표들을 따로따로 만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자양하고 한 발씩 양보해 화합 종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일관적으로 요청했다.

특별취재팀 (ytlim@buddhapia.com)

종정예하의 교시를 봉행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정화개혁회의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수행과 포교중심의 청정교단을 건설하겠습니다.

종정예하와 전 종도의 뜻을 받든 정화개혁회의는 이제까지 행정과 종권을 앞세워 종단운영 전반을 파행으로 이끈 사판중심의 교단에서 수행과 포교를우선으로 하는 청정교단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용맹정진할 것을 밝힙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화개혁회의는

첫째, **수행과 포교중심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둘째, **본사중심의 교단운영제도를 확립**하고
셋째, **교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세가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정화개혁회의는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전종도와 이천만 불자에게 공개하오니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장이라도 본사중심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중앙종무기관의 종무행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본사중심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이야말로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중앙종무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총무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에 따라 대폭적인 분담금 삭감을 단행하여 지방교구본사의 재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셋째, 세속화된 총무원장, 본사주지선거법 개정으로 무너지는 종단 위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고질적인 종단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총무원장 및 본사주지 선거법 등 청정승단의 종풍을 흐리는 제반 악법을 개정하여 승단의 화합을 이루고 수행자로서의 본래 위상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넷째, 본사주지 겸직금지 조항 반드시 폐지시키겠습니다.
본사주지스님들은 각 지역의 포교와 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 운영권자임에도 개혁을 빙자한 악법의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중앙종무운영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화개혁회의는 이 조항을 폐지하여 본사주지스님들에 의해 중앙종무가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제는 제도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야 하고, 정화개혁회의가 비구니부 신설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은 우리 교단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교단운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화개혁회의는 비구니부 신설로 교단내외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을 증대하고 이 부서를 통해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실질적 행정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교계 복지사업 전분야에 걸쳐 비구니스님들을 최일선에 배치해 복무하실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전문적 분야의 재가신도를 중심으로 교단운영 참여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종단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온 이천만에 이르는 재가신도에 대하여 정화개혁회의는 교단운영에 합리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포교일선에서 고생하는 불교신행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교단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예)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신설해, '상원'은 계단위원 및 법리에 밝고 경학에 밝은 스님들로 구성하고, 하원은 전문분야의 재가신도들로 구성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위상정립을 새롭게 정립한다.

종도여러분! 이천만 불자여러분!
제2정화불사를 주창하신 종정예하의 교시를 봉행하는 것은 오늘의 종단현실을 극복하고 21세기 청정승단을 마련하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부파불교에 대항하여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났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모두가 함께 피안의 세계로 가는 제2정화불사운동에 동참해야할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불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제라도 열려있는 정화개혁회의의 일주문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2년('98년) 11월 26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정 화 개 혁 회 의

교차로 출가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

정관 불국토 이사장은 4일 부산 광역시청 동백홀에서 98불국토의 밤 행사를 갖고 제6회 자랑스런 불자상과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을 갖는다.



봉녕사 승가대 학인모집

묘엄 봉녕사승가대학장은 99학년도 봉녕사승가대학 사미니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찰청서 법회경 강의

지우 경찰청경승실장(금강사 주지)은 10일부터 1년간 매월 둘째 목요일 12시에 경찰청 남관 법당에서 〈법화경〉을 강설한다.



김장용 무공해 배추 시판

도법 불교귀농학교장은 11월 28일 불교귀농학교 사무실에서 지리산 실상사에서 생산한 김장용 무공해 배추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실직자돕기 쌀 모으기 법회

진관 석담 진욱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후원으로 13일 오전10시30분 저소득 실직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법회를 능인선원에서 연다.



냐니스타스님 초청 설법

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부천의 국인노동자의 집 이사장)는 11월 22일 미얀마부처님상 점안식 및 미얀마 쉐이찐 종단의 종정 냐니스타 스님 초청 설법회를 가졌다.



고산스님 초청 수계법회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전계대화상 오고산스님 초청 제26회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안강 원각사서 법문

보각 소쩍새마을 원장은 11월 12일 안강 원각사 초청법회에서 법문했다.



중앙승가대 동창회 열어

해관 중앙승가대 제3회 동창회장(승가대 법인사무처장)은 11월 27일 전북 김제군 망해사에서 동창회를 열고,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남불교대 신축 기념법회

우학 영남불교대학장은 1일 영남불교대학 신축기공 기념법회 및 동지기도 입재를 겸한 삼중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유럽가는 거조암 다섯 나한

Focus

내년 6월부터 독일 에센시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2년간 베를린, 스위스 쮜리히 등 유럽에서 순회전시를 갖는 '한국의 혼을 찾아서' 특별기획순회전〈본지 161호 7면 참조〉에 참가할 거조암 나한상 5위〈사진 앞줄 다섯 나한〉가 선정됐다. 한국의 고미술품을 유럽에 알리고자 기획된 '한국의 혼을 찾아서' 순회전에는 우리 문화유산 1백건 3백여점이 참가하는데 사찰소장 문화재는 거조암 나한상과 천은사 금동불감 등 2건. 나한상 총 526위중 '불교적인 이미지가 잘 나타난 독특한 표정'의 나한상에 선정초점이 맞춰졌다고.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실직노숙자 재활 도와야지요"

은평구 '희망의 집' 연 성운스님



"추위는 성큼 다가오고 거리를 헤매는 실직노숙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평지역의 실직노숙자만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망의 집을 열게 됐습니다."

11월 23일 은평구 지역내 실직노숙자를 위한 쉼터 '희망의 집'을 개설한 성운스님(인덕원 이사장, 삼천사 주지)의 말이다. 현재 희망의 집에는 13명의 실직자들이 입소해 아침 9시에 나가 공공근로나 공사장 일용직 등의 일을 하고, 저녁 5시 30분이면 귀가해 사랑방 명상과 참선도 하는 등 자유로운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 실직노숙자들은 또 휴일에는 인덕노인복지회관의 단기보호 노인들의 말벗과 식사 보조등의 봉사도 할 예정이다.

스님은 "어려운 이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실직의 아픔을 극복하고, 재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희망의 집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지역의 사찰에서 실직노숙자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서울·경인지역 새싹포교 주력

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송묵스님



"새싹 포교는 전국에서 고루 전개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남지역에서만 활발할 뿐입니다. 레크리에이션포교회 조직과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지도자 양성에 힘써 서울·경인지역 어린이 포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12월 5일 구룡사에서 개최되는 제22회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에서 레크리에이션포교회 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송묵스님(경기도 남양주 등원정사 주지).

송묵스님은 "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불모지에 가깝던 어린이 포교 분야를 개척했던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레크리에이션포교회 조직을 강화하는 자구책 뿐만 아니라 범종단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송묵스님은 "서울·경인지역에서 어린이 포교 후원회를 조직해 재정을 확충하고 어린이 교사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레크리에이션지도, 연꽃 어린이캠프 개설 등 새싹불자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80일 장좌불와로 무상심 배워

정토포교원서 강연 박노해씨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IMF 체제하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근본생태주의자들은 제조업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청년정토회 초청으로 11월 25일 홍제정토포교원에서 '자기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한 깨달음'을 주제로 연단에 선 박노해씨. 박씨는 우선 '개인주의'를 우리의 당면 문제로 지적했다.

경주교도소에서 동지들을 형장의 이슬로 떠나보내면서 장좌불와를 시작했다는 박씨는 "80여일간 면벽을 하면서 불성(佛性)과 같이 무한한 것과 물질과 같은 유한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무상(無常)과 자비심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우리의 존재란 상호관계에서만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개혁"이라며 "이것은 그물망의 유리구슬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불교의 화엄사상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교차로 재가

해동용궁사서 법문

박원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5일 해동용궁사 대웅전에서 '생활속의 불법'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한다.



민주유공자녀 장학금 전달

서석재 민주유공자장학재단 이사장(국회의원)은 11월 26일 오후 5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민주유공자 자녀 3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2월 다보법회서 법문

한정섭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은 2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12월 다보법회 초청 법회에서 법문한다.



日 석탑 제막식 참석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삼성출판사회장)은 한국도자기 전래 400주년 기념축제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11월 28일 일본 가고시마현으로 출국, 석탑건립 제막식에 참석하고 11월 30일 귀국했다.



제22회 월남장 증정식 가져

박규채 한국평생교육복지회장(월남장증정위원회장)은 11월 27일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 강당에서 제22회 월남장 수여식을 가졌다.



'새로운 세기의 문학' 주제 특강

신경림 시인은 사단법인 우리문화사랑 주최로 5일 오후 3시 서울 동숭동 무애빌딩 1층 강당에서 '새로운 세기의 문학'을 주제로 특강한다.(02)3675-5506



'전후 소설의 윤리와…' 학술회

홍기삼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장은 4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전후 소설의 윤리와 개인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IMF 이기는 참존 경영전략 포럼

노부호 서강대교수(한국경쟁력연구원장)는 2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1층 비지니스홀에서 참존 김광석 사장을 초청 'IMF를 이기는 참존의 경영전략'을 주제로 비지니스 포럼을 갖는다.



'98 솟대문학의 밤 개최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은 1일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98 솟대문학의 밤을 개최했다.



어린이 환자돕기 일일찻집

송지연 한국불교사회봉사회장은 11월 29일 조계사 산종다원에서 불우 어린이 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봉 11월 26일 정화개혁회의 개원 축

· 종 정 월 하
· 원로회의 의장 벽 암
· 원로회의부의장 원 담
· 원로회의부의장 정 영

정화개혁회의 의 장 벽 암 정화개혁회의 부의장 현 호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월 탄 정화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 현 근
포 교 원 장 지 원 교 육 원 장 암 도

종도 여러분! 11월 30일 송월주측과 해산된 중앙종회 일부스님이 개최하려는 승려대회는 본사주지연합회 스님들이 유보를 결정하신 불법집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임에선

마하네트 정기총회

대한불교 아마추어무선사회(Maha Net, 회장 이상현)는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서 불자햄 단합과 홍보를 겸한 모임을 갖는다.

이번 모임에서는 마하넷트 4차 정기총회와 다과회를 갖고 불교아마추어 무선사회 모임현안과 99년 부처님오신날 행사 준비 기획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018-316-4682

심우회 신병교육대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3일 강원도 21사단과 2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하여 불자장병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이날 심우회는 21사단, 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위문법회를 개최하고 대중공양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011-744-2539

한편 심우회는 11월 29일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의정부 기무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대중공양하고 보일러를 보시했다.

금융단 연꽃마을 방문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11월 29일 연꽃마을을 방문하여 할머니 · 할아버지들을 위문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금융단불자연합회는 이날 연꽃마을에 연료비도 전달했다.

하이텔 불동 부경법회

하이텔 불교동호회 부산 · 경남법회(지역장 유보현화)는 5일부터 6일까지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부경법회를 봉행한다.

부경법회는 극락선원 명정스님을 친견하고 백운암 자장암을 탐방한 뒤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불교라이온스클럽 자비심는 봉사활동 '신바람'

동불 장학사업 · 복지시설 후원
반야 탑골공원 무료급식 도와
붓다 이웃돕기 · 자연보호 앞장

불교계 라이온스클럽의 활동이 활발하다.

국제라이온스클럽에 불교라이온스클럽은 동국 백상 동경 동불 송죽 한마음 반야 붓다등 1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 불교라이온스클럽은 '봉사'를 주제로한 라이온스클럽 이념에 교리적으로 가까워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창립한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은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제라이온스클럽 하나 바란타 회장과 회원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354지구 제1지역(부총재 김성호, 불교미술관 관장) 환영식에 참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재 C지구 안에는 동국대 학부출신으로 구성된 동국라이온스클럽을 비롯하여 백상, 동경, 송죽, 한마음 라이온스클럽이 있는데 이들 라이온스클럽은 라이온 모토인 봉사대열에 참가하며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와 불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불교복지시설에 물심양면의 지원도 하고 있다.

또 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강학일)은 무진장스님을 법주로 매달 법회를 개최하며 불교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초 탑골공원에 노인무료급식소를 개원, 종로구청에 기증하기도 했다. 반야라이온스클럽은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조계사청년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붓다클럽은 도내에 3개 클럽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역량있는 사회단체로 성장했다.

붓다클럽은 불교발전을 위한 기원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웃돕기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성호 354지구 1지역 부총재는 "봉사에 대한 체계를 갖춘 라이온스클럽에 들어가 활동함으로써 보시자비의 불교정신에 기반한 신행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라이온스클럽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데 반해 불교라이온스클럽은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심투혼으로 방콕亞대회 '금' 발원

한마음불자회 국가대표 환송법회

'불심투혼으로 다시한번 방콕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쾌거를 이룩하겠습니다.'

24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수덕사 포교국장 경학스님, 지도법사 환호스님을 비롯 한마음불자회(회장 정용균) 회원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 후원으로 '98 방콕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한마음불자 환송법회가 봉행됐다.

고진숙선수(사격)의 헌화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수덕사 사회국장 진섭스님은 법문을 통해 "청정한 믿음의 발원이 성실한 승리의 씨앗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며 "물러섬이 없는 용맹정진의 정신으로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궁 이은경, 레슬링 심권호, 유도 정성숙 조인철, 사격 이은철 한현진, 볼링 김수경, 배드민턴 라경민, 수영 이보은선수등 금메달 유망주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선수들은 촛불의식을 하며 부처님전에 발원문을 낭독하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또 중앙승가대학 선재스님은 찬불축가를 독창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방콕 아시아대회에 출전하는 불자선수를 격려하는 혼송법회가 24일 열렸다.

이은경선수는 "연습시 정신집중이 안될 때나 승부의 고비마다 참선과 독경으로 이를 극복했다"며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과 불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청소년 포교 소책자 '오늘의 내가…' 펴내

광주 · 전남교사불자회



광주 · 전남불자교사모임(회장 김진택)은 '불교속의 주머니' 여섯번째 포교책자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너였어야'를 발간했다.

이 청소년 포교책자에는 '공양은 회향이다' '염불도 공덕이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꿈은 꿈일 뿐이다' '모양은 허망하다' '수고하세요' '예절은 건강이다' 등 1백24쪽에 45개 주제의 글이 실려있다.

김진택회장은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작은 책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지만 불교입문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문의 (062)573-8811



동국대 제주대와 학술교류 협정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1월24일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주대학교(총장 조문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교육 및 연구 등 학술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양교간 상호협력과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수 및 연구자의 교류 △학생교류 △학술정보 · 학술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은시인 초청 만해사상 강연회

만해사상실천회 대경지부(지부장 이영창)는 21일 대구 진각빌딩 7층에서 고은시인 초청 만해사상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해사상 강연회에는 보광선원 및 표충사 · 조실인 입화산스님 서지월시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정은하씨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고은시인은 강연을 통해 "만해스님이 말씀하신 '임'은 증생과 부처 혹은 운회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알깨워준다"고 말했다.



장상문거사 6주기 추모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 초대사장을 역임한 중원 장상문거사의 제6주기 추모법회가 지난달 21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돈각, 불교방송 사장 성낙승, 등명문화학원 이사장 배명인, 연합철강 사장 이철우, 대원사 대표 장세옥, 중앙신도회 회장직무대행 김한곤 등을 비롯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탐방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맑은 마음 밝은세상 가꿔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11월 2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법정스님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94년 창립…회원 1200명
자연보호 · 양로원 위문
음악회 · 명사 강연회도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보여준 승려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11월 25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흥교, 본부장 박수관)이 마련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한 법정스님은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또 "맑고 향기로운 삶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검소함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개개인의 실천을 당부했다.

5천여 불자와 시민들이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을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이 대중과 생활속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모임임을 반증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94년 4월 KBS홀에서 4백30여명의 회원으로 법정스님 초청강연회를 갖고 출범했다. 이후 법정스님을 회주로 우리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청정한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보호하고 사랑하자는 범시민운동을 벌여왔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연륜 동안 정기적 재정후원회원, 비정기적 재정후원, 자원봉사회원 등 가입회원만도 1천2백명에 달하는 범시민단체로 성장했다.

그간 94년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 95년 맑고 향기로운 우리집 만들기 법정스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금정산 자연보호운동, 경주남산 생태기행,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스티커 나누어 주기, 양로원 방문, 부의탁 노인 방문 등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향기로운 삶을 가꾸는 활동에 힘을 모아왔다. 또한 월 1회 홍교스님 성오스님 점명일 거사 등 명사초청 강연회를 통한 회원들 마음 맑히기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회원관리를 위한 '맑고 향기롭게' 회보를 소책자로 만들어 발송하고 봉사활동 지원자를 수시로 모집하며 맑고 향기로운 연꽃을 피워가고 있다. (051)898-267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여래선원 봉불점안 및 수계법회

위빠사나 전문 수행도량인 대구 여래선원(선원장 법산, 수성구 범어동)은 22일 석가모니불 봉불점안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미얀마에서 가져온 불사리도 함께 봉안됐다. 여래선원은 한국불교대학을 개설, 매주 화 · 목요일 근본불교 경전인 대념처경과 위빠사나 실수행법(觀法)을 지도하고 있다.

종단의 질서 회복과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현 조계종단 사태에 대한 재가의 입장

승가의 제일 덕목은 화합이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은 지혜와 자비 정신일진데 작금 종단의 잇따른 분열과 폭력사태는 종도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종단의 존립을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첫단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대중은 두려움과 고통에 허덕이며 종단과 승가에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놀랍고 충격적인 사태를 맞아 우리 재가불자들은 이제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에서 벗쳐 일어나 불퇴전의 신심과 애종심으로 자신을 추스리며 종단 질서의 회복과 승가의 화합을 위해 破邪顯正의 기치로 正法을 받들고 승가의 화합을 촉구하며 종단질서를 회복하는 대정진의 길로 용맹정진하여 나갈 것을 서원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위배되는 그 어떤 폭력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총무원 청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종단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청사에서 물러나고 해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적 공의 없는 폭력적 청사 회복 방식도 반대한다.**

-. **원로대덕, 선원 수좌, 본 · 말사 주지, 승가대학의 학인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승가대중은 합심협력하여 大衆公議에 입각하여 조속히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

-. **종단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재가정진법회>를 개최하고 문제 해결의 원력을 드높여 나가자.**

-. **무소유와 대중공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수행과 교화에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적극 공양, 예경, 후원하고, 폭력과 도박, 비리에 연루된 파계승들을 전국의 불자들에게 공개하고 예참, 참법, 공양하지 않는 운동을 벌여 나가자.**

-. **종단과 사찰 운영을 투명화하고 재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삼보정재의 남용을 막고 사부대중 공의에 입각한 종단과 사찰 운영이 되게 하여 종단분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불기 2542('98)년 11월 25일

▶ 참가단체

전국 교사불자회 / 대불련 총동문회 / 우리는 선우 / 자비의 전화 / 조계종 원우회 / 삼보법회(사) / 보리 방송모니터회 / 대불청 서울지구 · 경기지구 / 금강정사 신도회 / 수원포교당 신도회 / 석왕사 신도회 / 봉은사 신도회

▶ 서명자 현황(가나다순)

개운사 4명, 경기불교대 16명, 공주신원사 2명, 금강정사신도회 105명, 금강정사청년회 54명, 금산사 6명, 길상사청년회 3, 대각사청년회 16명, 대구정법회거사림 2, 대불련총동문회 2명, 대전불교대학 9명, 동국대불교대학 2명, 동신반야회 28명, 동산선원 2명, 만해불교대학 3명, 방산선원 4명, 법주사불교대학 2명, 보현불교대학 5명, 보현회관 6명, 봉선사 5명, 봉선사 불교대학 8명, 대한불교삼보회(사) 2명,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102명, 파라미타교사사(사) 3명, 심원사 5명, 수덕사 2명, 수원포교당 9명, 신흥사 2명, 용화사 2명, 원우회 70명, 이화여고 9명, 전국교사불자회 42명, 정혜사 4명, 종단협의회 2명, 청량사청년회 7명, 정주용화사 3명, 한국스카웃불교지도자회 3명, 한국관음회 2명, 화계사 신도회 18명, 서울지구 소리바라기 9명, 봉은사 199명, 노적사 9명, 석왕사 신도회 64명, 보광사 10명, 광림사 신도회 57명, 우리는 선우 241명, 현재 1,144명

불교 바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461인 선언

불교가 중생구제와 사회원성의 종교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사부대중 모두의 철저한 역사적 반성과 부처님 가르침의 대승적 실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땅의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펴는 어엿한 모습의 불교로 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조계종 종권의 정취를 목표로 일부 권승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사태의 악순환은 재가불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한국불교의 위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승가는 달라져야 하고, 불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가르침 따로 행 따로라면 그 가르침이나 종교는 이미 개인이나 사회를 이끌어 갈 힘이 없는 죽은 가르침이며 종교이다. 해방 이후 종권다툼으로 얼룩진 불교 현대사의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지금과감히 끊어버려야 한다.

이에 우리 재가불자들은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참회 정진함과 동시에, 종단질서와 불교위상의 조속한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밝힌다.

-. 승가대중은 수행과 교화의 본연의 임무에 전심전력함으로써 국민과 재가불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화합 정진하라.

-. 종권에 집착한 일부 소수 권승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참회와 무소유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 대중공의와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금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 수습하라.

-. 폭력은 반불교적 행위이다. 폭력을 묵인, 방조, 비호, 이용하는 그 누구도 불교를 와해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재가불자들은 폭력과 관련된 파계승에 대해 승보로서 공경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 종권을 둘러싼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재정이 물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승가 자체의 자정능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재가불자들은 정법을 받들어 불교를 바로 세우는 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불기 2542년(1998년) 11월 26일

서명동참 재가불자 일동

불교 바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461인 선언' 동참자 명단

● 학계: 222명

강광식, 강건기, 강석헌, 강신표, 강혜묵, 강용옥, 강혜근, 고진호, 고 현, 고형일, 고홍선, 곽 근, 곽만연, 곽종형, 권순구, 권정희, 김광수, 김기언, 김길흠, 김동수, 김무봉, 김범기, 김상담, 김상영, 김선부, 김성구, 김성일, 김성규, 김세곤, 김승태, 김신재, 김언주, 김연규, 김영길, 김영동, 김영성, 김영철, 김영현, 김옥진, 김용운, 김용택, 김용환, 김유철, 김은수, 김응철, 김인숙, 김재윤, 김재하, 김재호, 김재홍, 김재홍, 김정기, 김정희, 김종서, 김종순, 김진범, 김진성, 김진택, 김 철, 김철호, 김춘남, 김태균, 김한식, 김현곤, 김형목, 김혜숙, 김혜숙, 노부호, 노영재, 노태천, 도정일, 도흥렬, 류승무, 류종민, 류 황, 목정배, 문선정, 미영순, 민태진, 박광서, 박광설, 박범훈, 박석희, 박선영, 박승희, 박영희, 박태화, 배의용, 백춘상, 변상현, 사재동, 서인선, 서혜경, 성기서, 성기태, 성낙도, 성찬용, 성태용, 소광섭, 송위지, 송해균, 신송훈, 신준식, 심재룡, 심정옥, 안규철, 안근석, 안기십, 안상수, 안원영, 안진오, 양영옥, 엄국현, 연규방, 연기영, 오석근, 오세호, 오원배, 오종근, 오종진, 오출네, 오형근, 우준호, 우희종, 유 영, 유예근, 유필화, 윤범모, 윤석성, 윤세원, 윤원철, 윤정희, 이경운, 이근후, 이기향, 이달원, 이동환, 이 만, 이표희, 이무상, 이미숙, 이병인, 이봉춘, 이상만, 이석종, 이성도, 이수기, 이숙희, 이승준, 이영경, 이영덕, 이영복, 이우신, 이윤재, 이인자, 이임수, 이종철, 이주형, 이준규, 이준성, 이준일, 이준표, 이선래, 이춘기, 이평래, 이화자, 이화형, 이희재, 임종권, 임 립, 임승빈, 임종화, 임현수, 임홍빈, 위계윤, 장호경, 장휘옥, 정원수, 정병영, 정보삼, 전재근, 정갑동, 정경연, 정기웅, 정병조, 정용순, 정천구, 정혜영, 정호영, 정환담, 조갈제, 조대우, 조영진, 조영옥, 조학래, 조홍식, 최경구, 최규성, 최용기, 최우영, 최정달, 최종세, 최준하, 최효식, 하수경, 한광수, 한복용, 한석수, 한종수, 허남진, 허문기, 허윤근, 호문혁, 홍동식, 홍성심, 홍종림, 황순구, 홍순효, 황석주, 황진수, 황택성, Roland Woerle/Chon

● 법조계: 40명

고영준, 고형규, 곽동효, 구상진, 김창수, 김춘봉, 김형준, 김홍근, 김홍현, 김회옥, 박병규, 박성키, 박성호, 박용일, 박원순, 박주언, 박홍우, 배만운, 소준영, 송두환, 안동일, 오욱환, 용태영, 유효봉, 이용복, 이은기, 이종한, 이중광, 전창렬, 정극수, 정영일, 정재헌, 조영환, 조현우, 최기만, 최재덕, 한병식, 한윤수, 황공식, 황해진,

● 언론출판계: 21명

강신철, 공종원, 김대곤, 김병규, 김영일, 김정자, 김형균, 김희균, 박순철, 신광식, 신도성, 안길모, 유자효, 윤창화, 이계홍, 이동식, 이두석, 이영일, 이은윤, 이 정, 최정희

● 문인: 12명

강옥구, 고 은, 김정빈, 남지심, 류시화, 방귀희, 백금남, 이만희, 이상우, 장연수, 정찬주, 황청원

● 문화예술계: 34명

강장원, 강형원, 권인효, 김상섭, 김성녀, 김양수, 김영만, 김영배, 김은성, 김종례, 김형섭, 두시영, 문인상, 박찬갑, 박용순, 변지희, 서보동, 손기종, 손진책, 손희옥, 안창헌, 오유례, 이덕환, 이선옥, 이인옥, 이주숙, 임무상, 장상희, 정세학, 조 민, 최영식, 현 정, 홍기자, 황남채

● 의료계: 29명

강만춘, 곽준구, 김과연, 김두원, 김성문, 김성철, 김세원, 김승웅, 김현호, 김유신, 김유진, 김일수, 김종화, 김태균, 김태진, 문희범, 박재익, 박정일, 방홍기, 송성선, 신상진, 이동화, 이정섭, 윤상희, 장현복, 전상원, 전성태, 주기선, 한영애

● 법사단: 40명

고우익, 권지홍, 김경복, 김기훈, 김영수, 김재엽, 김재일, 김종하, 김종환, 김진택, 김철희, 김태형, 남상돈, 남재진, 노혜광, 박우열, 선진규, 송영길, 신근식, 신상철, 안경수, 양진교, 오상현, 오수산, 오용도, 오태갑, 우인보, 이득우, 이준희, 이치란, 이하우, 임선교, 임혜인, 정범용, 조철구, 조호징, 한기한, 한현수, 한길섭, 황하룡

● 교육계: 43명

강영철, 권재호, 김권환, 김귀중, 김명옥, 김상만, 김옥경, 김원수, 김한수, 김해동, 김형숙, 류구자, 박경자, 박동자, 박종희, 봉정춘, 서성만, 서수영, 손기환, 신광철, 신동선, 신동엽, 안재식, 엄범순, 오세만, 이명희, 이영일, 이용의, 이종일, 이진태, 이호영, 임달환, 임완수, 임창홍, 장두순, 전심희, 정해숙, 조건균, 조능연, 조돈연, 조재환, 추연수, 최필영

● 사회활동가: 20명

강인성, 김택호, 김성재, 김수열, 김재일, 문형원, 박남철, 박덕일, 박동전, 박희철, 손혁재, 여익주, 윤용숙, 이진아, 이혜수, 장기표, 정성임, 전민자, 최만재, 허중원,

총인원 461명

이렇게 들었다

화합 서로 양보하면 서로 즐거움 얻어

아직도 조계종시태의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물론 각 진영마다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세속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利)를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자신의 입장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배치된다면 마땅히 논의하고 타협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승가 앞에는 흔히 '청정'이라는 말이 붙는다. '청정승가'는 자신의 이(利)를 떠난 이타적인 집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집안에서 화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화합은 양보를 기초로 한다. 지금 온 국민은 바로 그러한 화합을 바란다. 화합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너희들은 또 마땅히 생각을 오로지 하여 스스로 관찰하라.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써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라. 모든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틀어져 자상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질투하며 교활하고 허망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에 인해 그릇 받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견(邪見)에 헤매고 변견(邊見)과 함께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중집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실상을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범천소문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사문 고오타마는 두 말을 버려 없애어 이 말로서 져를 괴란(壞亂)하지 않고 저 말로서 이를 괴란하지 않으며 쟁송이 있으면 잘 화합시키고 이미 화합하면 그 환희를 더하며 말하는 바가 있으면 화합을 떠나지 않고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가 말하는 바는 때를 안다. 또 사문 고오타마는 악구(惡口)를 버렸다. 만일 추한 말로 사람을 손상하면 그의 결원(結怨)을 더 하고 원한과 미움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런 추한 말은 아주 하지 않고 언제나 착한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여러 사람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바로써 염증을 내지 않는다. 〈범동경〉

▨횃불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열린마당

독자의 소리

"금강산코스 불교유적 필수"

11월 18일, 60년만에 금강산 길이 열렸다. 많은 국민들에겐 꿈처럼 느껴지는 일이었다. 실향민들의 마음이야 오죽 하겠는가. 그런데 이번 금강산관광이 외금강 코스였기 때문인지 사찰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계사터가 유일했으나 그마저도 지나쳤을 뿐이다. 민족정신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고승들이 수행했던 사찰에 들르지 않는다면 단지 훌륭한 풍광을 보는 것 이상이 아니다.

금강산은 절묘한 기암괴석을 비롯한 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도 사찰, 탑, 마애불 등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불교유적이 더욱 유명하다.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의 뿌리는 문화유산이며, 불교유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강산 관광이 단지 유람이 아니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면 불교유적 순례코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헌기〈서울 서교동〉

취임식 대신 노인잔치 흐뭇

현대불교신문 11월 11일자에 '주지 취임식 대신 노인잔치로'라는 기사를 보았다. 마곡사의 새 주지로 취임하는 진허스님이 거창한 취임식 대신 2천여 명의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흥겨워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 더욱이 주지스님의 말씀은 사찰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는 그 어떤 웅변보다 설득력이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마곡사를 우리 절이라고 생각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노인잔치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석규〈인천 연수구 옥련동〉

문화재 매매 자유화

문화재 매매가 자유화되고 문화재 매매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정부 규제개혁위의 개혁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정부 차원의 공신력있는 기관이 나서서 오히려 규제해야 할 부분인데도 자유화라는 이름하에 무차별한 문화재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요지. 이에 반해 문화재 매매의 자유화는 국보·보물급 문화재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 매매 자유화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문화재 보존 국가의무 포기

임효재 〈한국선사고고학회 회장〉



댐공사나 대규모 개발사업 수립시 지표조사를 의무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치는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 매매 자율화 조치나 도굴문화재나 장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폐지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민족문화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를 상품화하여 가격을 매기고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 문화재 감정원 같은 것을 국립기관으로 둬서 유물의 출토 경로에서부터 유물의 진품여부를 가려내고 감정을 통한 공증가를 매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들은 문화유산의 집합소인 박물관이나 연구소에 돌아가서 후대를 위해 보존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문화재는 한번 손상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문화재 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도 문화재와 같이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번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범죄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문화재 음성유통 근절 기회

임영주 〈인사동고미술협 연구실장〉



문화재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문화재 매매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이다. 사실 도굴문화재나 장물이라 해도 현장을 보지 않는 한은 이것이 도굴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는 무척 어렵다. 도굴문화재로 의심되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 매매·위탁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거래를 낳았던 여태까지의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음성적인 매매문화를 양성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문화재 매매가 자유로워지고 신고하는 의무를 폐지한 것은 음성화되어 온 문화재 유통에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할 것이다.

다만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되거나 지정문화재일 경우는 의당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도굴이 확실한 문화재라면 범죄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도굴문화재를 취급한 업체 자체를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소시키는 강력한 법 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개인소유 문화재 내년부터 매매자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 총리)는 문화재관리국 소관 규제 1백36건 중 68건을 폐지하는 규제개혁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개인소유 문화재를 골동품 상점이나 개인 애호가에게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업 설립은 신고제로 바뀐다. 도굴문화재 또는 장물로 인정되는 문화재를 매매하거나 위탁받을 때는 시장, 군수, 수사기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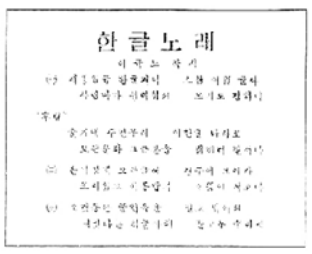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광주시 학무과의 적극지원 확약

- 1945년 11월23일(금)

이만홍스님 등은 회의가 있다고 해서 혼자 한글문화보급회 전남지회를 찾아갔다. 강습회의 진행과 계획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지회장이 없었다. 다른 쪽에서 〈한글 첫걸음〉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가만히 들으니, 이 책은 학교 교과서로 2주일 전에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것을 이곳에서 교재로 하용하기 위해 임의로 인쇄하였다는 요지였다.



한 글 노 래

◇한글문화보급회 기관지 「한글문화」 창간호(1946.3), 35면에 실린 당시의 '한글노래' 가사.

지회장을 만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오고 말았다. 숙소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도청 학무과(學務果)로 갔다. 학무과에서 '이혁'이라는 사람을 만나 용건을 설명했다.

그는 열심히 듣고 있더니 이번 백양사 한글강습회 수료생의 계몽강사 인정과 수요처에의 배치 등 요청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만약 못하게되면 자리를 떠나겠다고까지 다짐하는 것이었다. 강습회를 학교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에 관한 구체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내가 편찬할 강습용 교본의 출판, 공급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일제가 물러간 마당에 한글보급이면 무슨일이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호의가 상쾌하였다.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는 스님들과 극장에 갔다. '반도의 춘(春)'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한글강습회 개강식

- 1945년 11월26일(월)

강습회 개강식이 열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 충국열사에 대한 묵도, 주최자 개회사, 강사 인사말씀, 만세삼창으로 끝났다. 내일부터 강의하기로 되어 숙소로 돌아왔다. 각모(角帽)를 쓴 학생이 와서 보성전문학교 2학년생이라고 인사하였다. 모교의 개학일을 몰라 근심이라며 강습회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

개강, 감동적 강령 제창

- 1945년 11월27일(화)

아침에 일어나자 강습회 시간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왔다. 오전 9~12시, 오후 1~4시로 하고, 중간에 10분씩 쉬기로 하였다. 이것저것 바쁘게 준비를 하느라 10분 늦게 개강하였다.

첫시간에는 강습회의 목적, 과정의 진도와 교재, 시험과 졸업증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목적은 다음 세 강령을 해득케 하는 것이었다.

1. 우리는 3천만 동포 하나하나가 눈뜬 봉사가 없게 하자.
1.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로 새문화를 건설하자.
1.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세계문화를 지도하는데까지 이르도록 힘쓰자.

이 강령은 조선어학회 제1회 국어강습회 졸업생들이 1945년 9월 29일에 조작한 한자(漢字)폐지 실행회 발기준비회의 발기취지서 끝에 천명된 것인데, 한글보급의 목적이 잘 나타난 것이어서 한글노래와 함께 등사해주고 제창시키며 외우게 하려고 한 것이다. 2교시에는 문자사(文字史)를 강의했다. 한글의 중요한 문헌으로 알려진 〈훈민정음〉과 〈월인천강지곡〉을 돌려 보이고 설명하였다. 〈계속〉

현 종단 사태에 대한 강원연합의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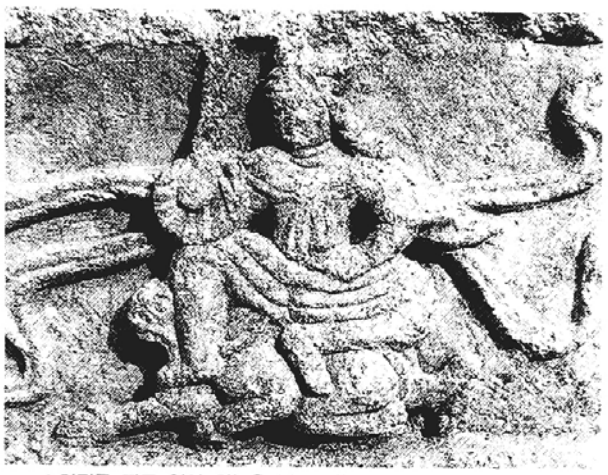
강원연합은 피끓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현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사항을 표명합니다.

1. 종단의 안정을 위하여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를 즉각 비워라
2. 조속한 시일내에 종헌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라.
3. 어떠한 대의 명분이라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하지 않는다.
4. 현재 종단 분규에 학인들을 연루시킨 제 단체는 즉각 학인을 강당에 복귀시켜라.
5.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해결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

1998. 11. 27

전국 전통 강원 연합

동학사 강원 백양사 강원 범어사 강원 법주사 강원 봉녕사 강원 불국사 강원 삼 선 강원 쌍계사 강원
송광사 강원 수덕사 강원 운문사 강원 직지사 강원 청암사 강원 통도사 강원 해인사 강원 화엄사 강원



◇악귀를 깔고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팔부신중의 모습이 새겨진 유물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원 실상사 백장암에서 발견됐다.

실상사 백장암 석탑 기단부서

앉은 팔부신중 첫 발견

생령좌 형태갖춘 통일신라 조각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악귀를 깔고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인 생령좌(生靈座) 형태의 팔부신중상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팔부신중상은 전북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 백장암의 삼층석탑 기단부에서 출토됐다. 머리에 모발을 늘어뜨린 팔부신중상은 눈, 눈썹, 입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있는 등 보존상태가 뛰어나 통일신라시대 선조들의 빼어난 조각술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령좌 형태의 팔부신중상 6점이 한꺼번에 출토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팔부신중상들은 모두 서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팔부신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四天王)의 수하 8명을 뜻한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문화재 발굴팀(팀장 최완규)은 "7월부터 실시된 백장암 유적지 발굴조사 결과 국보 제10호인 삼층석탑 기단부 지하 50cm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생령좌 형태의 팔부신중상 6점을 발견했다"며 "백장암 삼층석탑의 복원작업과 그 당시 불교사상 및 전래과정 등을 고증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때 건립된 백장암은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에 위치한 실상사의 부속암자로 국보 제10호 삼층석탑과 보물 제40호 석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팔부신중상은 모두 서있는 형태였다.

강지연 기자 (jygnag@buddhapia.com)

불심시심 〈152〉

집에 무가의 보배 있다

此身頓頓學爬涉 (차신돈돈학과섭) 이 몸 세상 기어 다니는 것이나 배워
寄在閻浮若女蘿 (기재염부약녀라) 염부제에 붙어 살기 담쟁이 넝쿨 같다
採藥兒常斜日至 (채약아상사일지) 약을 캐는 아이 항상 해질녘에 돌아오고
辦齋僧與澹雲過 (관재승여담운과) 재 올리는 스님은 담담히 구름과 지나가다
山花不見知春盡 (산화불견지춘진) 꽃도 보이지 않으니 봄 간 줄 알고
澗水逾鳴覺雨多 (간수유명각우다) 시냇물 더욱 울리니 비 온 것 깨닫다
家有塋然無價玉 (가유형연무가옥) 집에서 환히 밝은 가없는 옥돌 있으니
不須他石强消磨 (불수타석강소마) 타산의 돌 빌어 다듬을 이유 없다.

혜즙대사의 시이다. '석옥화상의 한거운에 차운한다(謹次石屋和尙閑居韻' 는 시 7수 중의 셋째 수이다. 석옥화상은 고려 말에 원나라 스님으로 우리 고승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친 분이다. 한거라는 한가로움을 주제로 하여 산사의 조용한 경관을 노래하였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 겸손히 여겨 기생하는 담쟁이 정도로 표현하였으니 다음에 이어질 말도 그저 담담한 일상일 것이다.

산사의 하루 약을 캐러 간 아이의 해저녁의 귀가가 하루해의 마침을 알린다. 재를 올리려 약간은 소란하기도 하였던 스님들의 그림자도 구름과 함께 지나가고 말았다. 이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담담한 정경이다. 이러한 하루하루는 계절의 변화도 특별히 느낄 것이 없다. 꽃이 피면 봄이요 꽃이 없으면 봄이 간 것이다. 아울러 시냇물 소리의 변화가 일기의 청음을 이해하게 한다. 물소리가 거세졌으니 비가 온 것이고, 물 소리 잦았으니 날씨가 문 것이다. 계절 변화마저 감각 밖으로 내몰아 버린 스님의 정적이다.

집 안에 좋은 보배가 있어 훤하게 밝히고 있다. 보배란 원래 값의 높낮이로 그 귀함을 잴 것이로되, 나의 보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귀하다 천하다는 것은 세속에서 따지는 일이지, 산사에는 이 귀천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보배이다. 다시 여기에다 더 무슨 값을 따질 것인가. 옥돌이라면 다듬어야 값이 높고 이 옥돌을 다듬으려면 타산에서 나는 돌을 가져와야 하겠지만, 나의 보옥은 원래가 세속의 기준이 아니었으니, 다시 더 다듬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다듬을 수 없는 보배 이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일당스님 판화 '부동명왕'.

일당스님 희수전

10일까지 대구 맥향화랑

〈라훌라의 사모곡〉이란 책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린 일당스님(속명 김태신). 일엽스님의 속가 아들로 더 잘 알려진 일당스님(직지사 중암)이 77세를 맞아 10일까지 대구 갤향화랑(053-421-2006)에서 희수전을 갖는다. 작품은 모두 20여점. 설악산 주왕산 등 명산의 사계를 특유의 석채화에 담았다. 첩첩산들과 골짜기를 흐르는 물, 하늘 등 대자연의 풍광을 단순하면서도 웅장하게 묘사하며 청록색과 홍색, 황색 등 강렬한 색채를 세련되게 구사, 채색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특별히 선보이는 '모자 관음보살'은 아기를 한팔에 안고 젖을 먹이는 보살과 아기의 편안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자비와 자애로움을 상징한 것으로 지난 75년 일당스님의 한국에서의 첫 귀국전때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작품. 또 '반가사유상'과 '부동명왕' 등도 판화로 선보인다.

"일심일념으로 작품에 임하는 자세야말로 참선이고 수행"이라 말하는 일당스님은 내년 가을 베를린과 헝가리에서의 초대전도 준비하고 있으며 곧 금강산도 화폭에 담아올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티벳·몽골불교미술 특별전

내년 2월14일까지 광주서
대원사 현장스님 수집품 전시

·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티벳불교미술 특별전'을 내년 2월 14일까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5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만다라나 티벳 사진전이 일부 열린 적은 있으나 탱화 불상 불경 만다라 및 밀교의식에 쓰이는 각종 법구류 등 티벳의 불교미술품을 한자리에서 대거 볼 수 있는 전시회는 처음 열리는 것. 전시회 작품들은 탕카라 불리는 티벳과 몽골 불화와 만다라 150여점, 불경목판과 전적류 30여점, 민속 공예품 30여점, 인도고대불상 및 세밀화 30여점 등 총 5백여점. 특히 섬세한 공예제작으로 유명한 석가족 후예가 만든 불상, 한지위에 옻칠하고 그위에 금으로 글씨를 쓴 불경,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모불,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공양그릇 까발리 등은 세계불교문화사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 현장스님이 87년부터 10년여간 티벳을 드나들며 모은 미술품들.

현장스님은 "티벳의 찬란한 불교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동양문화를 교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면서 "티벳 미술 상설 전시장도 만들 계획"을 밝혔다. 현장스님은 이번 전시회 작품들 사진과 티벳불교에 관한 글을 모은 〈티벳, 예술과 자연〉도 펴냈다.



◇길상천녀를 그린 탕카.

화제의 전시

이호신씨 '생태기행전'

15일까지 아트스페이스-학고재 두곳서
산문집 '숲을 그리는 마음'도 펴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답사하여 작품을 발표해온 한국화가 이호신씨가 우리 자연유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생태그림전을 15일까지 소격동 아트스페이스 서울(02-720-1524)과 관훈동 학고재(02-739-4937)에서 동시에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생사의 노래' '인동(忍冬)' '결실' '가을노래' '희망의 빛' 등 대작과 소품 80여점이 선보인다. 우리의 산과 골, 나무와 온갖 종류의 토종꽃, 새, 곤충 등 사계절에 따른 산하와 이에 어울려 사는 생물의 조화로운 삶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이다.

5년여 동안 생태기행팀을 따라 다니며 관찰과 사생을 해온 이호신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도 그 한 부분인 생태계가 연기와 상의상관이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호신씨는 전시에 맞춰 60여컷의 삽화와 90여컷의 그림, 그리고 사계절로 나누어 쓴 글을 모아 〈숲을 그리는 마음〉 산문집도 펴 냈다.

"산과 들, 늪과 갯벌 등의 그림으로 세기말 우리 자연환경이 처한 상황을 미력하나마 증언해보려 했다"는 이호신씨의 그림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며 더불어 살아야 할 자연유산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진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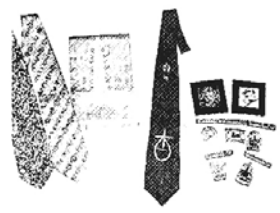
◇이호신作 '생사(生死)의 노래'.

지방박물관들 문화유산 소재 상품개발 활발

귀면와를 소재로 한 티셔츠, 비천상을 그려넣은 넥타이, '신라의 얼굴' 수막새가 들어간 책갈피… 경주, 공주 박물관 등 지방박물관들이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캐릭터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방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신라유물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한 데 이어 공주박물관도 백제유물을 소재로 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12월 20일까지 박물관내에서 전시중이다.

경주박물관이 만든 것은 안압지출토 귀면와를 인쇄한 티셔츠 2종, 기마인물도, 비천상을 그려넣은 넥타이8종, 천마도를 소재로 한 장식용 타일과 '신라의 미소'로 일컬어지는 수막새가 들어간 책갈피 등. 공주박물관은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석수(石獸)와 금관장식, 금동제신발 등의 모조품을 비롯 넥타이 가방, 명함꽂이, 필통 보석함 등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 부여 등 다른 곳의 지방 박물관에서도 문화상품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윤호 기자



◇경주 박물관에서 내놓은 문화유산소재 상품들.

공화랑 개관기념 '고미술 정수전'

단원의 '등호선인' 등 105점 전시

인사동 고미술화랑가를 대표하던 공창화랑이 공화랑(대표 공창호)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관기념전으로 '고미술 정수전'을 마련했다.

15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그림·글씨·도자기·공예품 등 총 105점이 전시되는데 이 가운데 북한 개성 근교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고려 후기 널꾸미개(목관장식)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청동과 나무 조각으로 구성된 널꾸미개는 모두 11점으로 네모난 청동판에 금가루로 청룡과 비천상 호랑이 등을 새겨넣은 '동제금화관장식방형판(銅製金花棺裝飾方形板)' 등 상관장식 9점과 흥송을 깎아 만든 '목각천인비천상(木刻天人飛天像)' 2점이 선보인다.

이밖에 단원 김홍도가 돗자리를 선물받은 답례로 소암스님에게 그려준 '등호선인', 겸재 정선이 소월사의 밤에 매료되어 그렸다는 추숙소월도, 고려시대 제작된 작자미상의 '나한도' 등이 전시된다.

강지연 기자

저희 주식회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신 많은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자 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요.
일년후 만 이천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시고, 심적으로 위안을 주신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투자해 주신 유치금액은 363분 19,000,000원으로 IMF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 IMF초기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건설사 및 설비업체의 연쇄부도로 당사가 입은 피해액 5억원은 이미 변제를 마친상태이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막은상태에서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사발행 어음 가운데 약 3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으로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 이었으며 올 3/4분기까지 매출액도 IMF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1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이고 연간계약으로 이집트에서 $1,250,000어치를 계약하였으며, 남미의 도미니카, 중동의 이스라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약 $500,000 정도의 L/C가 내도 예정이어서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저희들은 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심 노력하여 건실한 불자기업으로 키울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 발전과 불법중흥의 밑거름으로 최선을 다할것을 불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 변제에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이남제외 직원일동

투자자명단(총363명)

(재)신흥원	김공임	김유회	투게권	배경희	신권종	윤인숙	이인갈	임명덕	정희수	최경락
강병주	김광훈	김은분	명길재	배정숙	신희심	윤정인	이인한	임순규	정해수	최기순
강성순	김귀순	김은성	명법사	배종수	실복사	윤정학	이재선	임순류	정해진	최길숙
강순덕	김규천	김은희	무이	배종옥	심성엄	윤혜애	이재숙	임옥빈	정현애	최성숙
강원미	김금홍	김인규	무주상	배원수	심유희	융화선원	이재순	임옥희	제인스님	최성연
강정운	김기중	김인환	문대식	백상현	안락행	이기자	이재영	임완숙	조규동	최순자
강은주	김갑순	김정복	문옥남	백일웅화사	안증순	이경근	이재옥	임무택	조명숙	최영희
강인자	김갑자	김정봉	문유미	백영보	약사사	이경숙	이재옥	임화순	조명숙	최인영
강종구	김덕희	김정숙	민경원	보문사	양기열	이경애	이점심	장경심	조명식	최임자
강중혁	김두경	김정예	민후원	보천사	양승숙	이경자	이정숙	장명민	조선옥	최정숙
고명옥	김봉순	김점옥	박갑윤	북평사	양재심	이경희	이정순	장문지	조연숙	태인사
고순진	김미경	김정호	박건석	서승희	엽화섭	이군지	이정우	장영천	조은경	하병석
곽종국	김미영	김정훈	박동원	서영석	여영주	이기남	이종권	장정태	조은정	한경규
관선스님	김미숙	김주덕	박득채	서윤석	역곡보고	이기칭	이종순	장점해	조인걸	한경호
관음사(포항)	김민옥	김주석	박미혜	서윤석	역곡교교우	이덕기	이승옥	장주희	조정현	한마음선원
관음사혜신	김병곤	김주자	박분두	서준희	연명순	이동훈	이종태	장태영	조지원보사	한영자
구본림	김보희학	김주형	박심권	서태은	염명호	이동희	이종현	전성섭	조호용	해인사학수림
구영미	김봉희	김주성	박순자	석동현	영광도사	이두진	이진구	전승철	주간불교	혜주
구영미	김분남	김주훈	박순자	성정	영명사	이만승	이진우	전이준	지산스님	혜경옥
구영자	김성순	김지숙	박승운	성기훈	영월스님	이명숙	이철은	정강주	지원화	혜덕님
구자원	김성원	김진섭	박시영	성묵스님	영전사한	이복희	이청도	정경순	지은혜	혜상수
권기선	김수경	김청수	박언조	성역수림	오광수	이봉윤	이태원	정계정	지일스님	혜선자
권영순	김수연	김춘연	박영수	성향선	오세진	이분사	이태우	정기영	지현스님	혜종범
권영웅	김숙자	김태윤	박영숙	손경자	오양자	이분아	이현숙	정덕근	지현자	혜국스님
권영하	김순복	김현진	박영원	손순호	오혜숙	이석정	이현호	정동숙	진광스님	홍언희
권재술	김순희	김호성	박임순	송별스님	오혜주	이순문	이혜경	정수정	진남곤	화암사
권희선	김영수	나숙희	박정만	수종	우신지	이순자	이혜정	정원측스님	채봉수	황동환
금성사(부산)	김영순	남규홍	박주명	수능엄사	울산정토	이승원	이희이	정원희	챔피온	황선자
기장사	김영주	내원사서원	박현동	신규갑	원태권	이승철	이호숙	정인섭	천경남	황윤경
김선	김영환	노건성	박현동	신동준	유명숙	이영미	이효순	정인순	천만자	황정복
김김웅	김옥순	노재성	박희철	신성옥	윤점옥	이영숙	인암스님	정일여	천성봉	황창영
김강웅	김옥희	노혜남	방남순	신우현	윤명희	이완규	인윤기	정종문	청룡사	흥륜사
김경자	김원수	노희옥	방동원	신장옥	윤봉임	이원형	임경분	정태호	청호스님	흥원사

참여하실 방법
1. 하기 당사 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2.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응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3. 투자모금액수 5억원
4. 투자한도:1인당 1만원이상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07640-717
예금주:(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 사.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TEL:(02)215-0723/FAX (02)246-8503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TEL:(0561)772-0729/FAX:(0561)772-3923

고승의 눈에 비친 금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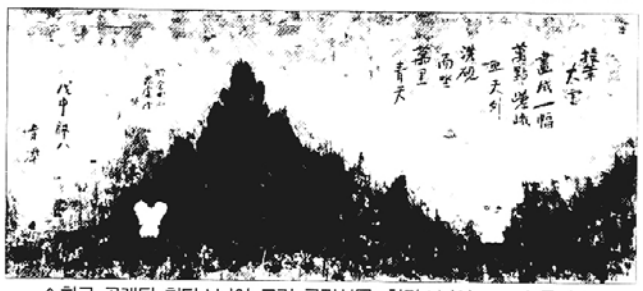
구하스님 1932년 봄·여름 '금강산 관상록'
열반 33주기 맞아 축산문집간행위 펴내
법문·시·게송등 묶어 '축산문집'도 발간

"집선봉 위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고/땅이 넓고 평평하여 걸음 또한 편하도다/골짜기 외진 곳에 승려들의 집을 지으니/그윽하고 한가로워 물소리만 들리누나."

구하스님은 신계사를 이렇게 읊었다. 선미(禪味)를 느끼게 하는 사찰의 모습.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선의 세계요, 일만이천의 봉봉석석(峰峰石石)은 모두가 구하스님에게는 불보살의 모습이다. 물아(物我)를 잊고 금강산과 둘이 아닌 경지를 이루었기에 쓰면 글이 되고 읊으면 시가 되었다.

통도사 축산문집간행위원회(위원장 월파)가 구하스님 열반 33주기를 맞아 〈축산문집〉과 함께 펴낸 구하스님(1872~1965)의 금강산 유람기인 〈금강산 관상록〉은 일만이천봉의 참된 경지를 다 어루만지고 그 아름다움을 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금강산의 선미(禪美)에 흠뻑 빠지게 한다. 최근 일고 있는 금강산 관광에 때맞춰 나와 마음으로 금강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안내서에서는 느끼지 못할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동길씨(우리문화연구원장)가 번역하고 김현준씨(불교신행연구원장)가 윤문했다.


◇구하스님


◇최근 공개된 청담스님이 그린 금강산圖. 청담스님이 1928년 금강산 유점사서 수행시 본 금강산 풍광을 40년이 지난 1968년 그린 그림이다. 청담 종고 이근우 교장이 소장.

이 관상록에는 1932년 4월17일 통도사를 출발해 8월26일 금강산 유람을 마치기까지 둘러본 장안사, 명경대, 표훈사, 만폭등, 보덕굴, 마하연사, 신계사 등 명승지와 사찰 30여곳에 대해 찾아가는 길에서부터 풍경, 이름난 유적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으며, 불심 서린 스님의 감회가 생생히 펼쳐져 있다.

간 곳에서마다 그곳의 운치와 풍광을 읊은 구하스님의 90여편의 시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아야만 금강산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음을 깨우친다. 금강산의 절경과 이곳에서의 심경을 노래한 휴정·유정스님 및 금강산에서 깊은 교유를 맺었던 월봉스님과 퇴계 이황, 김시습 등 명인들의 시 90여편 등도 함께 소개돼 있다.

〈축산문집〉에는 제자들에게 내린 법문과 교육 및 가람수호의 의지를 스스로 다지는 내용의 시,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쓴 시, 안거 해제 때 쓴 게송등 3백20여편의 시가 담겨 있다.

구하스님은 13살때 양산군 내원사로 출가한 후 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세우고 경남 일대에 수많은 포교당을 세워 교육과 불교홍포에 진력했으며 수차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6·25직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다. 한편 구하스님 문집 간행위원회는 11월 21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통도사 방장) 청하(통도사 부방장) 월파(통도사 주지)스님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문집〉과 〈금강산 관상록〉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2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음사
3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4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5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사성	장 승
6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9	불교개론 강의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10	화두 짓는 법	토방편집부	토 방

구입문의:(02)737-0695

태고선맥 복원위한 총론집
대륜불교문화硏 '태고보우국사'



97년 〈태고보우국사 법어집〉과 〈태고보우국사 논총〉을 발간하는 등 95년 발족이래 지금까지 태고선맥 복원에 힘써 온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이 펴낸 〈태고보우국사〉(불교영상회보사 刊)는 보우스님의 모든 것을 망라한 총론집이다.

제1장에는 보우스님과 관련한 학자들의 논문과 보우스님의 유적·유물, 어록, 상당법어 등이 실려 있으며, 2장에는 선시와 게송, 〈고려사〉 등 보우스님에 관한 기록이 실린 각종 자료가 망라돼 있다. 또 보우스님 관련 논저 목록과 연보 등이 부록으로 수록돼 있으며, 보우스님의 출가지 회암사지 등 관련 사적지 및 유적 사진 30점이 컬러로 실려있다. 비매품 (02)733-8087


◇본문 열람 및 단어 검색 예제화면.

'팔만대장경 해제' CD롬 나왔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15권으로 펴낸 〈팔만대장경 해제〉가 〈CD-롬 팔만대장경〉으로 나왔다. 데이터베이스 개발 전문업체 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는 북한 사회과학원과 정식 출판권 계약을 맺어 〈팔만대장경 해제〉를 저본으로 삼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본지 190호 2면 참조〉

〈팔만대장경 해제〉는 2백자 원고지 3만5천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1,538개 경전 모두에 대한 해제를 담고 있다. 누리미디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북한식 용어 및 표기를 남한의 표준어 표기법에 맞게 고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해 이용에 편리하도록 했다.

이 CD롬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원정사'를 검색어로 넣으면 373개의 검색 결과 목록이 나타나며, 정확한 검색을 위해 중간 단어 검색 기능도 가능하다. 또 '대반야'을 검색하면 '대반야바라밀경' '대반야바라밀다경'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연접어 검색과 함께 동국대역경원에서 분류한 팔만대장경 분류번호와 경전의 번역 시기, 역자의 국가, 역자, 저자를 색인화하여 주제별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3,127 항목에 이르는 단어를 쉽게 설명한 '불교용어사전'을 탑재해 본문을 읽는 중에도 해당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기능도 이 CD롬의 장점이다. 이와 함께 북한 전역에 분포해 있는 미공개 불교 유적 슬라이드도 설명과 곁들여 수록했다.

북 사회과학원 간행본

경전 1538종 간추려 소개

미공개 북 불교유적도 수록

〈CD롬 팔만대장경〉 출시로 대장경 및 불교연구자들의 1차 자료 연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불교학 연구의 심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값 2백만원 한명우 기자

해외신간

깨달은 마음



미국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게쉐 남갈 왕첸스님의 〈깨달은 마음(Awakening the Mind: Basic Buddhist Meditation)〉은 티벳불교 계룩파의 고대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경쾌한 용어를 선택, 명상과 부처님 지혜를 설명해 놓고 있는 이 책의 서문에서 왕첸스님은 "깨달음, 수행, 불법 등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사유를 깊게하고 고귀한 영혼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방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isdom 刊. (p.p 263. ISBN 0861711025)

자비-사랑의 기술



미국 메사추세츠선원장 사론 살즈버그의 〈자비-사랑의 기술(Lovingkindness: The Art of Happiness)〉은 명상수행에서 찾는 행복은 바로 유·무정물과 나누는 사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살즈버그는 이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육체·물질적으로 행복한가 △인간·사회적 위험에서 자유로운가 등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의 호흡과 생각을 계속 관찰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각자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hambhala 刊. (p.p 208. ISBN 1570621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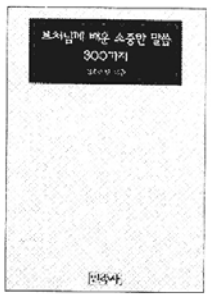
인도불교 비명(碑銘)연구

일본내 인도불교사 연구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쓰카모토 케이쇼(塚本啓祥·등북대학 명예교수)가 40여년간 인도불교를 연구하며 축적해 온 인도불교 비명을 집대성하여 〈인도불교 비명연구〉를 펴냈다.

인도 아대륙(亞大陸) 1백76곳에서 출토된 비명 2천8백28개를 총망라하여 각각의 텍스트를 언급하며 주(註)를 달았다. △비명의 출토지와 역사적 배경 △부파성립에 관한 전승(傳承)과 사실 △비명문자의 형태 △비명의 문법적 특색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락사서점(平樂寺書店) 刊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스님 엮음

인간의 영혼 깨우는 경전-어록 모음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독약이라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를 불행하게 한다면 감로라도 주어서는 안된다.' 〈보행왕정론〉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만큼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정휴스님(경주 기림사 주지)이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 3백가지를 뽑아 엮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에는 인간의 영혼을 깨우치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향기롭게 꽃을 피운다. 살다보면 상처도 받고 절망도 하기 마련. 이때 듣는 부처님 말씀은 그야말로 감로수가 아닐 수 없다. 자기를 비우고 배워서 거듭나게 하는 교훈들이 많다. 〈민족사, 5천원〉

화제의 책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오태수 지음

스쳐지나가기 쉬운 '한국의 미' 소개



옷은 살이 안보일 정도면 된다. 음식은 영양실조가 안 될 정도로만 취하면 된다. 공부는 밤이 새도록 해야 한다. 누더기 차림으로 이름없는 산승이길 고집했던 성철스님.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인각사는 길가 바로 옆에 있었다. 마치 옛날 어느 호족이 살았던 해묵은 고가처럼 보이는 데다가…그냥 스쳐지나가 버리기에 딱 알맞구나 싶었다. KBS PD인 오태수씨가 역사·문화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의 전후 이야기를 담은 책. 성철스님과 인각사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부제는 '잃어버린 한국의 미를 찾아서'. 금동향로, 한옥의 창, 화장과 미인 등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들어있다. 〈인화, 8천8백원〉

화제의 책

한국종교문화사 강의 한국종교연구회 지음

시대별 종교와 역사의 상관관계



'한국종교는 반드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 맞는 영성을 개발하고, 문화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에 종교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국종교사를 아우르며 중요 사건 인물 주제를 불교 유교 기독교 도교 등을 넘나들며 발굴 소개한 이 책은 한국 종교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했다.

한국종교연구회가 시대별 종교상을 전체 사회 구성이나 문화 상황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연구한 이 책에는 고대 건국신화로부터 원효의 화쟁정신, 성리학의 천인합일론,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 종교의 근본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청년사, 2만원〉

화엄학림 제5기 학인 모집 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여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종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신심과 원력이 충만한 스님들이 많이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 교 수 진 : 연관스님, 도법스님, 법성스님, 현응스님
- 교 과 목 : 화엄현담, 화엄경(80화엄), 유식학, 화엄학개론, 화엄사상사, 일승십현문, 망진환원관, 법계관문, 화엄약책, 삼성원융관 등
  ·특강 : 필요할 경우 무시로 강의함
- 응시자격 : 비구로서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이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비구 사미
-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2월 1일~1999년 3월 5일(음력 10월 13일 ~ 1월 18일)
- 전형일시 : 1999년 3월 9일 (음력 1월 22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 1999년 3월 15일 (음력 1월 28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예정)1부
  사진 5매(반명함판)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매
- 문의전화 : 0671)634-3860, 3861 (화엄학림)
  634-3031 (사 무 실)
  634-3757 (주 지 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제5차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 수련 일정표 "3박 4일"(목~일) ●

차수 \ 내용	비 교	모집인원	회비	연령	날 짜
1	학생, 일반	50명	8만원	18세~65세	12월10일~12월13일
2	학생, 일반	50명	8만원	18세~65세	12월17일~12월20일
3	학생, 일반	50명	8만원	18세~65세	12월24일~12월27일
4	용맹정진반, 신년해맞이	50명	15만원	18세~65세	12월31일~98년1월3일
5	학생, 일반	50명	8만원	18세~65세	1월7일~1월10일
6	학생, 일반	50명	8만원	18세~65세	1월14일~1월17일
7	학생, 일반	50명	8만원	18세~65세	1월21일~1월24일
8	학생, 일반	50명	8만원	18세~65세	1월28일~1월31일

1. 수련내용 : 묵언, 부처님 호흡법, 촬구참선 화두법, 수심결강의, 108배, [좁功(선체조), 관음기도(念佛是誰), 행선(금장해수욕장, 용두봉, 적대)]
2. 접수요령 : 이름, 주소, 성별(남·여), 주민등록번호(전화,팩스), 직업, 종교, 수련경험, 희망차수, 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준 비 물 : 등산복 차림, 세면도구
4. 찾아오시는 길
   1)서울→녹동(직통) 강남터미널 호남선 오전 8시, 9시(녹동행)
   2)서울→광주(고속) 녹동(항구) 3)서울→순천(기차) 녹동(항구)
   4)서울→여수(비행기) 녹동(항구) 5)부산→순천(벌교, 녹동)
   ⇒ 금 진 행 (배로 15분)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수련 당일 오후 5시까지 도착)
5. 회비 납부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17 (일선) ■ 농협: 617073-52-068116 (일선)
6. 접 수 처 : 우)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 0666)843-8488 FAX: 842-7307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암** 암주 일선 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회 길잡이~

현 대 불 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조선시대 불전언해 훈민정음 적극수용"

불교어문학회 학술회의

"조선시대 불전언해의 의의는 '우민(愚民)'이 배우고 쓰기에 편하며 쉽게 사용할 만한 '미래지향적 국어표기법'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어문학회(회장 홍신선)는 11월 2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조선시대 불전언해(佛典諺解)에 대한 조명' 제8회 학술회의를 가졌다.

'조선시대 불전언해와 그 불교사적 의의'로 발제에 나선 이봉춘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석보상절(釋譜詳節)〉등 조선시대의 불전언해는 불교계의 정음수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불교의 이같은 적극적인 정음의 수용은 오랜 역사적 요청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김무봉 교수(동국대 국어국문학부)는 '조선시대 불전언해 사업'에서 "16세기 이후의 불전언해 사업도 체계적인 정리를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보다 먼저 15세기 불전언해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성격, 형태서지적 특성,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표기법에서부터 통사론적 구성에 이르는 폭넓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사찰조경硏 '모악산 불갑사의 종합적 고찰'

불갑사 백제 최초 사찰인가

인도 마라난타 창건설 호남불교 사찰형식 파악 복장전적 특성등 밝혀

백제 침류왕 1년(384) 인도의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져 백제불교 초전지로 알려지고 있는 영광 불갑사(佛甲寺).

지난해 명부전, 사천왕상 등에서 전적(典籍)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을 계기로 백제불교의 시발점이 된 불갑사를 집중 조명한 학술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린다. 동국대 학교부설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5일 전남 영광군 한국전력 전력문화회관에서 '모악산(母岳山) 불갑사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기록서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불갑사 창건과 관련, 인도 마라난타 창건설을 뒷받침하고, 과거 대규모 사찰로서 백제불교는 물론 호남지역 사찰형식 파악에 단서가 될 불갑사를 발굴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리배포된 자료 '불갑사의 역사와 인물'에서 이 만 교수(동국대)는 "마라난타가 백제에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곳은 영광군 '법성포(法聖浦)'로, 이 '법성'이란 '불법(佛法)의 성스러운 존자(尊者)'를 가리키는 말"이라며 '불갑사는 마라난타 창건한 백제 최초의 사찰'이라는 학계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정말로 불갑사가 '불사(佛寺)의 으뜸이 되는 곳(佛寺之所宗)으로서 마라난타가 세운 것이 확실한가에는 관련자료가 부족하다"며 "더 정확한 창건시기와 창설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좀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지역 사찰형식연구에 단서가 될 영광 불갑사를 집중조명하는 세미나가 5일 열린다. 사진은 백제불교 초전지로 거론되는 불갑사 대웅전.

'영광 불갑사의 복장전적고(腹藏典籍考)'에서 강순애 교수(한성대)는 "불갑사 복장전적은 기존의 사찰에서 발굴된 성격과는 달리 명부전, 팔상전, 사천왕상 등에서 동시에 발굴된 점이 특징하다"며 "복장불사의 시기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료적 성격이 매우 유사하여 경전류, 선종(禪宗)관계 자료, 예참류 등의 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홍광표 교수(동국대)는 '모악산 불갑사의 배치형식에 관한 연구'에서 "불갑사의 과거 일정 시점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가 현존하지 않는 이상 불갑사 복원은 발굴조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불갑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헌자료와 현재의 배치형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갑사는 지금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었다"며 "백제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찰일 뿐만아니라 호남지역의 사찰형식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불갑사에 대한 발굴조사는 필연적"이라고 강조.

또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불갑사 가람구성과 건축구조'에서 "불갑사의 건축적 특징은 중심형 가람구성과 장포적(裝飽的) 건물구조"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대웅전과 만세루의 장식적 구조는 17~8세기 서남해안 일대 불전의 공통적 특징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며 "불교와 민중문화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된 계층적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갑사의 불교조각상(김길웅·동국대) △불갑사의 회화(정우택·경주대) △불갑사의 공예(최응천·국립중앙박물관) △불갑사의 식생(최상범·동국대/하재호·성균관대) 등이 발표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미륵사상 '21세기 삶' 능동적 제시"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 '금산사와 미륵신앙' 세미나

"의기의 시대마다 희망을 제시하며 그 명맥을 이어온 미륵신앙은 경제위기 및 세기말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우리사회에 현재와 미래를 능동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미륵성지(彌勒聖地)'로 대표되는 금산사(주지 도영)가 오는 99년, 개산 1400주년 맞아 '금산사와 한국의 미륵신앙'을 주제로 11월 28일 1400주년 기념관에서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산사 미륵신앙의 역사적 위치'에서 김영태 교수는 "진표에게로 깨달음의 증표로 두 간자(증과간자·證果簡子)와 〈점찰경(占察經)〉을 준 것은 증명법사(證明法師)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미륵은 미래의 부처님이므로 점찰교법의 증명보살로서 더욱 의의가 있었던 것"고 주장했다.

이어 진철승씨는 '금산사의 미륵불과 민간신앙'에서 "21세기 미륵사상의 전개는 불법의 향기로서 우리의 삶 전반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조선후기 금산사 미륵불이 다양한 도습으로 새세계의 도래를 예시하는 상징적 존재로 역할해 온 것처럼 향후 21세기에 전개될 복잡하고 분화된 대중들의 삶에 새로운 미륵신앙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남윤씨는 '금산사와 진표율사'에서 "진표가 점찰로써 개인의 과보를 점치고 그 결과에 따른 참회 수행을 통하여 추구한 바는 결국 유식불교에 통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곧 중생이 참회와 수행을 통해 성불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인도철학회 연구발표회

4일 외국어대 시청각교육실

인도철학회(회장 정태혁)는 4일 오전10시 한국외국어대 시청각 교육실에서 제9회 인도철학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파탄잘리 요가의 수용(정태혁·동국대) △현양선교론의 품(品) 구조에 대하여(최종남·독일 함부르크대) △삼량(三量) 삼혜(三慧)와 교·철·선 삼학의 방법론적 정초(定礎)(이지수·동국대) 샹카라의 헛됨과 불교의 찰나멸설(이재숙·외국어대) △초기우파니샤드의 명상개념2(김호성·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02)260-3123



고양이 달마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http://www.dharmath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나는 바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완벽한 평상심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동승에게로 벌이 날아온다)

(고양이는 벌을 피해 달아나는 동승을 보며) 고통이 없는 한 말이지….

해설 출가한 수도승은 마음을 극복하고 뜻을 제어하며, 가르침을 닦고 불도를 받들며, 계율을 따라 실천해야 한다. 만약 수도승이 행실을 닦지 않는다면 생사의 허깨비 속에 살면서도 허깨비와 같은 상태를 인식치 못하니, 미혹(迷惑)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상좌부 불교 사이트들

부처님 이야기 **전생담 담은 그림 40점 수록**

상좌부 불교 **불교시론·뉴스등 정보 다양**

남방불교로 알려진 상좌부불교의 장경과 자타카 등 불교예술을 살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찾아가보자.

△부처님 이야기(Tales of Buddha)=부처님 전생담을 표현한 그림을 제공하는 사이트. 태국에서 개설한 이 사이트는 전래되어 온 부처님 전생담을 형상화 한 그림 40여점을 모아 놓고 있다.

태국에 지금까지 전래되어 온 자타카는 총 547개.

이 사이트에서는 종교·예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림을 엄선, '마왕의 유혹을 뿌리치는 부처님' '소연화왕의 전생' '마힌사 왕자의 전생' 등 40여종을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 이야기' 사이트를 개설한 J.알데이(미술비평가)는 "태국의 고대미술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교감을 일으켜 종교적 전통과 도덕적 가치에 헌신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평화적 구도 속에서 마스크를 쓴 듯한 인물이 등장하는 태국의 불교미술은 현란한 기교의 그림과 비교해 거칠고 서툴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인간 본래의 감성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좌부불교(Theravada)=하이테크 기술로 구현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신과 기술문명의 총아를 마음껏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장경 등 굵직한 정보 이외에도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시론, 뉴스, 전자도서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장경에서는 한국불교에서는 낯설지만 아난존자가 경·율·론 삼장을 결집해 만들었다는 상좌부불교 대표 '경전(Anattalakhana)'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중 30여종의 경전에 대해 주석본과 전산본을 각각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담마난다스님의 저술 〈불교신념(Buddhsit Missionary Society)〉에서 일부를 인용해 동시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질문되는 결혼·여성·세계기원·원죄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논문, 에세이 등을 알파벳 순서로 제공하고 있다. 또 태국 불교미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처님의 십엽(十葉)〉〈태국의 전통미술〉 등과 같은 참고문헌도 소개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학 불교(Buddhism)=역시 상좌부불교를 열람할 수 있는 곳.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 관련 용어를 브리테니커, 룽맨 등 영국의 대표적인 인문사전에서 검색·정의해 놓았다. 또 영국의 저명한 불교학자 존 스네링이 저술한 〈불교편람〉에서 대각, 표용력, 불교의 자유탐구, 수행, 수계 등을 요약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미얀마의 고승 텅린 콕스님이 직접 그린 70여종의 부처님 일대기 삽화 등 진귀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처님 이야기 http://www3.asiaonline.net/users/junalday/jatakax.htm
△상좌부불교 http://www.inet.co.th/cyberclub/bow
△불교 http://www.geocities.com/london/towers/3268/

책방 여시아문 고객 사은 특별판매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숫수 재고 도서 할인 판매

금강경승만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법구경사십이장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옥야경, 선생경, 수마제녀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유마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부모은중경, 우란분경, 삼세인과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1,500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시등고덕경 외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보현행원품, 관세음보문품, 범망경보살개본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지장본원경, 약사본원경, 장수멸죄경 경전연구모임/ 불교시대사/ 1,500
통곡하는 사람들 박상종/ 우리출판사/ 2,000
달처럼 자재 하신 부처님 불교설화편찬회/ 우리출판사/ 2,000
진리의 목소리 불교설화편찬회/ 우리출판사/ 2,000
보리수 그늘 아래서 불교설화편찬회/ 우리출판사/ 2,000
가장 귀한 선물 불교설화편찬회/ 우리출판사/ 2,000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벌 불교설화편찬회/ 우리출판사/ 2,000
지혜를 등불로 삼아 불교설화편찬회/ 우리출판사/ 2,000
민중불교 철학 여 익 구/ 민족사/ 2500
마음의 바리때 정 찬 주/ 민족사/ 2500
중화의 지혜 중국민족사상연구회/ 민족사/ 3,000
붓다 마르크스 그리고 하느님 트레버링/ 민족사/ 2500
인도불교 사상사 에드워드콘즈/ 민족사/ 3,000
초기 대승불교의 종교생활 히라가와이키라/ 민족사/ 3,000
인도의선 중국의선 아베초이치 외/ 민족사/ 3,000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놀란룰리니체이좁슨/ 민족사/ 2500
현대불교 소설 선1, 2 정 찬 주/ 민족사/ 각2500
한국종교사 제임스헌틀리그/ 민족사/ 3000
중국불교 상, 하 K.S케네쓰론/ 민족사/ 각3,000
불교철학개론 팡리티엔/ 민족사/ 3,000
종교 심리학 (하) 메리초메도우/ 민족사/ 3,000
법구경 에피소드 정 태 혁/ 민족사/ 2500
인도불교 나라아스아키/ 민족사/ 3,000
인도철학 R룰리간들라/ 민족사/ 3,000
천일불교론-상,하 임 혜 봉/ 민족사/ 각 3,000
중국 중세불교 사상비판 임 제 유/ 민족사/ 2500
그가 있는 어디든 나는 있으리라 석 지 현/ 민족사/ 2500
민중불교의 탐구 법성 외/ 민족사/ 2500
유식의 구조 다케무라마키오/ 민족사/ 2500
천태법화의 사상 다무라시조 외/ 민족사/ 2500
게초심학 인문 김 호 성/ 민족사/ 2500
공자 노자 석가 한자리에 하시다 모라하시테츠리/ 민족사/ 2500
인도불교의 역사 상, 하 히라카와아키라/ 민족사/ 각3,000
현대불교 회곡선 김 홍 우/ 민족사/ 3,000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에드워드콘즈 외/ 민족사/ 3,000
불전해설사전 정 승 석/ 민족사/ 3,000
중국불교의 사상 카마타시게오 외/ 민족사/ 2500
중국불교학 강의 여 익/ 민족사/3,000
현대불교 시선 김 재 홍/ 민족사/ 2500
누구의 연인도 될수 없나이다 석 지 현/ 민족사/ 2500
불교의 서구적 모색 유다유타카/ 민족사/ 2500
제 똥은 제가 누어야지 지묵 외/ 민족사/ 2500
신라 미타 정토사상 연구 불교사학회/ 민족사/ 3,000
한국과의 만남 타무라엔초/ 민족사/ 2500
불교문학 기행 우 봉 규/ 민족사/ 2500
불교의 사회사상 여 익 구/ 민족사/ 2500
바람의 길 석 지 현/ 민족사/ 2500
티베트 불교사 아마구치즈이호/ 민족사/ 3,000
겨레의 스승 최 준 식/ 민족사/ 2500
불교서정 시선 봉 규/ 민족사/ 2500
불교문학 평론 선 박 상 륜/ 민족사/ 민족사/ 2500
인도사상의 역사 정 호 영/ 민족사/ 2500
짚세기불 찬 주/ 민족사/ 2500
선의 사상과 역사 아나기다세이잔/ 민족사/ 2500
의상대사 1, 2 이 종 익/ 민족사/ 각2500
돈오돈수 돈오점수 1, 2 백 금 남/ 민족사/ 2500
불교의 현대적 조명 고수불자연합회/ 민 족 사/ 3,000
서양철학과 선 존스태프너/ 민족사/ 3,000
논어와 선 한토다이가와/ 민족사/ 2500
칼의 어록 백 금 남/ 민족사/ 2500
선정쌍수의 전개 한 보 광/ 민족사/ 2500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민족사/ 2500
밀교의 역사와 문화 오리토미모토히로/ 민족사/ 2500
특의 세상 꿈의 나라 (상) 김 성 동/ 민족사/ 2500
요가의 이론과 실천 이 태 영/ 민족사/ 2500
천수경 이야기 김 호 성/ 민족사/ 2500
인도불교의 인식과 논리 가지야마유이치 외/ 민족사/ 3,000
마하바라타 바 야 사/ 민족사/ 3,000
도교란 무엇인가 사까이다다오/ 3,000
불교와 기독교 재미 있는 퀴즈여행 히로사치야/ 민족사/ 2500
그대는 너무 멀다 히로사치야/ 민족사/ 2500
아비달마의 철학 사쿠라베하지메/ 민족사/ 2500
당신은 바람을 보았습니까 김 유 학/ 효형출판사/ 2500
산천을 닮은 사람들 고은 외/ 효형출판사/ 6,300
나눔 그기쁨 이 용 교/ 불 광/ 4,200
건강장수법 홍 문 화/ 불 광/ 3500
건강을 이야기 합시다 홍 문 화/ 불 광/ 3500

비디오 15% 할인

백일법문 상,하 백련선서간행회/ 장 경 각/ 각 7,000
선문정로 평석 6,000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7,000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
영원한 자유 6,000
자기를바로봅시다 8,000
돈황본 육조단경 6,000
선문정로 4,000
본지풍광 7,000
한국불교의 법맥 5,500

*성철 스님 법어집 1질(11권 ~~₩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15% 할인

붙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 4,500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 재 열/ 4,500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순서 초 펌/ 4,000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호르헤루이스보르헤스/ 5,500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원하스님 외/ 7,000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4,500
그까짓 살좀 있으면 어때 하 림/ 4,500

한 형 조

무문관 방장

74

오조 '너는 누구냐'

* 동산(東山)의 오조법연(五祖法演)이 물었다. "석가와 미륵이 모두 그의 노복이다. 어디, 말해보라. 그는 대체 누구냐."

* 나 혜개가 말한다. "만일 그를 분명히 알아본다면, 가령 네거리에서 아버지와 맞닥뜨린 것같아, 다른 사람에게 긴지 아닌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 송하여 가로되, "남의 좋은 당기지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말며, 남의 흰은 들추지 말고, 남의 일은 간섭하지 말라."

他是阿誰:

東山演師祖曰, 釋迦彌勒, 猶是他奴. 且道, 他是阿誰. 無門曰, 若也見得他分曉, 譬如十字街頭撞見親爺相似, 更不須問別人, 道是與不是. 頌曰, 他弓莫挽, 他馬莫騎, 他非莫辯, 他事莫知.

당말 이후 선의 종풍은 운제에 연원을 둔 양기와 황룡이 이어가게 된다. 오조법연은 양기파의 걸물이다. 그의 제자로 선의 화두를 집약한 '벽암록'의 저자 원오극근이 있다. 두문관의 저자 혜개 또한 이 인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61강 천녀유혼과, 62강 외나무다리, 그리고 65강 쇠꼬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였다. 이번까지 벌써 네번째인 것을 보면, 후기 선에서 그가 점하는 위치와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물음은 간단하다. 여기 한 둥근 원. 석가도 만나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는가(古佛未生前, 凝然一圓相.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그러고 보니 서산대사의 '禪家龜鑑'이 생각났다. 대학시절 법정 스님의 정확한 번역과 자상한 주해로 한 시절 폭 젖었던 그 책. 선의 이념과 방법, 그리고 유의점을 골자만 적은 가위 선의 매뉴얼. 구성은 연역적이다. 구원의 궁극인 그 절대의 모습을 서두의 표제로 삼았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 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不曾滅, 名不得, 相不得).

사찰의 곳곳에서, 혹은 편지나 문집에서 종종 동그런 빈 원이 하나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본다. 스님네들이 그리는 서화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혹은 낙관으로 새겨지고 혹은 아예 법명으로 쓰인다. 원불교는 이 빈 원을 절대의 상징으로 삼고 새로운 불교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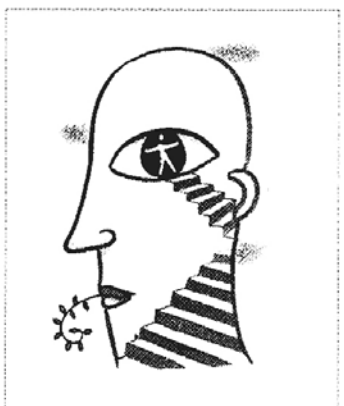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대체 이 동그라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육조 혜능이 물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너희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 물음에 문자속깊은 하택(荷澤)의 신회(神會)가 나섰다. "여러 부처님들의 본원(本源)이자, 신회의 불성(佛性)입니다." 혜능선의 정통성을 지키자고 북종선과 대치하느라 정작 본래의 공부에는 소홀했나 보다. 혜능은 입맛을 다시며 그를 서자(庶子)의 자리에 앉혔다. 나중에 남악(南嶽)의 회양(懷讓)이 찾아오자 육조는 이렇게 물었다. "대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什麼物伊麼來)." 회양은 어쩔줄 모르고 진땀을 흘리다가 육조 앞을 물러났다. 8년 후에 돌아온 그는 당당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물건' 운운 하시면 그거 옳지 않습니다(說似一物卽不中)." 육조는 그를 적자(嫡子)로 인정했다. 그 아래에서 천하를 달리는 천리마 마조(馬祖)가 나온 것은 앞의 강의에서 짚은 대로이다. 나는 늘 '이 물건'이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날 백주대로에서 앞서 가는 여학생의 뒤통수를 두들겨 보기도 했다. 지금도 그게 궁금하기 짝이 없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제까지 아까운 지면을 갉으며 횡설수설한 것도 그 암중모색의 여적(餘滴)이라면 혓바닥을 남겨 주실지. 대체 그는 누구인가. 남의 활은 그만두고 내 활을 잡아 보자. 대체 나는 누구냐. 세익스피어를 빌리자면, "내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밝고 신령스러워 나지도 죽지도 않고 이름·모양 지을 수 없는 '한물건'

누군가가 있다. 그런데 그는 석가와 미륵을 아랫것으로 부리고 있다. 대체 그는 누구인가.

불교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를 만나러 가는 도정이고 방법이다. 그의 이름은 여럿이다. '부처(佛)'라기도 하고, '여래(如來)'라기도 하며, '불성(佛性)'이라기도 하고, '법신(法身)'이라고도 한다. 그뿐인가, '대승(大乘)'이라고도 하고, '일심(一心)'이라기도 하고, 또한 '공(空)'이라고도 한다. 선은 여기에 수많은 리스트를 더했다. 육조의 '본래면목(本來面目)'과 남전의 '평상심(平常心)', 조주의 '무(無)'와 '개', '잣나무' 그리고 '차 한잔', 구지의 '손가락'에 청세의 '술', 서암의 '주인공'과 남전의 '고양이', 운문의 '똥막대기'와 동산의 '삼베 세 근', 덕산의 '몽둥이'와 수산의 '죽비'와 파초의 '지팡이'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체(體)는 하나이지만 상(相)은 여럿인 까닭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지럽거나 번다하지 않다. 원효도 그리 말했다. "무한정 펼친다고 근본을 다치는 것은 아니다〈宗要〉."

그런데 누구도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릴케였지,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라고 읊은 사람이. 공주의 마곡사에서 이런 주련을 보았다. "옛 부처가 태어나기 전에, 동두철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 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의 님이 봄이라면 맛치니의 님은 이탈리아다.

- 한용운 詩 '군말' 中에서 -

길은 다르더라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대상은 모두 님이 될 수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수학자의 님은 수학이 될 것이고 불자의 큰 깨우침은 수학자에게 있어서는 대발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큰 깨우침, 큰 발견의 대상은 내적, 외적이라는 차이는 있을망정 한결같이 자신의 세계를 새로이 열어가는 창조의 작업이며, 한용운 스님의 어법을 빌어 말한다면 '님'을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이다. 따라서 수학자(넓은 뜻에서의 과학자)의 대발견의 길은 마치 불자에 있어서의 대오의 길과도 같을 것이다. 옛부터 과학자들 사이에는 큰 발견의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것이 직관 또는 치밀한 합리적 사고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지에 관한 견해 차이이다. 이처럼 엇갈리는 논의들은 불교계의 돈점(頓漸) 논쟁에서도 볼 수 있다. 불교에 있어서의 돈오(頓悟)는 수행의 단계를 밟지 않고 직관적으로 깨우침을 얻는 것을 말하고 한편 점오(漸悟)는 순서를 밟아 점진적으로 오랜 수행을 겪은 후에 깨우침을 얻는 것을 말한다.

과학상의 대발명이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름으로써 얻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면밀한 논리추구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일까.

왕의 명령으로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아르키메데스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이때 탕 밖으로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아르키메데스는 '물체를 물에 넣으면 그 물체와 같은 부피의 물의 양만큼 가벼워진다'는 유명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인류문명사상 최대의 발명은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정보화혁명 역시 그것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금속활자의 발명은 과학서적의 대량인쇄를 가능케 했으며, 그것이 과학혁명, 기술혁명에 이어지면서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그 연장선상에 전자통신, 정보화 문명이 개화되었다는 것이다. 구텐베르그의 시대에도 이미 누구나 글을 새긴 나무토막에 잉크를 바르고 종이에 누르면 그 글씨가 종이에 그대로 찍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으로 수백 페이지나 되는 성서를 인쇄하는 일은 현실성이 없었다. 또한 동전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글씨가 새겨진 금속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토막을 새기는 일과 동전을 만드는 일. 이 두 가지의 지식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하다. 구텐베르그는 이 답을 엉뚱한 곳에서 얻었다.

어느날 포도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구텐베르그는 붉은 포도주가 통에서 콸콸콸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에서 그는 현상에 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새삼 압착기의 엄청난 힘을 알아차리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동전 또는 도장을 만들기 쉬운 소재가 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활자를 생각해 낸 것이다. 일단 활자만 만들어 내면 간단히 그것들을 배열시켜 종이에 대고 누르면 인쇄가 되는 것이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넘쳐 흐르는 물에서, 구텐베르그는 포도주통에서 흘러 나오는 포도주에서 대발견의 계기를 얻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액체의 흐름이다. 역동적인 액체의 흐름이 무의식의 흐름에 자극을 준 것일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움직이는 대상이 정지상태에 있는 것보다 자극적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요컨대 과학자의 대발견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대상들이 자신의 무의식에 작용하여 연관성을 갖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선의 화두는 이를테면 '물 속에 나르는 새를 잡아라'와 같이 비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화두와 씨름하는 일, 또는 참선에 몰두하는 등 길은 많다. 이들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님과 연관의 고리를 찾는다. 돈, 점, 어느 길을 걸어도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이 한줄기 빛이 창조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일상의 경험서 法을 보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4

우리가 수행하면서 부딪치는 '장애물'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23세기 초 미국에서 명상 붐(boom)을 이끌었던 포티아 넬슨 여사는 그녀의 자서전 각 장에서 반복적인 일상의 경험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장애⑤

제1장 : 나는 거리를 걸어갔다. 깊은 구멍이 있는 길이었다. 나는 그곳에 빠졌다. 나는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은 명백히 내 실수였다.

제2장 : 나는 같은 길을 걸었다. 깊은 구멍이 여전히 있었다. 나는 그 구멍을 보지 못한 채 걸어가다 또 빠졌다. 나는 같은 장소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제3장 :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길에서 깊은 구멍을 보았지만, 나는 또 그 속에 빠졌다. 습관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내 실수를 보았다.

제4장 : 나는 길을 걸었다. 길에는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구멍을 피해 돌아서 걸어갔다.

제5장 : 나는 다른 길로 가려고 노력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지만, 과정에서 범하는 실수는 피할 수 없다. 인생이 그렇고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과정에서 겪는 탐욕·불신 등 장애물 깨달음의 밑거름 삼자

만약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무쌍한 경계들이 모두 다 같은 것임을 알게 될 때, 오직 법(法)만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일단 이 흐름에 발을 들여놓아 해탈의 맛을 보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악행을 짓고 삿된 견해를 내는 경지를 넘어서게 된다. 마음은 길을 바꾸어 성자의 길로 가는 흐름에 들어갔으므로 다시는 고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는가? 마음은 이미 악업을 끊어버린 것을.

2세기 무렵 알렉산드리아에는 에바그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명상수행을 위해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으로 떠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낸 안락한 시간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수행자들의 좌절은 더욱 깊어졌다. 에바그리우스는 이것은 '마음의 악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일동안 고민한 후 "나는 욕망, 좌절, 분노를 극복하였는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훌륭한 명상가인가?" 등을 항상 질문하도록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물론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명상'이란것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수행의 장애물 욕망, 분노, 불안, 잠, 게으름, 불신 등이 있다. 에바그리우스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람을 관찰하면 모두가 무상하고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간의 지혜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의심과 권태로움이 다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실재를 모르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징후가 아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겪어야할 과정의 일부분이며, 우리의 가슴이고 마음인 것이다.

불교의 전통에는 수행의 장애물을 다스리기 위한 수많은 종류의 전략이 있다. 이중에서 '독이 있는 나무'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수행자는 '나무를 잘라'서 죽이거나 '나무 근처에 앉아 잎과 열매를 먹지 마시오'라고 경고한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독이 있는 나무야. 일전에 본적이 있지. 이 나무의 열매는 탐욕, 욕망, 두려움, 분노, 불신 등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명약이지." 과연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는가.

"마음의 장애물들은 온전한 깨달음과 보살의 비료"라고 말했던 티벳의 고승 조암 트렁파 린포체의 가르침이 소중해지는 순간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3

불교와 수학 ⑦⑧ 대오와 대발견

김 용 운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만들듯 수행자도 과학자도 전심전력하면 창조의 문 열려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일까.

왕의 명령으로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아르키메데스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이때 탕 밖으로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아르키메데스는 '물체를 물에 넣으면 그 물체와 같은 부피의 물의 양만큼 가벼워진다'는 유명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인류문명사상 최대의 발명은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정보화혁명 역시 그것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금속활자의 발명은 과학서적의 대량인쇄를 가능케 했으며, 그것이 과학혁명, 기술혁명에 이어지면서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그 연장선상에 전자통신, 정보화 문명이 개화되었다는 것이다. 구텐베르그의 시대에도 이미 누구나 글을 새긴 나무토막에 잉크를 바르고 종이에 누르면 그 글씨가 종이에 그대로 찍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으로 수백 페이지나 되는 성서를 인쇄하는 일은 현실성이 없었다. 또한 동전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글씨가 새겨진 금속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토막을 새기는 일과 동전을 만드는 일. 이 두 가지의 지식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하다. 구텐베르그는 이 답을 엉뚱한 곳에서 얻었다.

어느날 포도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구텐베르그는 붉은 포도주가 통에서 콸콸콸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에서 그는 현상에 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새삼 압착기의 엄청난 힘을 알아차리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동전 또는 도장을 만들기 쉬운 소재가 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활자를 생각해 낸 것이다. 일단 활자만 만들어 내면 간단히 그것들을 배열시켜 종이에 대고 누르면 인쇄가 되는 것이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넘쳐 흐르는 물에서, 구텐베르그는 포도주통에서 흘러 나오는 포도주에서 대발견의 계기를 얻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액체의 흐름이다. 역동적인 액체의 흐름이 무의식의 흐름에 자극을 준 것일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움직이는 대상이 정지상태에 있는 것보다 자극적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요컨대 과학자의 대발견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대상들이 자신의 무의식에 작용하여 연관성을 갖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선의 화두는 이를테면 '물 속에 나르는 새를 잡아라'와 같이 비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화두와 씨름하는 일, 또는 참선에 몰두하는 등 길은 많다. 이들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님과 연관의 고리를 찾는다. 돈, 점, 어느 길을 걸어도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이 한줄기 빛이 창조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문학-영화-음악-사진-도자경판-미술-연극-오페레타…

국보 제32호이며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예술로 꽃피워 우리곁으로



◇사진작가 백종하씨가 찍은 '팔만대장경'. 5월~11월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사진전을 가진 백씨는 작품집도 낼 예정이다.



◇1978년 한진흥업에 의해 제작된 영화 '호국 팔만대장경'의 한 장면.



◇조각가 윤영석씨의 설치미술 '팔만대장경'. 악보로 치환시켜 경전을 마음으로 듣도록 했다.



◇남북통일을 발원하며 통도사 서운암 성파스님이 지난 9년부터 10년에 걸쳐 조성하고 있는 도자 팔만대장경. 2000년 완성된다.

"…
그러다가 원목으로 건너와
진주 분사도감의 뜻대로
서해 남해 바닷물에 담그어
3년을 자긋이 우려냈다
그것을 판으로 만들어서
다시 소금물에 삶아냈다
그놈에 쭉 말려서야 비로소 원판이 피어나왔다
수백 서원(書員)들의 관화본을 붙여
수백 각수들이 한 지 한 자 똑같은 필체로
돋을새김이 되어간다
뒷날 김정희 가로되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글이로다 하였다
그 구양순체의 한결같은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먼 파도소리였다가
파도소리 사이로
어쩌다가는 숲속 바람소리도 있었다 …"
-고은 詩 '고려대장경관' 중에서-

소설 시 영화 음악 사진 도자 미술 연극 오페레타 …

하나의 소재가 이렇게 예술의 각 장르로 호평받은 예가 일찍이 있었을까. 시와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사진으로 친근하게 다가온 팔만대장경이 폭을 넓혀 도자와 연극, 오페레타로도 제작되고 있어 대중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게 됐다.

국보 제32호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유산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살아있는 민족의 숨결이며 나날이 새롭게 꽃피우는 붉빛의 나무이다. 그 나무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무한한 생명수를 주고 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집대성한 호법(護法) 호국(護國) 호민(護民)의 상징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국민이 평안해지고 국난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해 준다는 그 관각 동기 때문일까.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로 고통받은 올해 팔만대장경이 유난히 예술의 소재로 각광받았다. 지난 5월 김수철씨가 작곡한 음악이 발표됐고 소설이 2권 나왔으며 영화가 제작중에 있다. 사진전이 열렸고 세계 순회공연을 위한 오페레타까지 기획중이다. 또 16만8천 여장의 도자(陶磁)로 된 팔만대장경이 구어지고 있으며 연출가 이윤택씨는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극본을 써 놓고 이를 연극으로 상영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예술가들의 마음을 흔들고 영감을 자극시켜 예술작품을 낳게 하는 팔만대장경의 가늠하기 힘든 그 신묘한 매력. 재창조되어 새롭게 다가온 팔만대장경의 예술작업들을 알아본다.

소설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소설을 처음 쓴 작가는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씨다. 그는 1976년 첫 장편소설로 〈소설 대장경〉을 썼고 이것은 1991년 민족과 문학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또하나는 올 2월 나와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오른 김진명씨의 〈하늘이여 땅이여〉(전 2권)이다. 최근에는 소설가 유익서씨가 소설 〈스님〉(자유포럼 刊)을 펴냈다.

조정래씨의 〈소설 대장경〉은 외침을 받아 임금마저 강화도로 피난을 간 막다른 상황속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규모의 불경 판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며 관각불사의 주체를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에서, 따라서 역사진행의 주체적인 동인(動因)을 민중에서 찾고 있다.

60만권 이상이 팔린 〈하늘이여 땅이여〉에서 팔만대장경은 '고조선 이후 가장 큰 역사가 이뤄졌던 기(氣)의 결정체'로 나온다. 책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없는, 민족사적으로 크게 뭉쳤던 부형의 기가 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것. 이 힘은 대장경을 만들었던 온 민족의 염원이며 부처님의 법력으로, 수많은 수탈과 침략으로부터 대장경을 수호해 온 힘이면서 우리 민족을 수호해 왔다고 소개한다. 팔만대장경은 소설구성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스님〉은 임진왜란때부터 팔만대장경에 눈독을 들인 일본이 일제식민지하에서 팔만대장경을 일본으로 유출하려 획책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픽션화한 소설. 곰팡내나는 유물을 팔아서라도 피폐해진 불교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지스님의 현실론과 어떠한 수난이 있더라도 민족의 보물만은 굿굿이 지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큰스님과의 갈등이 펼쳐진다. 큰스님의 시자 무염스님의 소신공양으로 유출음모는 제지되고 마침내 해인사 대중스님들의 단합된 굵기로 대장경을 지키게 된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대장경을 주제로 다룬 소설들.

영화 가장 대중적인 예술장르인 영화가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놓아둘 리가 없다. 1978년 한진흥업(대표 한갑진)에 의해 영화 〈호국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장일호감독의 〈호국 팔만대장경〉은 몽고군에 의해 부인사의 대장경이 불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때 홍제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대장경 불사를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김진규 박암 독고성 주선태 최남현 김희라 등의 배우가 나온다.

곧 크랭크인에 들어갈 영화 '팔만대장경'은 프로덕션 세양이 제작하고 유승현씨가 각본과 감독을 맡았다. 총 제작비 50여억원 규모의 이 영화는 역시 팔공산 부인사 장경이 불에 타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자승 다루와 행자승 미루가 주인공으로, 몽고군의 침입으로 국난의 위기에서 대장경 판각이라는 위업을 완성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하나되어 국난을 극복한다는 내용이다. 고난속에서 참문화는 형성된다는 메시지를 주어 IMF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자 기획됐다.

음악 가수이자 작곡가인 김수철씨는 2년여의 구상끝에 국악과 록레식 그리고 신서사이저가 어우러진 크로스오버기법으로 장중하면서도 서사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지난 5월 첫 발매된 '팔만대장경 1집' CD는 한달도 안돼 1만매가 수식간에 나가는, 국악음반으로서는 이례적인 진기록을 세웠다. 김수철씨가 시리즈로 낼 4집가운데 첫번째로 나온 1집은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역사적 의미를 우리 악기인 태평소 아쟁 피리 북과 교회음악의 기본 악기인 합시코드, 중국악기 얼후, 오케스트라와 신서사이저 등으로 상징화했다. 김수철씨는 현재 청소년 정서에 맞는 레게, 록, 퓨전 등 강렬하고 다양한 리듬을 드입한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제 2집을 구상중에 있다.

대장경과 인연있는 예술인



오페레타 올해 '장보고'로 세계순회공연을 가진 국단 현대극장이 내년에는 '팔만대장경'을 오페레타로 꾸며 순회공연을 갖는다. 현재 김의경에(시립극단장)가 극본을 집필중이며 내년 1월까지 완성해 우리나라의 유명 작곡가와 외국의 작곡가에게 곡을 맡겨 내년 가을부터 세계순회공연에 나선다는 것. 김의경씨는 고려여성의 강인하고도 깊은 희생정신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극을 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프라노 조수미씨에게 주역 발기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의경씨는 "침략을 했던 몽고는 현재 미미해졌고 여러번 수난당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든 그 저력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 저력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정신 탐구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도자경판 9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도자(陶磁) 팔만대장경을 굽고 있는 통도사 서운암 성파스님. 두께 1.2cm 가로 49.7cm 세로 25.7cm의 총 16만8천6백80장이 될 도자 팔만대장경은 현재 80%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2000년 회향 예정이다. 도자 팔만대장경은 섭도기 강한 하동지방의 흙을 반죽, 초벌구이를 거쳐 도판에 대장경 영인본을 실크스크린기법으로 새기고 유약을 발라 다시 재벌구이 하는 방법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성파스님은 "고려시대 하나된 불심과 민족혼으로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처럼 조국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아 발원했다"고 말한다.

연극 문화계일라로 불리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이윤택씨. 무대에 올리는 작품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지난 10월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으로 서울국제연극제 연출상을 거머쥔 그가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극본을 써 놓고 이를 무대에 올릴 기회를 찾고 있다. 극의 내용은 팔만대장경이 어떠한 이유로 얼마만큼 고생해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만들던 당시의 주역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기대사와 권력자 최항(최우의 아들), 가공인물인 길상이 그 주인공. 이들은 스님이거나 스님이었거나 스님이 된다 는 공통점을 지녔다. 국가적인 혼란기에 권력지향적인 행정가와 민중을 위한 보살행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갈등이 주 내용이다. 이윤택씨는 이 극본을 무대에 올리게 되면 고려시대 성행했던 팔관회 연등회의 모습도 재현할 계획.

사진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석굴암 사진집은 나와있는 데 반해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팔만대장경은 아직 없어 아쉽습니다. 한 3~4년 사진을 더 찍어 팔만대장경 사진집을 내고자 합니다."

사진작가 백종하씨는 5월 2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여섯달동안 해인사 구광루에서 '고려팔만대장경' 사진전을 가졌다. 3년 넘게 해인사에 머물며 관전과 대장경을 포커스에 담아온 백종하씨는 아침 저녁, 때에 따른 빛과 그림자로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경관의 모습과 관전의 창살 등을 신비롭게 표현해 전시내내 호평을 받았다.

미술 조각가 윤영석씨는 팔만대장경을 악보로 치환시켰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악보가 그려지고 이를 말해집게로 나란히 꽂아놓은 설치미술이다. 관객들은 과연 무슨 소리를 들을까.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우리 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에 보여진 '팔만대장경 읽기'이다. 이 전시회에서 전광영씨는 한지에 수공작업으로, 최진욱씨는 한 아이가 풀이 많이 자란 수다대장 앞을 지나가는 서양화를 통해 진리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선재동자를 표현했다. 이 그림에서 풀은 팔만대장경의 무수한 글자들을 상징하고 있다.



◇김수철씨 작곡의 '팔만대장경 I' CD.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25)
(佛言)愛欲之人 猶如執炬 逆風而行
(불언)애욕지인 유여집거 역풍이행
必有燒手之患
필유소수지환

'애욕에 빠진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 반드시 손을 데일 화가 있다.'

(26)
天神獻玉女於佛 欲壞佛意
천신헌옥녀어불 욕괴불의
佛言 革囊衆穢 爾來何爲去 吾不用
불언 혁낭중예 이래하위거 오불용
天神愈敬因問道意 佛爲解說 卽得須
천신유경인문도의 불위해설 즉득수
陀洹果
다원과

천신이 옥녀를 부처님께 보내 부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죽 주머니 속에 온갖 오물뿐인데 너는 무엇하러 왔느냐? 물러가라. 내겐 쓸모가 없노라!' 천신은 더욱 존경하게 되어 도에 대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심에 천신은 곧 수다원과를 얻었다.

"그대의 뜻은 가히 믿을게 못된다 아라한이 되었다면 믿어도 좋다"

(27)
(佛言)夫爲道者 猶木在水 尋流而行
(불언)부위도자 유목재수 심류이행
不觸兩岸
불촉양안
不爲人取 不爲鬼神所遮 不爲洄流所
불위인취 불위귀신소차 불위회류소
住 亦不腐敗
주 역불부패
吾保此木決定入海
오보차목결정입해
學道之人 不爲情欲所惑 不爲衆邪所
학도지인 불위정욕소혹 불위중사소
嬈精進無爲
요 정진무위
吾保此人必得道矣
오보차인필득도의

'무릇 도라는 것은 마치 물에 뜬 나무와 같다. 그 나무가 흐름을 따라서 기슭에 닿지 않고, 사람들이 건져내지 않고, 귀신들이 가로 막지 않고, 소용돌이에 머물지 않고, 썩지 않으면 반드시 바다에 이름을 보장할 수 있듯이, 도를 배우는 이가 정욕에 유혹되지 않고 사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고 정진하되 함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라고 내가 보장할 수 있다.'

(28)
(佛言)愼勿信汝意 汝意不可信
(불언)신물신여의 여의불가신
愼勿與色會 色會卽禍生
신물여색회 색회즉화생
得阿羅漢已 乃可信汝意
득아라한이 내가신여의

'그대의 뜻을 믿으려 하지말라. 그대의 뜻은 가히 믿을게 못된다.
삼가 색과 어울리려 하지말라. 색을 가까이 하면 화가 닥친다.
이미 아라한이 되었다면 그대의 뜻을 믿어도 좋다.'

(29)
(佛言)愼勿親女色 亦莫共言語
(불언)신물시여색 역막공언어
若與語者 正心思念 我爲沙門 處于濁世
약여어자 정심사념 아위사문 처우탁세
當如蓮花 不爲泥汙
당여연화 불위니한
想其老者如母 長者如姊 少者如妹 稚
상기노자여모 장자여자 소자여매 치
者如子
자여자
生度脫心 息滅惡念
생도탈심 식멸악념

'여색을 보지말고 또 함께 말을 나누는걸 삼가라. 만약 말을 하게되면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문이 되어 혼탁한 세상에 처해서도 마땅히 저 연꽃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으리라' 해야 한다.
그 여인이 늙었거든 어머니 같이, 손위 어른이거든 누님같이, 손아래거든 여동생 같이, 어린애거든 자식같이 생각해서 제도할 마음을 갖는다면 나쁜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30)
(佛言)夫爲道者 如被乾草 火來須避
(불언)부위도자 여피건초 화래수피
道人見欲 必當遠之
도인견욕 필당원지

'무릇 도라는 것은 저 마른 풀과 같다. 모름지기 불을 피해야 하듯이 도인도 제 마음자리에서 욕심이 이는것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향 가까이 하면 항내나듯

벽응스님 〈태고종 승정〉



- 약력
  - 1909년 경기 파주 生
  - 1925년 화장사에서 운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27년 화장사 강원 수료
  - 1928년 화장사 수선안거 이래 5하안거 성만
  - 1929년 화장사에서 청하스님으로부터 범음범패 및 호적 상주권공 수학
  - 1930년 화장사에서 보성스님으로부터 범음범패 수학
  -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 1975년 태고종 종사법계 품수
  - 1998년 태고종 승정 추대
  - 現 김포 문수사에 주석

내 나이 6살 때였어요. 장마로 인해 한해 농사가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님 친구분이 인근 미타암에서 부목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정의 어려움을 듣더니 화장사 부목으로 가게 됐는데 대신 미타암 부목을 살지 않겠느냐며 아버님께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 길로 아버님은 어린 나를 데리고 미타암 부목생활을 시작하셨지요.

이 때부터 불연(佛緣)을 맺기 시작한 것이지요. 절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 예불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장엄해 조석으로 예불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암송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도 지금까지도 생생한 것을 보면 내가 출가의 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며칠 미타암에서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왔는데도 스님들의 예불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구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버릇이 생겼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예불시간만 되면 화장사 법당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저희 집 인근에 있는 화장사는 유난히 재(齋)가 많은 절이었습니다. 한번 재를 지내면 며칠씩 이어졌는데 그 때마다 친구들과 밤을 새워 구경했습니다. 재 지낼 때의 상주권공(常住勸供)은 그 당시 귀동냥해서 배운 것입니다. 화장사에서 재를 자주 지내다보니 우리들의 놀이도 자연스럽게 재를 지내는 모습을 흉내내는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둘로 부처님을 모시고 나는 냄비뚜껑을 들고 바라춤을 추는 소꿉장난을 하곤 했지요.

나의 예만 보아도 어릴 때부터 불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불교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불교와 친근하게 맞닥뜨릴 수 있도록 주위에서 신경써 주어야 합니다. 불교말에 훈습(薰習)이라고 있지요. 예를들어 향과 가까이 하면 향내가 스며들어 향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훈습에 의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은연중에 불교적인 훈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올바른 훈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까운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기독교인이 되기 쉽고, 사찰이 가까운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불자가 되기 쉽지요.

출가한 후에도 스님들에게 범패를 배울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귀동냥한 것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범패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3살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사 운월스님이 모든 장례준비를 해주셔서 원만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님 장례가 끝난뒤 어머님이 '저에게는 아들이 3형제가 있으니 막내 아들을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운월스님께 부탁한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됐습니다. 출가를 하게된 결정적인 동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사에 갑자기 재가 들어왔어요. 큰 재든 작은 재든 일단 재가 들어오면 법구를 쳐야 하는데 마침 법구를 다룰 줄 아는 스님이 그때 한명도 없었어요. 20여명의 스님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른 사찰로 재를 지내러 갔기 때문이지요. 내가 냄비뚜껑을 들고 바라춤을 추는 것을 멀리서 보아왔던 화장사 스님들은 나를 절로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법구를 치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출가를 권했던 터였고 나도 범패에 대한 동경심이 각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범패는 믿음을 극대화하는 의식 재물 탐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몸으로 신업 · 입으로 음성공양을

처음 법구치는 것을 보고 은사스님께서는 "야 이놈 제법인데. 잘 가르치면 제법 하겠어"라며 범패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마침 화장사에는 범패승으로 널리 알려진 청하스님과 보성스님이 있어 범패를 배우게 됐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지화(紙花)를 잘 만드는 분이었기에 틈틈히 지화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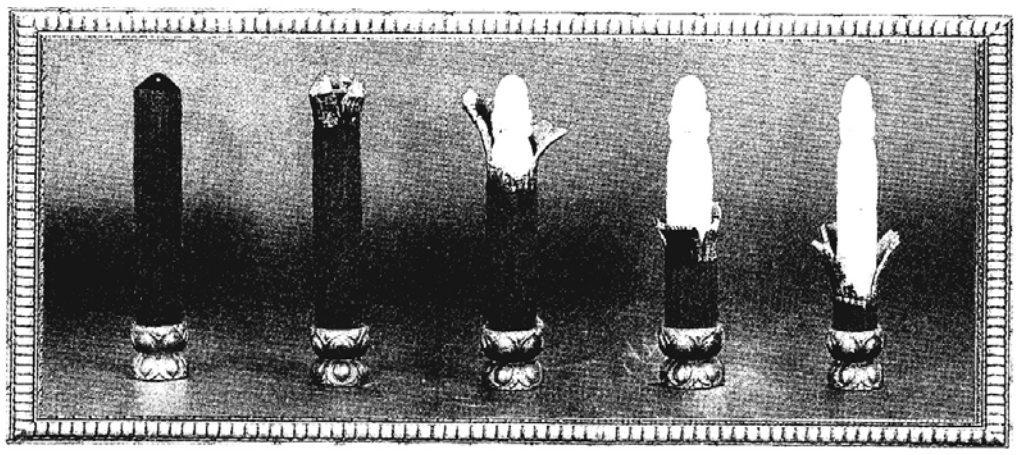
은사스님께서는 항상 "범패는 소리를 잘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부처님을 공양하는 신앙심이 바탕이 돼야 하고 모든 작법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일러 주셨어요. 소리만 잘 하는 것은 남을 흉내내는 앵무새나 다름없다는 것이지요. 소리만 잘 하는 것은 진정한 범승(梵僧)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심으로 수행해 범패의 삼매경에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즉 불교의식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패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선방 수좌들이 든 화두처럼 생각하고 그 속에 모든 것은 담아 토해낼 줄 알아야 옳은 범승이 된다고 강조하셨지요. 이를 위해서는 범패를 배울 때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삿된 망상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발심이 지극해야 큰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것처럼 범패도 배울 때의 마음과 자세가 올곧아야 완벽한 범패 시연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나도 후학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당시 범패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보성스님 문하에서 공부하게 됐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구전(口傳)으로, 귀동냥으로 배웠던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수자를 찾아다니며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성스님은 범패 72가지를 전부 시연할 수 있는 세분의 스님중 한

■ 의장등록 : 98-19350
■ 상표등록 : 98-28434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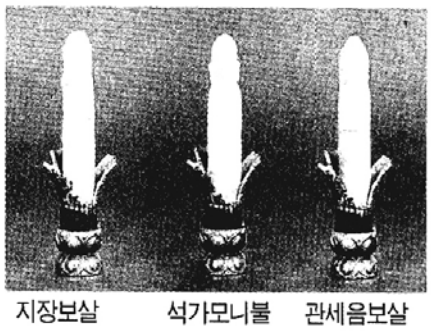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향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깨끗한 제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 · 경기/대전 · 충청남북/ 광주 · 전라남북/
부산 · 경남/대구 · 경북/강릉 · 강원/제주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권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권

큰스님 수행한담

훈습교육이 중요해요”



◇단오날 신촌 봉원사에서는 영산재 정기시연회가 열린다. 영산재에 참여한 인간문화재 벽응, 송암, 일응 스님(왼쪽부터).

자기할일 게으름 피지 말고 몸과 마음다해 일심으로 하면 그것이 올바른 정진입니다

“범패도 참선처럼 깨달음 얻는 수행 화두들듯 구절 구절 참구후 토해내야”

분이셨습니다. 스님의 지도로 인해 40가지의 범패를 큰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범패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나라 범패의 맥을 잇는 만큼 이왕 배우려고 입문했다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끈질기게 배워야 한다. 잘못 배우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고유한 범패가 왜곡된다’며 범패의 중요성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은사스님은 범패에만 치우치면 안된다며 강원공부도 선방공부도 게을리하지 말고 두루두루 해야 한다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사 강원에서 교학을 공부하고 5하안거도 마쳤지요. 이 공부는 교학체계를 바로 세우고 신앙심을 곧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인간문화재이신 송암스님과 함께 재를 지내려 동행한 적인 많습니다. 내가 호적을 붙 줄 알았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아 절친한 사이였어요. 한번은 송암스님하고 재를 지내고 나서 “한군데서 범패 전 과정을 다해 볼 수 없으니 재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차례 차례 돌아가며 전 과정을 시연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원력을 세우고 각 사찰을 다니며 범패를 시연했습니다. 사찰이 곧 범패 수행의 장이었던 셈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0여년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다 배운다는 범패의 전 과정을 시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후학들에게도 범패를 전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 범패를 전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969년 봉원사에서 옥천범음회(玉泉梵音會)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후학지도에 들어갔습니다. 옥천범음회는 804년 중국에서 범패를 배워 옥천사(現 쌍계사)를 개산하고 어산(魚山)을 가르쳤다는 진감선사의 뜻을 받들자는 취지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옥천범음회는 대륜스님을 총재로 모시고 송암스님은 상강을, 내가 중강을, 운공스님은 말강을 맡아 40여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각배(各拜·대례왕공)를 가르쳤습니다. 각배는 시왕전에 하는 재입니다. 옛날에는 밤에 많이 재를 지냈는데 밤에 하는 것을 각배나 영산재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영산재만 주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영산재뿐만 아니라 각배도 불교의 전통 맥을 잇는 차원에서 배워둬야 하는데 배우려는 스님들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전수자들 가운데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한만영교수였습니다. 한교수는 50여일 동안 스님들과 범패를 같이 배우면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스님들이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악보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만영교수는 영산재가 무형문화재에 등록될 가치가 있다며 지정을 받도록 많이 도와주었지요. 해방이후 불교의 권공의식이 점차 쇠퇴하여 갔지만 영남, 호남 경기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범음이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을 받게 되었지요. 현재는 불교의식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많은 스님들이 범패를 배워 맥을 잇고 있어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범패는 신앙심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기능 역시 신앙심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촉원하기 위하여 몸으로는 작법을 통한 신업공양을, 입으로는 소리로써 음성공양을 올리고, 이를 통해 산란한 마음을 잠재우며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즉 범패는 사물과 함께 어우러져 작법과 청각·시각적인 것을 통해 의식을 보다 장엄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교리수행의 방법으로써 신심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범패를 하는 스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예식을 하든지 몸과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권공할 때 이리저리 돌아다보며 하는 스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오로지 부처님을 올려다 보며 일심으로 해야 합니다. 몸뚱이는 법당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되는 일도 안되는 법입니다. 이같은 이치는 불교의식 뿐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곳하는데 다른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쯤 자신을 반조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자신을 더 넓고 높은 세상을 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패를 하는 스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간혹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스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함정은 무엇이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법입니다. 보시가 많이 나오는 재는 정성들여 오래하고, 보시가 적게 나오는 재는 건성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면 안되지요. 오로지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을 청정하고 진실되게 갖고, 경건하게 일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도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뛰어넘을 때 모든 것이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패는 구음과 구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배음의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꾸준히 배우는 이도 줄고 있는 가운데 재물에 눈이 어두운 이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불교음악의 맥을 끊는 것입니다. 불교음악의 전수라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재발심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제방의 스님들에게 한가지 조언을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정근 목탁치는 법과 마음자세입니다.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정근 목탁을 치는데 4박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4박자로 하는게 아닙니다. 본래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정근 한번씩 할 때마다 절을 한번씩 해야 합니다. 목탁을 치고 있으니 큰 절은 못하지만 목례나 마음으로라도 반드시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지라도 목탁치는 스님이 4박자로 목탁을 쳐 절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예전에 어른스님들을 보면 정근을 하면서 목례로 절을 하거든요. 이는 2박자로 목탁을 치기 때문입니다. 2박자로 하면 목탁을 빨리 쳐도 방정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박자로 빨리 치면 불안정해 신성함도 예의도 없어 보입니다.

또 4박자로 늘어지게 목탁을 치면 잡념이 들기 십상입니다. 정근목탁은 2박자로 쳐야 합니다. 2박자는 절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잡념이 없어져 정진하기에 알맞습니다. 제방의 스님들은 이 점을 고려해 정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91세가 됩니다. 그동안 여기 저기 절에서 범패한 것이 셀 수가 없을 정도지요. 80여년 범패 하러 다니며 느낀 것은 범패도 참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깨닫겠다는 절실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예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인 것입니다. 구도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진리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용청 〈유한킴벌리 성남 물류센터장〉

법명 ‘如海’ 받은후 새로 태어난듯 마음의 평화와 바른 인생위해 정진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나도 또한 그러하다.

사람들이 묻기전에 나는 먼저 내 종교가 불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교교리를 배움으로써 모든 것이 자력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고 얻어진다는 부처님의 높은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불교는 나에게 있어 그 어떠한 가치로도 등급을 매길수 없는 귀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보석의 빛을 발견해 나가면서, 어느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곤 스스로 놀란적도 많았다.

우리가 겪는 생활의 방향을 안내해 줄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물질문명이 충족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모든 것이 진실한 자신에 눈을 뜰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내가 뒤늦게나마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은 것은 3년전의 일이다. 부산지역 근무 발령을 받고 가족과 떨어져 객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게 되었고, 그 적적함이란 말로 다할 수 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바로 불교교리 입문을 알리는 신문광고 였다.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수한 부산불교교육원의 첫 개강일이 2월 8일, 부처님 출가일과 같다는 우연의 일치도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었다. 한번도 제대로 해 본적이 없던 절을, 저녁예불의식에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칠정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내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숨어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조금씩 몸이 목탁소리에 익숙해 지면서 환희심이 일기 시작했다. 유명한 무용가가 음악에 맞춰 자유자재로 리듬을 타듯이, 나의 마음과 몸이 모두 불교의 의식과 하나가 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하나씩 배우게된 기쁨이란.

김해 은하사 대성스님이 지어준 여해(如海)라는 법명과 수계식을 받고 2개월 뒤 서울 근교 성남으로 발령받아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법명을 받음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느낌이었다. 수계식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리라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이러한 변화에 가족들도 놀라는 눈치였다.

그동안 종교자체에 무심하던 나였으니 놀랄만도 했다. 아무튼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나의 불심이 줄어들 순 없었다. 일단 원찰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성남불교 신도회장인 임선교법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95년 성남 불교산악회가 설립되면서 산악회에도 가입했다. ‘내친김에 더 배워보자’는 욕심도 생겼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반이었다. 동산반야회 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고 곧바로 동산 불교대학 2년과정에 입학을 했다. 직장일을 하면서 50대 뒤늦은 나이에 불교공부라니 집사람 역시 의아해 하며 머리깎고 절에 들어갈 거냐며 은근한 압력(?)을 가하곤 했다.

‘과연 내가 무얼 바라고 있는 걸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고민들이 끊이질 않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많은 주위의 유혹과 안락을 버리고 부처님처럼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깨달음을 구할 만한 용기와 지혜가 내겐 없는 것 같았다. 그저 작은 마음의 평화와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자 시작한 공부였다. 그러나 예전의 아무것도 모르던 나로 돌아가기엔 내가 얻은 불도의 가르침이 너무나 컸다. 〈계속〉

자동이체를 신청합시다!!

구/독/료

편리하게 납부합시다

1. 구독료 자동이체 안내

매월 구독료를 지로로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구독자의 통장에서 신문사의 같은 은행 통장계좌로 구독료가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 1번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매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 같은 은행에서 통장계좌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없고,

2. 자동이체 신청 방법/ 준비물

구독자의 ①예금통장 ②통장인감 ③신분증 ④구독자 통장과 같은 은행의 신문사의 통장계좌 번호를 준비 하시여 은행에서 직접방문하여 신청.

3. 자동이체 신청자 사은품

구독자 여러분의 자동계좌이체에 적극적인 참여에 보답하고자
98년 12월말까지 참여하신 분들께 **사은품**으로 **대나무 찻잔**을 보내드립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제주(지방)은행	50-01-124050	주택은행	504534-01-000064
농협중앙회	053-01-227471	제일은행	100-20-144861	외환은행	150-22-01008-2
한일은행	082-031951-01-201	서울은행	15508-2269109	기업은행	024-022451-04-012
신한은행	324-05-012374	평화은행	052-25-0001-512	상업은행	113-04-106884
조흥은행	322-03-003141	보람은행	002-22-00951-0	한미은행	100-51057-249
하나은행	111-216474-00104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료 담당자 ☎ (02)737-8881, FAX (02) 737-0697

공 고

대한불교 법성종을 창종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 서 덕 암

원로원장 : 법주 박 영 식
종회의장 : 혜승 고 대 환
포교원장 : 재령 김 선 중
총무부장 : 혜운 안 병 엽
교무부장 : 혜선 류 지 형
포교부장 : 보현 조 보 현

총무원장 : 덕암 서 장 근
교육원장 : 만원 이 홍 종
규정부장 : 혜윤 김 승 만
재무부장 : 옥천 유 옥 순

중생제도 불법 찬탄하는 몸짓 공양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0



○최승희가 창작한 보살춤은 불보살의 자비행을 묘사한 작품. 최승희의 제자 김백봉의 공연 장면.

영산재춤 무대무용에 영향

바라춤 고통받는 중생 제도하는 춤

승 무 불교서 출발한 한국춤의 백미

보살춤 보현행원 형상화…최승희 안무

춤



○승무는 '정중동'의 섬세한 동작이 독특한 민속춤이다. 사진은 한영숙류를 이은 이매주의 춤사위.

옛 선사들은 참구하던 화두를 깨치고 깨달음의 열락에 빠지는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우주를 진동시키는 즐거운 춤이었을 것이다. 원효스님이 신라의 하늘을 어깨에 걸머지고 덩실덩실 추었다는 무애무 또한 자유를 일깨우는 아름다운 몸짓이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고타마시타르타 태자 앞에 나타나 온갖 교태를 부리며 추어대는 마구니들의 춤은 춤이 아니었다. 태자에게는 한낮 허튀비의 장난질에 불과 했기 때문이다.

불교에 있어서의 춤은 공양이다. 부처님의 장엄한 회상과 법을 찬탄하는 공양이기도 하고 인간의 죄업을 삭혀내는 간절한 발원의 공양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의 춤은 언제나 위의를 느끼게 하는 장엄미가 있다. 소리(범패)와 무용의 종합 의식인 영산재가 대표적인 불교춤의 보고다. 영산재의 춤들은 오늘날 무대무용으로까지 자리를 넓힌 한국춤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불교의 춤은 한낮 몸짓을 떠난 자리에서 이미 인간의 애욕과 진리의 법계를 둘 아니게 융합하는 불성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영산재의 춤들

△바라춤: 등으로 만든 바라를 들고 추는 춤이다. 의상은 장삼과 가사 차림 그대로이며 비교적 빠른 장단에 맞춰 춘다. 혼자 출때는 외바라 또는 광바라라 하며, 둘이 출때는 겹바라, 셋이 추면 쌍바라 라고 부른다. 바라춤의 종류는 7가지다.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박자를 넣은 천수바라, 네 다리를 엎어서 추는 사다라니바라, 아외괘불단 아래서 두 사람이 서로 비켜 오가며 추는 명바라, 내림게바라, 관욕쇠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등이다. 바라춤은 태징, 북, 목탁, 호적 등 삼현육각의 흥취한 악기 소리에 맞춰 추게된다.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제도하는 춤이다. 영산재의 한 부분인 바라춤은 이제 일반 무대에서도 공연될만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비춤: 영산재의 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춤이 바로 나비춤이다. 슬프도록 하얀 장삼(흰 장삼을 六環장삼이라 한다)과 땅에 끌림듯 늘어뜨린 육수가사, 그리고 탐모양의 고깔과 손에 든 작약과 모란 꽃 봉우리. 이러한 장엄물들 만으로도 나비춤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춤사위들도 사뿐사뿐 이어진다. 이 여성적 춤도 한사람이 추면 한나비춤으로, 두사람이 추면 쌍나비 춤, 다섯 사람이 출때는 오행나비춤이라 각각 달리 불린다. 나비춤은 종류가 16가지나 된다.

△타주춤: 영산재 가운데 식당작법에서만 행해지는 춤이다. 불법승 삼보와 시주자 수주자, 시주물 등을 다시 생각하며 공양을 찬탄하는 의미를 갖는다. 법복을 입은 두 스님이 타주채를 하나씩 든 채로 1m 높이의 괄정도불을 뒤로 한 채 앉아 오다가 경쇠소리와 어장스님의 태징과 염불소리에 일어나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춘다.

△법고춤: 축생제도를 위한 춤이다. 천수바라춤과 나비춤이 끝난 후 요잡바라춤 끝머리와 식당작법 때 법고춤이 들어간다. 보통 한쪽 북면에서 북을 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어장스님이 태징 장단을 친다. 삼현육각과 호적이 혼합된 느린동작에서 시작해 태징 장단에 맞춰 점점 빨라진다. 요즘 무대에 올려지는 3고무, 5고무 등 북춤도 이 법고춤에서 비롯됐다.

■승무

고도의 미적 구조를 갖춘 승무의 기원에 대한 설은 다양하다.

자족선사를 파계시키기 위해 황진이가 처음 추었다는 설과 상좌승의 모습을 동자승이 본떠서 추었다는 설,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8선녀를 만나 노니는 내용의 구운몽을 본으로 추어졌다는 설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화경〉에 나오는 가섭존자의 얘기를 춤으로 만든 것이라는 설이나 탁발승이 포교를 위해 여러 사람을 모을 목적으로 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붉은 가사에 장삼을 걸치고 백옥같은 고깔을 쓰고 유난히 코가 솟은 버선을 신고 추는 승무는 염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의 장단 변화를 따라 펼쳐지는 일곱 마당의 춤이다.

불교에서 출발, 민속무로 성장해 무대무용예술로 완성된 승무는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됐다. 1936년 한성준이 승무의 사위와 가락을 집대성 했으며 그 이전에는 광대패, 관소리꾼은 물론 권번무용의 기본으로 추어졌다.

한성준의 집대성 이후 그의 딸인 한영숙이 기능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매방에게 사위를 전했다. 김천흥, 강선영, 최승희, 조택원도 한성준의 법통을 이었다. 1987년 기능보유자로 선정된 이매방은 이대조 박영규등에 사사받은 호남승무의 명인. 이매방의 승무는 임이조씨등이 맥을 잇고 있다.

■가사호접(袈裟胡蝶)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전수받은 조택원이 1933년에 내놓은 현대화된 승무다. 처음의 이름은 '승무의 인상'이었다. 조택원이 승무를 배우고 추며 받은 느낌을 또다른 춤사위로 표현한 것으로 현대적 예술의식이 스며든 '승무의 새로운 해석'인 셈이다.

첫 공연 이후 조택원은 세계무대를 누비며 이 춤을 소개했다. 제자 송범에게로 대를 물린 가사호접은 다시 국수호와 김문숙에게로 전해졌다.

■무애무

원효스님이 추었다는 유명한 춤이다. 무애(無碍)란 걸림이 없다는 뜻이다. 원효스님은 격식이나 형상을 떠난 곳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무애가를 부르고 무애춤을 추며 경주의 거리를 떠돌아 다녔다 한다. 그러나 무애가나 무애부는 그 내용과 형식이 전해지지 않는다.

■보살춤

일제때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을 날렸던 최승희가 안무한 불교춤이다. 언제부터 추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언뜻 보기에는 관음보살의 자비행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지만 보현보살의 행원을 형상화 한다고 보는 설이 정설.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움직이는 이른바 정중동(靜中動)의 기예가 돋보이는 춤이다. 춤은 5분에서 6분정도로 짜여져 있다.

최승희의 제자 김백봉씨가 보살춤을 이었다.

임연태 기자
(yilim@buddhapia.com)



○법고춤. 매우 강렬한 동작이 특징.



○바라춤. 육도중생을 제도하는 의미.



○나비춤. 의상과 동작이 매우 아름답다.



○ 타주춤. 식당작법에서만 시연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국판/408면 · 값 7,500원

그냥 갈 수 없는 길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북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말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illegible]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솔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 수 없는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록을 읽고 발심, 1980년 범어사에서 성운지효(聖雲智曉)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불교고등학교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계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눠가고 있다.

불광출판부 대표전화 : 420 - 3200 팩시밀리 : 420 - 340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황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황비는(자연향) 테크란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양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황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탕탕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침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황비는 지면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황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재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황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골반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황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때변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황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믈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황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황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빌비딘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빈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내게 생긴 일은 모두 내탓 일뿐

사람사는 게 발자국 떼는 것 같아
고정된 게 없고 모두 공했기에
그냥 놓고 가면 여여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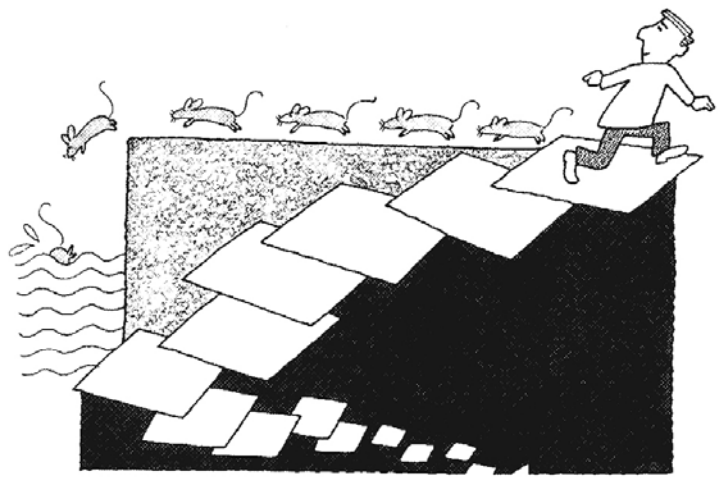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팎경계 닥치는 대로 굴려 넘기며 그냥 싱그럽게 살면 苦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걸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재료 삼아서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를 돌면서 각 사찰을 봐도 그렇고, 각 종교를 봐도 그렇고, 마음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모두 타의에서 구하지 자의에서 구할려고는 생각들을 안합니다. 물론 말들은 '나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알아라' 이러지만 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저 동물에 가까운 사람, 또는 그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생각해 볼 때 50%는 멸하고 50%는 생하는데 수레와 같이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 ㅇ떤 기계에 사과나 토마토나 이런 물건들을 쏟아 넣었을 때 작은 것·큰 것·아주 작은 것 등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분리돼서 떨어지면 그것을 큰 건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챙기게 됩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그렇게 하고 갑니다.

우리 영령들도 지금 마음들이 차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데서 차원에 따라 수레에 넣는다면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분리가 돼서 자동적으로 하천세계에 떨어지고, 중천세계에 떨어지고, 상천세계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천세계로 떨어진 생명들을 많이 보시죠? 텔레비젼에서도 보시고 아주 가까운 우리 주위에서도 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걱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도 아실 테죠. 또 먹고 먹히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선 모든 것을 볼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있죠. 기가 막히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천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얼굴을 하늘에다가 쳐들고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들 여러분이 '내가 이만하면 뭐 제일 잘 살아왔고,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하고 사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대로의 차원이 있어서 자기가 얼마만큼 살았든, 차원이 높든지 낮든지간에 모든 것은, 자기 차원에 의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지나오면서, 앞으로도 억겁을 지나가면서 또 앞으로도 또 지나오면서, 겪는 그 집착 또는 관습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더기가 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누더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본래 발자국 떼어놓는 것과 같아서 한 발자국 떼어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고, 한 발자국 떼어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공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다.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여여한 거다. 그냥 여여하고 거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곧이 안듣는 거예요. 그 관습에 의해서 말입니다. 살아나온 그 누더기가 붙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여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 그냥 우리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서 하나도 거칠 게 없고 하나도 걸릴 게 없이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기쁘게 살라. 이래도 하여튼 기쁘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요만한 하나라도 긁어서 부스럼을 더 만들어 가지고는 걱정 근심을 하면서 야단법석을 떤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하천세계에 사는 생명들은 어떻게 사나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간이 짐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수레에 굴려서 다 자기 차원대로 나누어지니까요. 그 차원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야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물들 중에 참 고차원적인 인간이, 99%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한찰 나 요렇게 돌리면 될 것을 그렇게 누더기가 붙어서 돌리질 못합니다. 모두가 공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놓고 가는 거다. 그대로 공해서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살이로, 아니 하루살이가 다 뭡니까, 일초살이지. 허허허. 그냥 딛고 가면서 그저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바깥에서 닥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그대로 굴려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은 삶을 어지럽고 괴롭게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딱해서 어떤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여러분한테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분 일초도 내 사사로운 생각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다 먹어야 다 줄 수 있다' 이런데서 이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나 아님이 없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요거 하나 착을 둔다면, 그 습을 가지고선 습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습성이 그냥 앙금처럼 앉아 있어서, 아무리 떨려고 애를써도 떼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떨려고 해서 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떼어서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다 되놓는 것 밖엔 없습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으나 사나, 당장 이 하늘이 무너져서 쪼개진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이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껄껄 웃고 거기다 놓을 수 있어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나도 수 해를 두고 그걸 실험을 하고, 또 닥치면 또 실험을 하고,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닥치게 해서 또 실험을 하고,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네 마음은 진짜로 그렇게 됐느냐 안됐느냐 하고, 실험을 해본 지가 근 십년이 넘어갔습니다. 깨달아 가지고도 그만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몽땅 다 떨려면 떼는 게 아니고 그냥 놓는 건데, 우리 살아나가는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더불어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도 없다, 내 몸 속에 들은 생명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더불어 보고, 같이 더불어 듣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얕다고 할 수도 없고, 평등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바깥에도 다 평등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하면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화해서 바로 나투고 진화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고 이러는 거죠.

물에 서 노는 거나 들에서 노는 거나, 모든 짐승들도 자기가 확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만약에, 이 지느러미가 잘못돼 가지고 그 물 속을 활보하지 못한다면 지느러미를 나오게 하고, 또 내리막을 잘 못 딛을 때는 앞발을 좀더 짧게 하고, 또 평지에서 많이 못 뛸 때는 다리를 좀더 길게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높여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차원에 따라 하천 세계에서도 무척 올라오고, 중천 세계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뭐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아이구 이만하면 살지 뭐, 그렇게 그런 공부는 해 뭘 해, 죽으면 그만일 거' 이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진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말입니다. 어느 고을에 쥐들이 모여 사는데 그렇게 큰 가족이 됐더랍니다. 어느 해 그 고을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 다른 고을로 먹을 걸 찾아 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느 거사가 길을 지나다가 보니 쥐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깐 말입니다. 벽에다가 방을 붙여 놓기를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참 듣기 싫다 할 때까지 하는 사람을 내가 사위를 삼는다' 이렇게 어느 정승이 방을 붙여 놨거든요.

그래 이 거사가 쥐가 강을 건너는 걸 봤겠다 그리로 간 거예요. 가서는 그날 밤에 이렇게 말을 했죠. "쥐 한 가족이 크게 살고 있었습니다"하니까 "그래서?", "그 쥐가 사는 고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그게 자기 고을인지도 모르고 궁금해서 묻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지금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면 먹을 게 많으니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4)

길을 가다 엎어졌으면 그 자리를 딛고…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에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한다. 이렇게 진실히 맡겨 놓을 때 모든 것이 인과 응보로 나온 것이니 나온 거기서 알아서 하게 되는 이치가 있다. 예를 들어 병도 인과 응보이니 엎어졌으면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 놓은 것이니까 자기가 풀어야 하고, 또 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놓으라 하는 것이니 병을 예로 들면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 주인공이 고쳐라,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고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여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는 것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생에 녹음된 것들이 연이어 경계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그것에 일일이 오욕칠정으로 응하다 보면 또 내생에 다가올 업을 재녹음하게 된다. 그렇지만 다가온 경계 그 자리에서 놓고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심하게 경계를 맞고 보내면 녹음 테이프를 지우는 것과 같아 공 테이프가 되게 될 것이다. 이미 녹음된 것은 다가온 경계로서 끝나고 더 이상의 녹음은 없게 된다.

길을 가다가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다. 전생에 선업·악업을 지었다면 그 지은 자리에다 되놓아야 무너진다. 그것이 새롭게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것이다.

언짢은 일, 괴로운 일이 닥쳤다, 혹은 닥쳐올 것이다 했을 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안으로 굴려 놓는 게 중요하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복으로 나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놓고 나아가노라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

생시에 기차를 보지 못한 사람은 꿈에서도 기차를 모른다. 생시에 불이 뜨거운 줄 알았기에 꿈에서도 불을 보면 뜨거운 줄 안다. 현실에서 집착하면 꿈에서도 집착한다. 현실과 꿈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꿈에 도깨비가 보이고 부처가 보이고 조상이 보이고 별의별 것이 다 보였다 해도 다 제 마음이 형상화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생시에 보고 듣고 제 마음으로 그리고 했던 것이 다 마음의 나툼이라고 믿고 놓아버린 사람은 꿈에 부처가 보이더라도 마음이 그려 보인 것인 줄 알기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마음의 나툼이라고 관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히 나쁘다 좋다, 높다, 낮다, 예쁘다 보기 싫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와 더불어 평등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거에 진 것을 오늘에 녹이고 미래에 갈 것도 오늘에 녹여라. 과거에 진 습을 오늘에 놓는다면 미래에는 습이 붙을 일이 없다. 현재에 붙을 것이 없다면 어찌 미래에 붙을 것이 있겠는가. 오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마치 벽을 향해 던진 공이 내게 되돌아오듯 자기한테로 되돌아온다. 공연히 속상해 하고 꼬부장한 마음을 갖는다면 속상한 일과 꼬부장한 일만이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처한 당장의 경계부터 푹 쉬어 보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집착이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벗어나 푹 쉬어 보라. 지난날의 모든 업도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 실려 있으니 지금 한 생각 크게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셈이 된다. 그러다가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그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놓아버려라. 당신의 잠재 컴퓨터는 점점 짐이 가벼워져 결국은 텅 빈 듯 홀가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놓으라' 고 하니까 '놓고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고 되묻는다. 그러나 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살 수가 있는 법이다. 중생의 마음 씀씀이는 일일이 생각을 지어서 일을 해야만 이치에 맞는 줄로 여기지만 도인의 마음씀은 일일이 생각을 내지 않고 푹 쉬어 있으면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법에 맞게 된다. 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서 하는 어떤 행보다도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깊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익된 행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참된 수행자의 일상 생활은 그대로가 도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것이다. 행주좌와가 그대로 법에 맞기 때문이다.〉

가질 것이 없으니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으니 가질 것이 없다. 일부러 마음으로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놓고 다녀라.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놓아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얻을 것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몰락 던져라. 던지면 건진다. 겁을 낸다면 일임해도 되질 않는다. 맡겨 놓는다 하는 것은 결과까지도 놓고 맡기는 것이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집착 · 관습 못떼면 내삶은 누더기

☞ 15면에서 계속

까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듣기 싫다 할 때까지 하라고 하니 그렇게 단순하게 끊어지는 거죠. 그 말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자꾸 건너갑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건너갑니다."이렇게 해 놓고는 "할머니가 그 꼬리를 물고 또 건너갑니다. 연방 아들이 건너갑니다. 또 자식이 건너갑니다. 그냥 연방연방 쥐가 꼬리를 물고 또 건너갑니다. 쥐가 꼬리를 물고 건너갑니다…" 마냥 이렇게 사흘을 해대니깐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듣기 싫어서 아주 죽겠는 거죠 뭐. 그런 걸 딸 내주기가 싫어서, 거지 같은 놈한테 딸 내주기가 싫어서 영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보름을 지탱하다가 결국은 딸을 내주고 말았답니다.

이 얘길 왜 하느냐 하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불교라는 자체가 바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이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꼬리 끊어질 사이가 어디 있고 꼬리 붙을 사이가 어딨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작다 크다, 높다 얕다 할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이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뭐 있겠느냐. 여러분은 "왜 먼지 앉을 게 없어? 병도 나고 뭐, 먼지도 앉고 별거 다 하지"이러지만 그 너머로 훌떡 넘어선다면 그 소리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 세상을 모두 한 눈에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상세계·중세계·하세계를 한 눈에 보고, 수레가 굴러가는 걸 볼 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붙을 데가 어디 있냐는 소리밖에는 안나올 겁니다 아마.

"빛은 가다가 꺾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찰나에 삼천대천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그림 · 최주현

습성을 떼려 말고 그냥 제자리에 놓으세요
고정된 것 없으니 '나'라고 세울 것도 없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보였느냐?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만, 그 육은 자기 시자일 뿐이지 주인이 떠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나오고, 또 돌아가고, 또 나오고 이러는 거죠, 물과 흙과 바람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울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 일어나고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생기고 우주 만물이 생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저 살았다 하면 죽었고, 죽었다 하면 살았고 이것은 이름일 뿐이지, 우리가 영원토록 그대로 굴러가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적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러죠. 잘못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영화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역할을 하듯이 한 철 배역을 받아나와 배우 노릇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요? 이 엄청난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지만 자기한테 다 갖추어 있던 것이 차례로 풀려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기 오신통이라는 안에 숙명통이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봅 수 있어요, 즉 자동적인 녹음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스스로 갇혀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면 바로 수염이 길어서 붉게 익었다는 얘기로 할 수 있죠, 말로 하자니 수염인 거지 진짜 수염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만 가지 천 가지를 다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일거수 일투족 다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라고 세울 것도 없고, 나라고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럴 때 그게 정녕코 알아졌을 때, 여기다가 그냥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놓고 가고, 뭐 놓고 갈려고 해서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놔진다는 얘기죠, 그냥 믿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젼을 보면서도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고, 안에서도 일을 하고 바깥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 부러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착을 놔라' 이러는 것, 그것도 이름일 뿐이구요, '번뇌를 끊어라' 이러는 것도 이름일 뿐이예요. 그대로 우리가 더하고 덜함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굴러가는 수레와 같죠, 그 수레에는 바로 심봉이 꿰어져서, 주장자가 그 속에 꿰어져 있어서 굴러가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대처를 할려면 그 심봉을 믿어서 거기다가 다 놓게 되면, 스스로 그냥 굴러서 다 재생이 되고 또 일들이 타협이 되죠.

이건 심성의학이라고, 아니 심성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면 한 사람 앞에 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한 마음에서 한생각에서 여기다가 모든 것을 놓으면, 여기서 바로 입자로 화해서 분자가 돼서 다 그냥 이렇게 나누어져서 역할을 해요, 집에도 개가 있으면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 것과 같이 자기한테 결부된 사람 앞에는 다 조절을 해요, 그러듯이 자기 마음에 주인이 있으면 신하다, 주인이다 할 게 없이 평등한 마음에서 바로 그렇게 분자가 될 때는, 바로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미륵도 되고, 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칠성도 되고, 지장도 되고 아니되는 게 없이 그렇게 분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원자에서 나가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는 또 다시 들어오면 그냥 원자일 뿐이죠. 그래서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마음의 법이기 대문이죠.

여러분, 그저 몸이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넓게 생각을 하시고, 더불어 넓게 좀 보시구요, 즐겁게 사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땐가는 "아하, 이게 이런 거로구나, 마음은 항상 체가 없다고 하더니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는구나, 이럴 수가, 이럴 수가!"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주먹으로 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울다가 웃다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나 공부하는 걸 보면 노래하는 걸 봐도 그렇고, 기도 드리는 걸 봐도 그렇고, 염불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전부 기복에 젖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는 또 요만한 등잔을 쭉- 해놓고선 거기다 꼬리표해서 붙이고요, 나는 참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세상에 저렇게 눈뜨고 코 떼먹고, 눈 떼어먹고 코 떼어먹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가? 부처님은 황홀하기도 하시지.' 부처님은 백다귀를 다 고아서 먹어도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껍데기를 다 벗겨먹어도 가만 있고, 살을 떼면은 또 살이 붙고, 떼면 또 살이 붙고 이러니 영구히 떼어먹어도 아마 다 뜻 떼어먹을 겁니다. 불법을 지니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이 완전히 설 수도 있고, 미신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을 올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불교라 하면 그저 머리깎은 사람들만 공부하는 게 불교인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세상 천지가 다 불교예요. 생명 가진 것이라면 모두죠, 지수화풍도 생명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불이구요. 그래서 불, 불, 불 하면 생명을 가진 일체 모든 것이 '불'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불성 없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나가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영령이 즉 말하자면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아니 우주 삼라만상이, 우주뿐만 아니라 과거·미래·현재 이것이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우주라고 한다면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천하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주 천하! 이것이 다 그냥 돌아가고도 남음이 있고, 그것이 한생각에 한 찰나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며 또는 빛은 가다가도 꺾일 수 있지만, 찰나에 마음이라는 것은 땅 속이나 바닷 속이나 어디고 깊어서 못 간다, 넓어서 못 간다, 높아서 못 간다가 없다고요. 과거로도 돌아갔다가 미래로도 돌아갔다가 현재로도 왔다가 그 마음대로 자유자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뜻을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서 알고 있으면, 그렇다더라 하고 알고만 있어도, 요다음에 나올 때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유스럽게 자기가 몸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죠. 정말이지 몸은 어떻게 가져 나오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일차적이고, 이차적인 건 몸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에 내가 소임을 맡느냐, 그 소임을 말아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고 얼마만큼 사람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만백성을 다 살리고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또 만백성을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거쳐야 그래도 부처님이죠, 뭐, 꼭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된다 이러는 것도 과거로부터 지어놓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그건 절대예요, 자기가 지어놨기 때문에 나쁘든 좋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위 조상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러면 요다음에 또 이어지질 않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 같으면 잘 리드해서 둥글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면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그렇지 않죠, 힘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생각을, 그 죽으나 사나, 못났든 잘났든 한생각을 잘 두세요, 이 공부한다고 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앞가림도 하게 해주지, 공부하게도 해주지, 마음 착하게 살도록 하고 세세생생에 이어지게 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모두 자기 원소 자체가 하는 거죠.

"공부는 해서 뭘해 죽으면 그만인걸"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도재에 참여하는 마음자세

문 큰스님 법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도재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불 끝나고 천도재가 있으면 가끔씩 동참을 해서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우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도재 지내는데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냈느냐 라고 물어왔는데, 질문을 받고 보니 저도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그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일체를 다 둘로 보지 않고 그 영가도 나와 둘로 보지 않고, 또 천도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 자리에서 한 것이니까, 오로지 근본 자리에서만이 그 진리의 세계로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대답이었는지, 또 제가 올바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서 큰스님께 여쭙습니다.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답 재지낼 때나 천도재를 하거나 이럴 때 왜 등그런 떡을 한조각이나 세조각이나 해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이렇게 반찬을 해 놓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 묶어 놓을려면 그렇게 반찬들을 해놓고 지내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냥 둥그렇게, 그것도 안해놔도 되는 거지만 형상이라도 공부하기 위해서이고, 또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둥그런 떡을 하나 해놓고 과일 세가지를 한그릇에 놓고 초 향만 켜고 지내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 때에 그 먹고 살던 습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도 먹게 해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죠. 성가시게 군다 하더라도 잘 되기만 하면 좋을텐데 잘못됐으니까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양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떡을 하나 해 놓고 그 떡 안에 다 넣어야, 이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야 되죠. 그래서 한마음 하면 벌써 한 떡 하나예요, 한마음 하면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영령들을 좁쌀 알갱이 하나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이게 두드러지지 않고 또 큰 그릇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크면 큰대로 차고 작으면 작은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자손들이 부모에게 제사 지낼 때에 그 습기를 다 떼어서 내 마음과 둘 아니게 하게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굴려서 놓으면 거기에서 굴려서 다 세척이 돼요, 세탁소에 들어가면 빨래가 깨끗하게 돼서 나오듯이 말이예요, 그런 것과 같이 된단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떡 하나도 족하다 이런 말이죠, 이 떡 하나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는 되납더라 이런 말이예요.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 나타나

문 저는 강릉지원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돌아가신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꿈에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두분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 꿈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차츰 비가 멎기도 했습니다. 그런 꿈을 자주 꿔서 제가 '아, 주인공, 일체제불과 조상님이 한마음인데 이 시봉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만이 알 수가 있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줘'하고 계속 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조상님을 위해서 재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스님께 여쭙습니다.

답 댁에서 형성되기 전에는 바로 전에 살던 자기 조상이죠, 그것은 아버지 즉 '부'가 되죠,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바로 '자'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죽어야 본다'고 말하죠? 그럼 그것을 한번 바꿔 생각을 허보세요, 만약에 공한 도리를 알면 죽은 것이다 라는 뜻이 나오죠, 또 어머니가 죽었다 이랬죠, 어머니가 죽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이 전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생하죠, 그리고 또 두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천, 지, 인이 그대로 다 죽었으니 자기는 살아날 가망이, 즉 새싹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제 문이 좀 열린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걸 왜 부모에다 되들이대고 뭐가 안되도 조상의 탓으로 자꾸 돌리십니까? 자기 조상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의 모습으로 화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 꿈에 가르치는 것도 꿈이예요, 꿈이다 생시다 할 것 없이 그런 꿈이 꾸어지면 제사지낼 걱정하지 말구요, 아하! 이게 나의 채찍이로구나, 이제 두분 다 자기와 자기가 죽었으니까, 둘이 아니게 죽었으니까 문이 좀 열리게 되나 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협찬 한마음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팩스 : (02)737-0696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제3의학·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특별할인판매(수량한정)

동충하초 + 상황버섯
(1개월분 각 10만원)

■ 셋트로 구입하시면 불로환약을 무료로 드립니다. (판매가 10만원)
■ 암 및 불치병 완치사례 다수 있음.
■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건영백화점 1층
서울 02)926-6981
휴대폰 011)262-6981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기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 - 질병상담
문제아 무료상담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468-9632/011)453-861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옥천사**
주지 대원 합장

• 강좌 •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쪽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확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수/맥/강/좌

1. 신비의 추 사용법
2. 수맥관련 상담
3. 기균형 전문

02)734-2118
011)239-6817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강의기간: 주2회 매회 3시간씩 3개월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 강 사 : 7년여 강의 경력이 있으신 원장직강으로 종강후 개업보장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 02)713)4852~3

활법선원 교육생 모집

◇내용 : - 선불교교리
- 명리학(사주학, 성명학)
- 기공(법륜공)
- 자연치유학(활법-척추교정술, 경혈지압 및 맛사지, 자연건강법)
◇특전: 교육 수료후 선법사, 활법사, 명리역학사 자격증 발급
※스님은 특혜 있음
(위치:7호선 상봉전철 1번출구앞)
교무처:02)434-7576/F.434-7576
생활선불교교육원(대학)

• 구인 •

비구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응암동 **관음사**
02)359-731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여수시 중흥동
흥국사
0662)685-5633~5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한 말 순
◆나이 : 69세 ◆키 : 1m 50cm
052)282-1490
0653)832-5769
(박 차 남)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현대으뜸타워 104동 1004호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기타 •

도움부탁드립니다.

경제파탄으로 불자가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 민 838-21-0132-495
우체국 013094-0192886-12
(김기창)
도와주십시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도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 락 처 :
서울 중랑우체국 사서함 44호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1)361-6662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 회향 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방산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해인 인테리어
02)201-1470
019)369-8000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신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 사찰안내 •

사찰 (운영) 안내

◇위치 : 경기도
◇대지 : 200평
◇법당 : 15평 ◇요사 : 15평
◇가액 : 6천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 진 불 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 3거리
◆평수 : 50평
◆시설 : 현대식 시설.
잘 갖추어져 있음.
◆권리금 : 없음
◆가액 : 전세 7천만원
◆교통편리, 절철역 걸어서 5분거리
◆시내버스 포교당앞 하차
02) 941-3195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금매) ※
032)831-3889
012)925-6118

사찰 안내

◆ 위 치 : 경북 상주시 남성동
◆ 평 수 : 대지 700평(두필지)
◆ 법 당 : 25평
◆ 요사채 : 2층 70평
◆ 1층- 식당
◆ 가액은 전화상담요!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입니다.
0582)533-3897
019)507-2318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 대지 : 100평
◇ 법당 : 16평
◇ 요사 : 2동 25평
◇ 가액 : 전세 3천만원
◆ 장기임대가능
011)594-0885

사찰(급) 안내

◇ 건평 : 103평
◇ 법당 : 43평 목조건물
◇ 요사 : 5칸
◇ 전세 : 5천만원
◆ 신도 700여분
◆ 주차시설 완비(50대)
053)324-2518
019)512-2518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신 건너 수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삼포 목조, 문화재급, 시설 A급)
◆요사채 : 지상 20평, 목조, 지하50평, 산신각 5평(돌벽)
◆채공실 : 17평(조립식) ◆가액 : 15억
◆ 특징 : 산세수려, 물좋고 남골당, 양로원, 근린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
서울버스 124번 버스종점근처
서울과 거리는 3분거리, 주차장 30대 가능
※ 운영하실 분은 연락요망
02)899-4281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 법당 : 삼존불,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약15평(법회가능), 방2,부엌2,화장실
◇ 가격 : 전세가
아주 조그마한 사찰이나 포교하시는 스님께 약간의 전세금만 받고자합니다.
02)823-0788

사찰터(최적지)

◆위치 : 대전시 서구 5동
청학산줄기 절터 15,600평
(임야를 닦을 때 축대를 쌓지 않아도 7천~10,000평 정도가 생김)
단, 큰도로에서 4m 정도의 작은 도로로 500m 들어감
◆가액 : 평당 2만원(급매)
017)401-2459
042)583-1051
※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입니다. ※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평수 : 대지+전 =16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50평
◇ 가격 : 2억 2천 5백만(급매)
◇ 특징: 주의경관 수려,
최상의 기도처
011)493-8936

사찰 안내

◆위치 : 경주 양남 효동 **용담사**
◆평수 : 법당 12평, 요사채 1동,
삼성각 1동, 부지 357평
◆주차장용도 550평
◆특징 : 폭포 2개, 경관수려
◆가액 : 1억 3천만(절충가능)
052)277-2117
052)248-7362
018)587-3585

포교원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5동
◆평수: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1(주차유)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 전세 5천만원 가능
◆시설비: 상담후 결정요함
◆특 징: 주변전철역 2분거리
교통편리, A.P.T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 안내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입구 4거리 코너
◆ 평수 : 17평(공양칸1,방1,법당1)
◆가격 : 전세 1천 5백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9백5십만원
◆ 4월 초파일 법회 행사 했었음.
02)549-1129

사찰안내

◆위치: 충남 ◆법당: 10평,
◆요사: 20평 ◆부지: 1,100평
◆가액: 6,500만원
⊙경남지역 양도할 사찰을 급히 찾습니다.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위치 좋음)
◆평수 : 30평
◆가액 : 전세5천만원(포교원 전부)
시설완비, 월세도 가능.
◆ 직접 문의
018)311-3744
051)503-0177/011)320-9355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4평,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 가격 : 2천 8백(월세없음)
◇ 시설비: 천만원(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2)954-12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화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 3층건물 3층(40평), 법당, 방3
◇ 평수 : 80평
◇ 가격 : 전세 2천 2백
◇ 시설비 약간(즉시 법회가능)
※ 포교 최고요지
0345)433-2429

(최적)포교원 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장안1동
5호선 장안평 전철역 바로 옆 주택은행건물
◇ 평수 : 80평
◇ 가격 : 방문답사후 절충요망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2천2백만원정도)
02)245-7075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대지 : 48평
- 2층 법당
- 1층 30평 요사채
방 3개, 주방, 욕실, 종무소
- 반지하 : 공양간 식당
011)790-7162

사찰 운영하실분

◆위치 : 경남 밀양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요사 : 30평 / 삼성각 : 5평 ◆가액 : 담사후 절충
◆특징 : 관강지 입구에 수려한 산세속에 소재한 기도도량

◆위치 : 전남 고흥 / 부지 : 2,423평
◆법당 : 21평9전통 목조) ◆요사 : 2동 30평(전통목조), 10평(전통목조)
◆가액 : 답사후 절충
◆특징 : 신도시 포교권에 속한 기도 도량으로 빼어난 경관과 자연 탑바위가 조화된 기도 도량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512-4447/011)736-4447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 안내

◆위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평수: 100여평
◆건물: 요사채2동
◆암자: 법당10평1동
◆매가: 1500만원
※산세 좋고 물 좋고 수려
만불사주지 석진범 합장
0397)574-1358

포교당 최적지

◆위치 : 김해시 어방동
대우 유토피아 상가 3층
◆면적 : 분양가 49평, 실평수 28평
◆가액 : 전세가 3,000만원,
월세가능 ※가격절충 가능
◆ 4,000세대 A.P.T 중심상가, 대단위 주차장, 에스컬레이터, 부대시설 아주 좋음
0525)327-5336
0525)327-7166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4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포교원(토굴)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서울에서 열차 2시간거리)
◆조건 : 좋은 위치에 목조기와 단독주택(전면주택과 후면임야 대발)
◆대지 : 774-1번지 등기분 95평내에 기존건물 약50평, 775번지 등기 90평
◆구조 : 법당1, 삼존불, 탱화1점, 방 3, 거실 및 조리장1, 샤워 및 보일러실 1, 마루 현관 있음. 옛날 기와집터 현재 밤으로 사용
◆특별할인가 : 총 3600만원
0451)641-7569/011)401-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부지 : 370평(아담한 산속)
◆ 법당 : 39평(주불 약사여래 6자)
◆ 요사 : 30평
◆가격 : 9천만원
0658)542-5859

포교원 안내

◆위치 : 안양 평천
신도시 전철역 입구 4층
◆평수 : 27평
◆보증금 : 1천만원 40만원
◆시설비 : 꼭 하실 스님에 한해 최저가로 절충, 사정상 급매
◆특징 : 전철역 교통편리,포교최적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지역
015)8386-1904

불자 세상보기

국민 63% "그린벨트 그대로"

정부, 일부 개발제한 구역 전면 해제 발표
환경단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

사찰환경-산림파괴 등 우려

놓아 두어야 하느니/ 놓아 두어야 하느니/ 그대로 놓아두어/ 그 푸름의 목숨/ 지켜야 하느니/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목숨/ 우리 살림 끝내/ 잿더미로 돌아감에/ 어찌 막을 힘이 있으리.(고은 시인의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 기념시)

그린벨트 지정 실효성이 적은 일부 권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이 11월24일 발표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27년만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경실련 등 16개 시민·환경단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원칙 발표와 같은 시각 홍사단 강당에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공동대표·고은시인 등 8인)'을 창립, 대대적인 반대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의 62.8%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24.9%는 '그린벨트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응답)는 갤럽의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그린벨트 해제 및 조정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의 해결을 주장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중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를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67.2%)으로 보고 있다.(6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사) 또 투기문제와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구조가 기형적 형태로 바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는 지역(존치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해제기준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8백60개의 전통사찰 등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한 상당수 사찰도 그린벨트 제도완화로 더 많은 사찰환경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전재경 전문위원(법제연구원)은 "교계에서도 그린벨트 내의 사찰현황과 목록을 조사하는 한편 그린벨트 완화 조치로 인한 사찰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침해 의견 수렴, 지역의 균형발전, 토지이용의 형평성 부여,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 지난 71년 도입이후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속돼 온 이 제도가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숲은 생물의 보금자리"

"자연의 바람이 있어 문을 열어 스스로 열고, 자연의 바람이 있어 땅을 불어 깨끗하게 하며, 자연의 바람이 있어 꽃을 불어 땅에 흩으니 꽃은 무릎에까지 이른다."(세기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서는 자연의 혜택을 계속 얻을 수 없음을 설하고 있다. 〈열반경〉은 "황막한 길에 좋은 우물을 파거나 과수를 심어 숲을 만듦으로써 늘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부동국(不動國)에 태어난다"고 설했다. 또 〈범망경〉은 "산림, 들과 산, 남의 집, 동네, 사찰, 가로수, 나라의 물건 등과 그 밖의 온갖 주인이 있는 물건을 고의로 불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거대한 '산소통'이자 '물 저장고', 수많은 생물들의 보금자리인 숲과 산림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인간(正報)과 자연(依報)은 둘이 아니다(依正不二)', '몸과 땅은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身土本來無二相)'.

시론

먹구름 위에는 태양



이 원 섭
〈시인〉

이번 조계종 사태는 충격적이었다. 마치 원폭이나 터진 듯 그 파장은 사방으로 번져갔다. 산중의 장로들은 허탈감에 젖어 말을 잊었을 것이고, 수행에 정진하던 스님들은 불어닥치는 스산한 바람에 몸을 움추렸을 것이다. 더구나 신도들이야 오죽했으랴. 좌절감 배반감 모멸감 같은 것이 복잡하게 뒤엉킨 속에서 자기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하기는 불교 안에도 살벌한 말들이 없지 않다. 살불(殺佛) 살조(殺祖)니 살적(殺賊) 살부(殺父) 살모(殺母)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살불 살조는 부처님이나 조사에 의존해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으라는 충고요, 살적은 아라한을 이르니 번뇌라는 도둑을 모두 없애서 열반을 실현한 성자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살부와 살모도 무명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탐욕을 어머니에 견주어 이를 제거하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폭력을 금하셨다. 코살라국의 침략을 받은 석가족의 청년들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 화살을 허공으로만 날리다가 몰살당한 예에서 보듯, 설사 나라를 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폭력은 안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셨다.

이번 조계종 사태를 놓고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밀고 들어오니 맞설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강변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략하는 적군도 죽이지 못했던 앞의 예에서 보듯 이것으로는 이번의 사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부터 돌아보아 양보할 것을 양보하며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려 애썼어야 했다.

부루나가 스나파란타 지방으로 포교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처님은 그곳 사람들이 거칠고 사납다는 점을 들어 물으셨다.

"그들이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겠느냐."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칼로 나를 베지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칼로 베면 어쩌겠느냐."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나를 죽이지는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너를 죽이면 어쩌겠느냐."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이 고통 덩어리인 삶을 끝나게 해 주었으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의견이 대립할 때 이런 태도가 불교적인 대응방법이다. 이렇게 불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총무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음직 하고, 총무원을 아예 없애고 본사 위주로 나가는 방책도 있을 수 있다. 종정 중심체제나 명망 있는 장로 몇 분의 결정에 일임하는 체제도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지금의 체제대로 가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내 맹렬한 반격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길은 아무 곳에도 없다. 어떤 방안도 모든 스님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길은 분명히 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이요, 아라한과 보살들이 가신 길이요, 조사들이 가신 길이 그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당장 그대로는 못간다 해도 아집과 이해관계 따위 불순물을 각자 털어버리고 옛 어른들의 뒤를 따르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양쪽이 약간씩만 한다고 해도 분규나 갈등은 손쉽게 풀리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는 까닭이다.

> "부처님은 폭력을 금하셨다 양보하고 참으며 합의하라 하셨다"

나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저 먹구름 그 위에는 지금도 타양이 찬란한 광명을 발산하고 있음을 믿는다.

"금강산 곳곳이 불교성지 였다"

■금강산 다녀온 스님·불자들의 목소리

그리운 금강산. 노래와 글로만 볼 수 있었던, 현대측이 관광객의 상당 수에 달하는 불자들을 배려해 관광코스에 추가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경우스님은 "〈화엄경 보살부처품〉에 설해진 바다속에 앉아 있는 부처님의 세상 '금강'에서 유래한 곳답게 삼천대천세계에서 제일가는 불교성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성스님은 "이번 관광코스에서 내금강이 제외돼 표훈사, 유점사, 정량사 등 많은 사찰을 가볼 수 없었다"며 "북한 불교를 살펴볼 수 있게 내금강 코스도 개방됐으면 좋겠다" 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불자가수 현숙씨는 "북한의 사찰과 승려를 보지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으며 북한측의 입국 거부로 마지막 날만 참가한 송해씨는 "남북한 서로가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가까워 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북한의 사찰을 보지 못해 아쉬웠다" 고 밝혔다. 이번 기행에 참가 했던 불자들은 한결같이 "통일후에도 불교가 금강산의 주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미희·김주일 기자
(mhcheon@buddhapia.com)



◇두 스님이 본 금강산은 지연 그 자체로 불법의 세계였다. 신계시터를 차창으로 본 불자들은 관광코스 조정을 바라고 있다. 사진은 만물상을 뒤로한 도성스님(왼쪽)과 경우스님.

"금강산에 위락시설 안된다"

녹색연합 금강호 선상서 설문 '반대 67%'

지난 11월 18~22일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관광객 가운데 97%가 금강산 환경이 잘 보전됐다고 봤으나, 70%는 현재와 같은 관광이 계속되면 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67%는 금강산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안된다'고 답했으며, '괜찮다'는 응답은 3%였다.

이런 결과는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이 11월21일 동해로 귀환하는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1백1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해 얻은 것.

녹색연합은 "금강산 관광 개발은 생태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관광개발에 앞서 금강산의 자연생태와 환경용량에 대한 공동조사를 현대와 북한쪽에 제안.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복지부 가정의례 법률 개정안

앞으로 장례식장에는 의식절차 등을 지도하는 장례지도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가정의례 관련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염습비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막고 국제수준의 시신 처리기준에 따르기 위해 2003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장례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99년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 결성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오는 99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조직이 11월 21일 결성됐다.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세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일보 빌딩내 세노위 강당에서 창립발기인 대회 및 위원총회를 열고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세노위는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깔끔한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길거리 춤추는 청소년 복지관서 둥지 찾았다

'명륜' · '구로' 등 동아리 운영…탈선 예방 효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댄스동아리 O.L.D의 공연장면.

복지관 2층 한켠에서 요란한 댄스 음악이 들려온다. 요즘 청소년들의 인기를 한껏 받고 있는 H.O.T의 '열맞춰'. 벽에 붙은 대형 유리를 보며 6·7명의 청소년들이 온몸을 흔들고 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스님)의 명물 댄스동아리 O.L.D의 춤 연습. C.L.D는 9월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전국청소년 창작댄스경연대회'에서 강원도 교육감상을 수상할 만큼 실력파다.

O.L.D 리더 송지훈(원주공업고2)군은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단연 '댄스'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헐렁한 힙합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탈선 청소년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O.L.D, JINI(지니) 등 청소년 댄스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은 '춤'이 청소년 문화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 문화를 즐길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 사실 이들 청소년들은 복지관의 동아리 방을 이용하기 전까지 골목, 지하도, 공터 등에서 댄스를 즐겼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박성준씨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놀이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청소년의 선호 놀이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관에서 댄스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은 '춤=탈선'이라는 기성세대의 선입관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복지관에서 방과후 청소년이 선호하는 취미활동을 조사한 결과 1위가 춤이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의 댄스동아리 '자강불식'의 이용수(영서중 3)군도 댄스동아리 애찬론자다. 이군은 "홀어머니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방과 후 집에 가야 텅빈 방만 있어 싫었다"며 "올해 2월부터는 오락실이나 마을 공터가 아닌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출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에서 '신화창조', 공창사회복지관(관장 원철)에서 'J.D', '1.5' 등의 댄스 동아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복지관은 음지에서 춤추는 청소년을 양지로 끌어내고 청소년 탈선도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자연에서 채취한 무공해 재료로 다양한 주제의 요리를 만들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일깨워주는 불교TV의 '산당 임지호의 요리 이뭣꼬'.

음악 들으며 배우는 '음식의 道'

불교TV '산당 임지호의 요리 이뭣꼬' 인기

명인들이 연주하는 음악속에서 독특한 주제를 붙여 음식을 만드는 요리 프로그램인 불교TV의 '산당 임지호의 요리 이뭣꼬'(PD 최세영)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5분부터 50분까지 15분간 방송되는 '산당…'은 이미지 요리 전문가인 임지호(45)씨가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무공해 재료와 천연 양념으로 음식의 담백한 맛을 화면에 그대로 옮겨 내는 프로그램.

탤런트 정재은씨의 입담도 양념으로 곁들여지는 이 프로는 '변치 않는 모성을 위한 요리, 박 완자탕' '지친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요리, 연꽃 찜' '우리 몸의 잠자는 기운을 깨우는 요리, 버섯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또 임씨는 음식을 조리하며 연꽃, 버섯 등 재료 속에 늑아 있는 불교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명상음악가 김창수씨와 대금연주가 자연스님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춰 완성된 요리를 얼음, 기왓장, 꽃 등 자연의 소재를 이용해 즉석에서 맛깔스럽게 담아내는 것도 이 프로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최세영PD는 "저마다 다른 특성과 개성을 지닌 자연 소재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뤄 맛을 내는 것이 음식"이라며 "단순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음식속에 담겨 있는 철학을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봉화산수련원 한문서당 10년

25일부터 좌선 · 예절교육도

김해 봉화산수련원(원장 선진규)이 25일부터 1999년 1월 15일까지 '제10회 한문서당'을 개원한다.

지난 10년간 독특한 교육방식으로 관심을 끌어온 봉화산수련원의 한문서당은 인성교육, 예절습득, 실력향상, 정직겸손, 봉사실천, 패기함양, 창의개발 등을 교육목표로 실시한다.

한문서당은 초등학생 3학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동참할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60명으로 한정한다. 또 22일간의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 전원이 합숙생활을 하며 주말에는 극기훈련과 좌선 및 교양강좌 등에도 참여한다.

봉화산수련원장 선진규법사는 "한문서당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자기극복과 이타행의 가르침을 체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0525)42-2991-2

주부신행담

하나님을 떠나며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어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다니면서 커온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생겼다. 그것은 결혼이었다. 내가 결혼하는 상대가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불자라는 이유로 집에까지 찾아온 집사님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너무도 억울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절에 참 열심히 다니셨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절에 다녀오신 날에는 향긋한 향내가 온 몸 가득 배어 오셨다. 언제나 '아가 너도 같이 가자꾸나' 하시며 나를 데려 가려고 했지만 내 마음 속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절에 가기를 꺼려 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도 생기고 결혼하던 때에 있었던 일을 차츰 잊어갈 때였다. 갑자기 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크면서 한번도 내 속을 썩인 일이 없던 아이였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의 병명은 알 수가 없었다. 아이는 점점 시들어갔다. 총기가 가득하던 아이의 눈이 이젠 초점조차 맞지 않았다. 그렇게 버티어 나가던 아이는 그



그림 · 문병성

딸아이 가슴에 묻고 절찾아

해 겨울 내 곁을 떠나갔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도 따라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내 가슴을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다. 딸아이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이가 죽자 아이가 다니던 교회에서 찾아와서는 아이의 짐을 뒤져 쓸만한 것들을 모두 가져갔다. 아이가 쓰던 물건을 보면 죽은 아이가 생각나 더 슬퍼진다,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지만 난 너무도 허망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집안을 헤집어 놓고 가다니. 교회에 배신감이 느껴졌다.

예쁘기만 했던 딸아이를 가슴에 묻은 나는 아이의 49재를 지내기 위해 시어머니가 이끄는대로 절에 갔다. 어머니를 따라 삼배도 하고 〈반야심경〉도 독경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꾸준히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입에서 관세음보살님 하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아도 노력을 했다. 1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절에 다니기만 할 뿐 부처님 가르침이 무언지도 잘 모르고 〈반야심경〉이나 외우고 〈천수경〉 독송이나 따라 했다.

그렇게 껍데기만 불자로 살아가던 나는 둘째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불교에 대해 몰랐다. 둘째는 나에게 불교방송이 생겼다면서 방송국 교리강좌를 수강해 보라고 했다. 뜻도 모르고 독송하고 절을 하기보다는 부처님의 생애도 공부하고 〈반야심경〉의 뜻도 배우라고 권했다. 아이의 말을 따라 새롭게 발심을 했다.

김정숙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건강 365일 〈38〉 쇄양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스트레스로 생긴 변비 · 설사 치료
간장열 다스려 양기 불능 예방도

몽고에서는 말(馬)이 생활의 중요한 도구이며, 전시에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몽고가 중국을 정복한 것도 바로 말의 이런 기동력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잦았던 몽고에서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없는 기나긴 밤을 쇄양이란 약초 뿌리를 움켜쥐고 새웠다고 한다. 이 약초의 모양과 크기가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또 뿌리는 말이 교미할 때 흘러나온 정액이 떨어진 곳에서만 자생한다고 전한다.

쇄양은 열이 많은 태음인 체질에 주로 쓰인다. 이 체질을 가진 사람은 우선 얼굴색이 황색이거나 검붉은 색을 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이 희지 않다는 뜻이다. 또 아랫배꼴이 크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 내리기 쉬워 멜빵을 하는 사람이 많다. 땀을 자주 흘리며 입냄새가 심하고 눈동자의 색깔이 탁하며 성격도 침착하다. 지구력이 있어 큰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태음인들이 자주 느끼는 증상으로는 아랫배가 거북하며 변비와 설사가 심하다. 또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간장에 열이 쌓이게 된다. 즉 울화가 간장에 축적된다. 이렇게 되면 간장은 대장에다 화풀이를 하는데 간장의 열이 대장으로 전도되면서 변비가 오고 설사를 하기도 한다.

간장은 피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열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몸안의 진액인 피가 마르게 된다. 그 결과로 변비도 오고 뼈가 약해 지면서 허리 통증도 생기며 남자들에겐 양기불능 즉 성기능 장애도 온다. 이렇게 태음인 체질의 열을 잘 다스리는데 쇄양은 좋은 약재로 쓰인다.

복용량은 쇄양 8g을 1회 복용량으로 하여 1일 2회 복용한다. 약재는 한약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02)762-5510

만화방 청소년 피난처로
인천청교련 업주와 합의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인천시 만화방과 연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피난처'를 운영한다. 인천지부는 11월 20일 인천시 21개 만화방 업주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영어 · 컴퓨터 주말강좌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은 12월 5일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강좌를 마련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두시간 동안 실시될 이번 강좌는 영어(중학생 대상)와 컴퓨터(중·고교생 대상) 등으로, 기초에서 응용까지 전문교사의 체계적인 지도로 진행된다. (02)646-6815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북 한 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상운사 골짜기
千年의 푸르름이
하늘을 이고 가는데

솔나무 한그루 위로
백로 한가로히 춤추고
백운대 峰 아래 큰바위

불길을 열고 흐르듯
그 자리 자취 장관이로다
산중턱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 작은 연못
이루고
송사리 떼 노닐며
상운사 대웅전 뜰악 아래

피빛으로 물든 동백나무
관음보살의 미소로
삶의 고뇌 녹일 때

구름도 비켜가고
초겨울 바람
살갗 스친다



원장 이 영숙(본명)

大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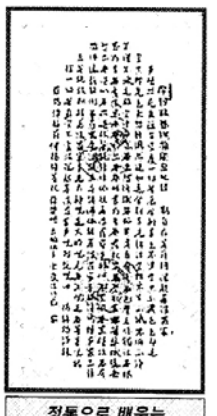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재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글마음다라사) 그림, 龍자그림 (수액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국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서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buddhapia shopping mall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S0080004

안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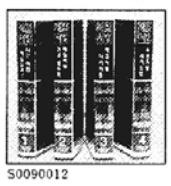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정청 · 신중권공
4. 신단청
5. 신단권공 · 거욕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시이운 · 영전점안
20. 증성 · 천수작법 · 요잡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S0090012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봉덕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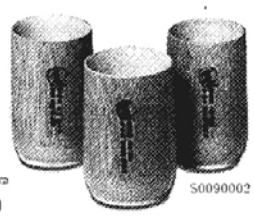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처방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지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별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심성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과일 해물,차 등
·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 살찌는 체질?
· 체질과 비만의 관계
·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 다이어트 음식
· 실패는 민간차
· 지압으로 빼는 군살
·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 비만은 종합 질병이다
· 다이어트의 부작용
· 선택이 중요하다
· 절식요법이란?
· 쉽게 할 수 있다는데 혼자서 하는 클리오법 7가지
·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 멋지게 브레는 하루

대나무 잔


S0090002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기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거산죽염

선조들의 비전 비방


S0090013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竹鹽**(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되었으로 생명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鹽素**(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 염입니다.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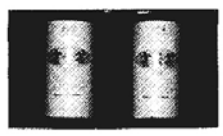
법성게 걸망


S0010009 S0010010 S0010011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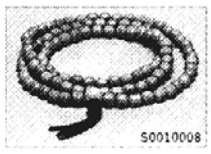
(지리산 야생 수제녹차) 작설차



지리산 화개동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찻잎을 정성껏 처리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온 전통 제다법 그대로 빚어낸 최고급 수제(手製) 녹차입니다

우전 : ₩ 80,000 중작 : ₩ 60,000 (2통 1세트)
세작 : ₩ 45,000 대작 : ₩ 40,000 (2통 1세트)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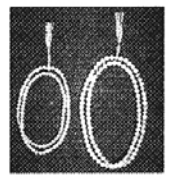

S0010008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가격 : ₩ 35,000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리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혈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기 쉽신 일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일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두통 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히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어 모습의 지체나 옷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심을 변화신(變化身)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신의 모습은 응현신의 숫지만큼 삼십삼신의 여러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이를 삼십삼신의 관음(삼십삼관음신)을 33천신이라고도 한다 본 좌상은 수월관음좌상으로서 옷위의 연꽃위에 앉이계시며 몸에 비친 달을 관(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S0020006 S002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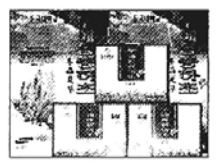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가격 : ₩ 120,000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채색)

가격 : ₩ 99,000

누에 동충 하초 (冬蟲夏草)



동충하초란 원래 겨울에는 곤충의 몸속에 있다 여름에는 풀처럼 나타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동충하초가 인삼, 녹용과 함께 귀한 3대 희귀 약재로 취급되어 왔으며 여러효과가 있다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서 와중으로 이중되어 온 대표적인 동충하초는 해발 3,000-6,000m의 지대에서 서식하는 피디로운 성육 환경 조건 때문에 절대수가 한정되어있는 매우 귀한 약재이다 이렇게 귀하다는 누에동충하초를 주원으로 하여 여러 희약재 등과 배합하여 삼군 포함한 위생적인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수 있는 천대인의 식품

배합 희약재 이기레쿠스 버섯, 영지버섯, 백봉령, 갑근, 당귀, 천궁 계피

본 제품은 동국대학교 생물기능 연구소와 동국생명과학연구원 신체장건소 연구 결과로 제품입니다

가격 : ₩ 198,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골동품형 S0020001 개금형 S0020003 브론즈코팅형 S0020002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 350,000
(개금) ₩ 580,000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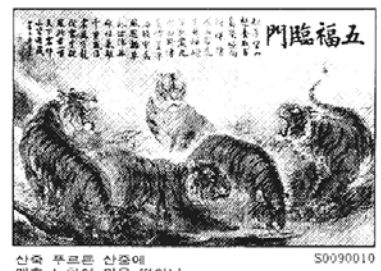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한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배우는 분의 최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五福臨門 猛虎圖 (오복림문 맹호도)


S0090010

산속 푸르른 산중에
맹호 노하여 위용 떨치니
못새들 놀라 흩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산비탈 치달리는 맹호앞에
찬바람 휘몰아 치니
여러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다
사방의 산야는
싸늘히 푸르르고
해질녘 찬바람은
댓넝은 흘날리는데
어지러운 세파에 맹호의
용대한 기상은
천만리에 위용을 떨친다
용은 사방중 진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풍이 한번 쉬차게 불 때
친하의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놀라 쥐 구멍을 찾는다

용 도 액지용
크 기 52㎝ × 61㎝
가 격 : ₩ 6,000

묘법연화경 (전7권)


S0100004

가격 : ₩ 140,000 (복장용)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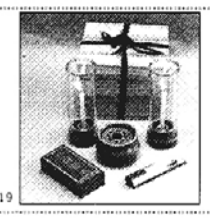
· 잉 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하나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아외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신소등 용도다양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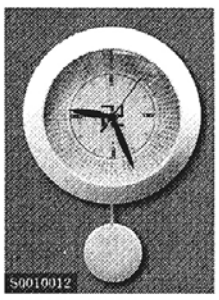
규 격
청자항로(8㎝×5㎝) 1개
청자촛대(6㎝×4㎝) 2개
잉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가격 : 1세트 ₩ 25,000


S0010019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S0010012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미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미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반야(般若)라고 하는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 드립니다

색상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산하며 뇌종양 유신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히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리짐을 알 수 있습니다


S0090007

강력한 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융해합니다


S0090004


S0090005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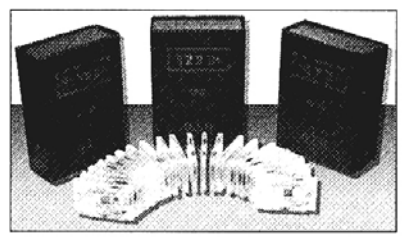

S0090006

응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컴퓨터, 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익서 등과 수액파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촌집한 마음을 조응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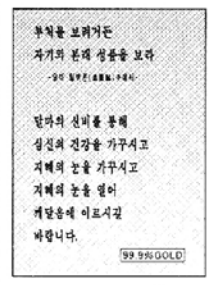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1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2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3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페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힌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라

달마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개달음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GOLD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펴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S0090003

순금 99.9%

경전카드


S0090014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사찰이나 단체에 맞는 불도의 도인과 클씨도 가능 합니다

가격 : ₩ 15,000 순금 99.9%


S0090015


S0090016


S009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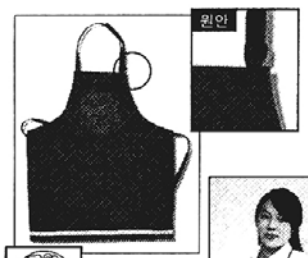

S0090018


S0090019


S009002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원안


내부그림 S0090008


S0090009

가격 ₩ 5,000
색상 자주색
재질 T/C (연 혼합)
100점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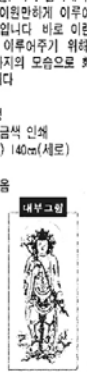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지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심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비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진녹, 검정
비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변색이 없음

S0030001 검정
S0030002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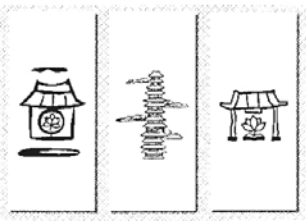
내부그림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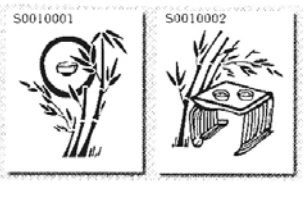
기도포


S0010003 S0010004 S0010005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도하실때 힌결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1 S001000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6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들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종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리 디자인


S0010020(검정돌)
S0010021(밤색돌)
S0010022(무명돌)

종 류 검정, 밤색 무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최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S0010007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S0030004

재질 동
목징 수공에 직품
규격 33㎝ × 43㎝

가격 : ₩ 50,000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철학자 맹자)

-병증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엑기스-

S0090011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백으로 쑥향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한의학 박사 천덕원(호림제한림원장)

가격 : ₩ 50,000
(100g × 60개입) S0090011

청담스님 친필 게송

임제운 (가로 59㎝ × 세로 33.5㎝) 가격 ₩ 3,000,000

청담스님 친필 임제운

청담스님 친필 게송·
친필 임제운을
가까이 두실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오

게송 (가로 49㎝ × 세로 43.5㎝)
가격 ₩ 3,000,000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S0100002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어영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빙 재론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 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아들에서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김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새연비누는 미용팁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살균과 피부노화방지를 돕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지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법회안내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17일 오전 10시 무진법장사 선사상 특강법회. (02)932-2333



원학스님(대구 용연사 주지) 5일 오전 10시 30분 보살계 수계법회, 6일 오전 9시 경남 응석사 자비실천 방생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인등기도법회. (053)616-8846



운월스님(여래원 주지)매월 네째 일요일 오전 10시 육군교도소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기원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재일법회. (02)532-6800



법공스님(광명사 주지)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 30분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법등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기도법회, 매월 세째주 토요일 오후 9시 3천배 기도법회. (0344)978-978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2월4일 (금)

■아마추어무선사회 마하네트 서울모임=대한불교아마추어무선사회 마하네트는 불자햄단합과 홍보를 겸한 모임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선불당에서 갖는다. 018-316-4682

12월5일 (토)



◇백제의 미소 서산 마애삼존불상을 참배하고 그 진실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자.

■국토문화연구회 옛돌 개심사등 참배=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백제의 미소로 불리우는 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독특한 절집으로 유명한 개심사 등을 참배한다. (02)275-4333

■남해 보리암 철야기도 및 칠불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남해 보리암 철야기도 및 칠불사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서울불교청년회 자현사 둥지 청소년의 집 방문=서울불교청년회는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자현사 둥지 청소년의 집을 방문한다. 연말을 맞아 송년선물과 보시품을 전달한다. (02)730-9108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6일까지 구룡사에서 어린이지도자 연수를 갖는다. '부처님 품안 즐거운 우리절'이란 주제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738-7860

■군포교 기금마련 하루찻집=한마음사랑방에서 오후 8시까지 군포교기금 마련을 위한 신수회 하루찻집이 열린다. (02)736-3782

12월6일 (일)

■터사랑 수덕사 화암사 참배=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백미인 수덕사 대웅보전과 조선시대 최고의 금석학자이자 다인이며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의 고택, 그의 원찰이었던 화암사를 참배한다. (02)725-1284

■금강메아리 산악회 창립 5주년 기념법회=전국불교산악회 서울지부 금강메아리산악회(회장 김대원)가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및 송년모임을 포천 폭포가든에서 갖는다. 오전 9시 서울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출발한다. (02)772-9517

■철원 심원사 도피안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철원 심원사 지장기도 참가 및 도피안사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불자위한 치아 건강특강=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오후 1시 김필성치과원장이 불자들의 치아건강을 위한 치과의 신기술과 치아이식에 대한 특강을 한다. (02)577-5800

■석탑찾아 우리문화기행=부산불교교육원은 오전 8시 경북 영양 봉감 모전석탑, 현2동 모전석탑, 십이지삼층석탑, 화천리 삼층석탑, 서석지 등으로 석탑을 찾아서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051)466-4080

12월7일 (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초교리 공부.

■한국불교연구원 겨울불교학교 개강=한국불교연구원은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와 실천에 대한 근본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겨울불교학교를 연다. 〈반야심경〉, 〈천수경〉연구, 〈보현행원품〉, 실천불교학, 불교영어독해 등을 지도하며 99년 2월 25일까지 계속된다. (02)3411-6167

12월8일 (화)

■참선기초교실 개강=부산불교교육원은 참선의 기초부고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는 참선기초교실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2회에 걸쳐 연다. 금종법사와 성재도 법사가 지도한다. (051)466-4080

종단소식

조계종

법왕사 삼존불 봉안

강릉 법왕사(주지 혜운)는 11월 25일 월정사주지 현해, 낙산사주지 지홍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삼존불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법왕사는 93년부터 대웅전(80평), 천불전(1백30평)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태고종

15일 선암사서 정기종회

중앙종회(의장 일우)는 15일 선암사에서 76회 정기중앙종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정 추대안, 내년도 종단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호계위원장 임명인준 안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동방대 범패과 졸업시연

동방대학교 범패과는 11월 27~28일 태고사 설법전에서 제8회 졸업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8명의 졸업생은 양일간 실연, 대령, 관욕, 옹호게작법, 상주권공, 지장청, 화청, 신중퇴공, 관음시식 등을 선보였다.

연흥사 주지 진산식



서울 강남 백련사 포교당 원장 지상스님〈사진〉은 부천시 소사구일대 1천3백여평의 대지에 연흥사를 건립하고 10월29일 오전 9시 진산식을 가졌다.

이날 진산식은 1부 점안식, 2부 취임식, 3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또 보성스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함께 봉행됐다.

천태종

대각국사 897주기 다례

총무원(원장 운덕)은 11월 23일 구인사에서 대각국사 열반 897주기 다례법요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 종회의장 덕산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1천여명이 함께했다.

구인사서 승려교육

총무원(원장 운덕)은 12월 14~16일 구인사에서 승려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승려교육에는 3백여명의 스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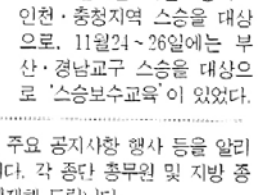
진각종

종의회 99년 예산편성

종의회(의장 휴명)는 19일 총인원에서 정기종의회를 열고 99년 신년예산으로 103억 2만원을 통과했다.

또 현행 4년 단임제로 되어있는 통리원장 교육원장 사감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재임할 수 있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사감부장에 상제정사(정지심인당 주교)를 인준했다.

회당백일장 시상식



통리원(원장 성조)는 11월 21일 총인원에서 제2회 회당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시상식에서는 탑주유치원 김현우군이 사생대회 대상격인 회당상을 수상했다. 또 백일장은 ㅇ빛나양과 구도연양이 운문부문과 산문부문에서 각각 회당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음종

전국 순회법회 열어

총무원(원장 홍파)은 11월 20일부터 한달간 전국 종무원을 중심으로 순회법회를 봉행한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해 각 부 원장, 부장, 중진스님 등이 다수 참여하는 이번 전국 순회법회는 '자은보은사상'을 고취하고, 신도를 배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지종

스승보수교육 잇달아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1~3일 대구·경북·전라지역 스승을 대상으로 대구 개천사에서 '스승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11월 19~20일에는 서울·경기·인천·충청지역 스승을 대상으로, 11월24~26일에는 부산·경남교구 스승을 대상으로 '스승보수교육'이 있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실업극복 가족수당 지급=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가정으로 실업극복육도 진행한다. 상담 후 접수. (02)282-1100

♣ 강좌

△삼학원 동계 계절학기 교육=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은 불교원전 연구과정과 불교어학 연수과정, 기초학습과정 등 동계 계절학기 교육강좌를 마련했다. 5일까지 접수한다. (02)765-9602

△금강경·능엄경 강의=능인선원 경전연구반은 〈금강경〉 〈능엄경〉 〈아함경〉 등을 99년 1월 6일부터 동국대 최봉수교수의 지도로 매주 수, 목요일에 실시한다. (02)577-5800

△그림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위한 그림교실을 개강한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 3시. (0443)652-0900

△위빠사나 선 명상지도=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부처님이 행한 수행법인 위빠싸나 선명상을 실시한다. (02)571-2988

♣ 모집

△실직노숙자 돕기 헌옷수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숙자를 돕기위한 헌옷을 모집한다. 성인 남자 옷을 모아 영등포 역 주변의 노숙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02)852-0525

△어린이위한 컴퓨터, 도서=희망만들기 열린학교에서는 실직가정 어린이들의 인터넷 교육을 위한 컴퓨터와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모집한다.

△성인조리교실 수강생=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한식, 양식, 생활요리 등 성인조리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02)985-0161

△유아 삐아제 예능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 유아 삐아제 예능교실 아동을 모집한다. 영어, 피아노, 미술, 종이접기, 무용, 건강체조, 한글, 수교실 등을 요일별로 지도한다. (02)985-0161

△자비의 바구니 후원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말연시 저소득 장애인 가정과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한 자비의 바구니 보내기에 동참할 불자를 기다린다. 생필품, 내의, 양말, 쌀 라면 등을 12일까지 모집한다. (0443)652-0900

△청소년댄스동아리 회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들의 댄스를 통한 연대감 형성을 위한 댄스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복지관강당에서 진행된다. (02)817-8052

△발맛사지 수강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맛사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에 실시한다. (02)282-1100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신도림복지관은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4개월 과정으로 월,수,금,토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02)631-9792

△생활일어회화 수강생=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 목요일 기초와 중급 생활일어회화 및 문법교육을 실시한다. 수강료는 월 2만3천원. (02)421-6077

△이웃온정나누기 후원자=대광맹인불자회는 연말연시 이웃온정나누기 행사 후원자를 모집한다. (053)256-0114

△레크, 가정요리 등 수강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레크리에이션, 가정요리, 빵과 루키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282-110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흉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지역 복지사업 양적-질적 확대



◇대구 불교사회복지회가 수탁 운영하게 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개관기념법회를 거행했다.

대구불교복지회 남구복지관 운영
마곡사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 관리
대흥사 해남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

지방 사찰들이 잇달아 사회복지 시설을 수탁해 불교사회복지의 지방화 및 전국화에 밝은 전망을 비춰주고 있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스님)가 지난달 10월1일 남구로부터 수탁, 12월1일 문을 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대흥사(주지 보선스님)가 전남 해남군으로부터 11월20일 위탁받은 해남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공주 마곡사와 구미 도리사가 조만간 위탁운영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양지마을과 구미 금오종합복지관 등이 그 예들.

특히 불교사회복지회를 후원해 온 동화사와 대흥사, 마곡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지역 불교사회 복지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지역 21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유일하게 불교계에서 운영하게 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연건평 7백22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운영주체인 불교사회복지회는 지난 90년 이후 복지사업을 시작했으며, 2년전부터 남구 일원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을 펼쳐와 지역사회의 신임이 높다. 11개 단체와의 경쟁을 물리치고 위탁운영권을 따낸 것도 이 때문.

해남 대흥사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흥사지부 자격으로 위탁운영하게 된 해남군 청소년수련시설은 부지 9천8백72평에 지하1층·지상2층 건물 2천58평 규모. 1일 수용인원이 최대 3백여명에 달하는 이 시설은 대강당,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남지역에서 유일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전남도에서는 문수종합복지관에 이어 두번째로 불교계가 맡게 됐다.

마곡사는 인권유린과 불법운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충남 연기군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을 수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마을 운영재단인 천성원은 보건복지부의 주선으로 최근 마곡사에 4년간 시설운영을 위탁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지역의 유력한 관광사찰인 도리사는 지역사회에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미 금오종합복지관 수탁경쟁에 나서 12월 중순 구미시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 사찰의 활발한 복지활동과 관련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교계도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구본사 또는 지역사암연합회 위주의 복지활동을 펼칠 때"라면서 "교구본사 등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불교복지사업을 펼치는 대신 복지재단은 대정부 로비와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치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김재경·이윤호 기자 (jg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순창 '장덕사'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장덕사 마애석가모니 열반상 십대제자 불사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원내는 주지 청암스님.

부처님 열반상·십대제자 조성

대형 마애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과 십대제자 등을 조성하고 있는 사찰이 있어 불교 신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360-10번지 장덕사. 석가모니께서 무여열반에 드시기전의 모습이 서서히 재연되고 있다. 길이 11m, 높이 3m인 마애 석가모니 열반상은 장덕사 대웅전 뒷산의 암반에 조성된다. 부처님께서 누워계신 모습과 수미단 밑 기단석에는 십대제자상이 조각된다. 부처님께서 무여열반 드시기전 제자들을 모아 마지막 법을 설하고 있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열반에 들기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율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스스로 게으르지 말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마지막 법을 설했다.

불자라면 이 가르침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장덕사 주지스님은 "불자들이 잊지 않고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열반상을 조성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열반상 기단석에는 두타 제일의 가섭존자, 다문 제일의 아난존자, 천안 제일의 아나율존자, 지혜 제일의 사리불존자, 신통 제일의 목건련존자, 밀행 제일의 라훌라존자, 해공 제일의 수보리존자, 설법 제일의 부루나존자, 논의 제일의 가전연존자, 지계 제일의 우바리 존자 상을 암반에 조각하게 된다.

이처럼 장덕사의 열반상 불사는 상단의 열반상을 비롯 기단석에는 십대제자상이 하단부분은 불단이 조성하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열반상 불사는 불상조각가 홍덕희씨가 맡고 있으며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장덕사는 열반상불사에 이어 2천년까지 지장보살상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장보살상은 넓이 7m, 높이 9m에 후불탱화 등을 타원형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지 청암스님은"국난극복을 위해 이번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불사가 원만성취되어 수많은 불자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눈을 떠 지혜로운 삶을 열어 나가길 발원한다"고 강조했다.(0674-653-1525)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유훈설법 되새기려 불사 공정 70%…지장상도 봉안

여주 고달사터서 유구·유물 발굴

여주 고달사지(사적 제382호)에서 고달사(高達寺)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통일신라말기부터 고려초기의 역사기록과 부합되는 각종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7월말부터 시굴조사에 들어간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장경호)은 11월 26일 현장설명회에서 "통일신라 형식의 돌을 목조처럼 짜서 만든 가구식 기단이 석불대좌(보물 제8호)를 중심으로 드러났고 원종대사혜진탑비(보물 제6호)를 보호했던 추정보호각터와 건물터 7곳, 담장석렬 2곳, 암거시설(배수로) 1곳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포항 '정애원' 공사 재개

6개월만에 주민과 타협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6개월 여동안 지연됐던 포항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의 무료양로원 정애원의 건립이 지역주민들과의 협상으로 재개됐다.

열린가람은 지난 11월 10일 포항시 청화면사무소에서 청계리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민 요구사항에 합의,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요구사항은 식수 해결과 완전한 오폐수 처리 환경, 화장장 설치 금지, 영구차 출입금지, 위령탑 추가 설치 금지 등 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불상에 분뇨를 뿌리는 훼불행위를 주도한 주민대책위원장인 윤덕용(47) 집사가 여전히 반성의 빛이 없어 공사를 다시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광주·전남 불교합창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11월 22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8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혼성합창단, 증심사 합창단, 향림사 합창단 등 6개 합창단의 주관으로 열린 합창예술제에는 장엄한 찬불가가 선보였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부천 선재마을 개원

미혼모·노인복지 역점

부천 선재마을(주지 능호스님)은 11월 29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소재한 도심 포교당인 선재마을은 72평 규모의 법당과 요사채로 이뤄져 있으며, 앞으로 미혼모 및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032)666-6692

김재경 기자

파라미타 대구지부 발족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덕스님)는 11월 21일 능인고등학교 강당에서 동화사 주지 성덕,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스님을 비롯 김연철 대구시립교육감, 최동원 대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6번째 지부로 발족한 대구지부에는 현재 15개 학교분회와 3개 사찰분회에서 7백여명의 학생이 가입된 상태. 이윤호 기자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11월 22일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 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행스님은 '함께 가는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설법했다.

목포 한마음선원 개원…3천여명 참석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혜찬)은 11월 22일 법당에서 개원 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을 비롯 김영록 목포시 부시장, 최기동 목포시의회 의장, 정명선 목포 해양대학교 총장등 각 지원스님 및 회장단 3천여명이 참석했다.

개원법회에 이어 목포실내체육관에서 '함께 가는 부처님 세상'이란 주제로 대행스님 초청대법회가 성황리에 봉행됐다.

김중근 기자

청주 한마음선원 13일 개원법회

대행스님 법문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지원장 청종)은 13일 오후 2시 올림픽국민생활체육관에서 개원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번지 4층에 건평 60평의 건물을 임대해 개원하는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은 법당, 요사채,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청주지원 개원법회에는 대행스님(한마음 선원장)이 법문한다.

지원장 청종스님은 "청주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각종 법회뿐만 아니라 복지·장학사업 등 대사회적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청주불교계의 중추적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선원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431-259-5599)

김중근 기자

제주 약천사 종단등록 기념법회

주지 성공스님 취임

제주도 서귀포시 약천사(회주 혜인)는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륙영가천도 및 방생법회, 신임주지 성공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종단등록기념법회를 겸해 11월 26일 열린 진산식은 타종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법어, 현판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주지 성공스님은 "종단등록을 계기로 약천사는 새로운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유료양로원 설립 등을 통해 지역복지에도 이바지해 나가겠다"포부를 밝혔다. 〈사진〉



이에앞서 11월 25일 열린 수륙영가천도재는 혜인스님의 영가법문, 무형문화재 제50호 송암스님의 바라춤, 철야정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해인사 경내식당 불

학인스님 1명 사망

11월 24일 0시30분경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 관음전 지하 식당건물인 정수당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1명이 불에 타 숨지고 식당 취사실 내부 30여평과 취사도구 등 약 5백50만원 상당(경찰추산)의 피해를 냈다. 불이 난 정수당 건물은 유형문화재 256호 대적광전과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이 보관돼 있는 장경관전(국보 52호)과 불과 30여m 가량 떨어져 있으나 조속한 진화작업으로 문화재에는 피해는 없었다.

한편 경찰은 화재원인을 전기누전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윤호 기자

소년가장돕기 하루찻집

부산시 사하구 불교연합회(회장 중원)는 11월 24일 신평·장림기계산업관리공단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하루찻집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미희 기자



제26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노력하자. 준비하자. 드높은 세계로"

■언 제 : 불기 2543(1999)년 1월 1일(금) 오후 1시~ 3일(일) 12시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법주사 입구)
■동 참 금 : 5만원 (군종병, 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 자료집, 기념품 지급)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신청방법 : 미리 접수
(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미리 접수하시면 · 접수시 훨씬 편리합니다. · 강의「찬불가」내용 수록 테이프 증정
■신청기간 : 12월 7일~23일까지
■보내실곳 : 우체국 601310-0037877-11 예금주:대불어(조중환)
■접수담당 : 정 희 순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문 의 : 본회사무국 ☎(051)808-4569, 45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각 지역 문의처
· 서 울 02)433-1506~7 선재마을 유태근 사무국장
· 부 산 051)853-5486~7 부산지구(보현선원) 이유경
· 광 주 062)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본회 이사)
· 대전·충남 042)633-1141 법동복지관 류재희 사무장
· 경 남 0551)282-7201 경남지구사무국 박영희
· 대 구 053)760-7367 김형중
· 제 주 064)702-1345 죽림정사 인성스님(본회 이사)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이 땅 곳곳에서 미래의 불국토를 이끌어갈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으시는 지도자님들의 묵묵한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13년을 한결같이 어린이지도자의 연수회를 마련해 온 우리 회에서는 드높은 세계로 노력하는 지도자, 준비하는 지도자를 위한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엽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지도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수행하는 삶을 일깨우고, 함께 하는 도반으로서의 단합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 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1월 푸르른 날

주 요 연 수 내 용	강 사	비 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 21세기 새 시대를 여는 불교		
우리는 저마다 존귀한 주인 - 지도자들을 위한 부처님 말씀	장 휘 옥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너도 나도 하나되어!	윤 재 섭	한국어가협회대구연구소장 안동과학대 가정복지학과 전임교수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의 길	혜담스님	각화사 주지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	김 정 민	국악인, 영화「취모리」주연 국악예고, 국회, 각 대학강연
불교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	심산스님 덕진스님	본회 이사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지욱스님	불국사 강주
부처님 당신을 찬탄합니다.	정 유 탁	풍경소리
신나는 모닥불 놀이	박 철 수	도레미이벤트 대표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찾는 새 세기의 어린이 포교	철오스님	본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 재 정관 ■부총재 혜총 ■회 장 철오 ■상임부회장 운성
■이 사 영조 덕진 설봉 해판 원정 심산 무등 성형 지광 인성 일동

대원불교대 문닫을 위기

재정난 이유…4년과정 신입생도 없어
대원법사단 · 동문등 폐교반대 움직임

해방후 불교계 최초의 불교교양대학으로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이 이사회(이사장 박윤흔)의 폐교논란으로 개교 이후 최대의 내홍을 겪고 있다.

재정난과 경영진의 운영미숙 등으로 불교대학이 총체적 어려움에 처하자 대원법사단(단장 권순)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58차 이사회에 경영혁신을 통한 대중불교운동의 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사진 구성등 구조조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장이 불교대학운영은 별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11월 7일 제59차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돌연 "대원불교대학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급진전돼 사건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사회는 11월 26일 제60차 이사회에서 '대원회 발전방안'을 안건으로 대원회 폐교문제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었으나 대원법사단과 동문 재학생 50여명이 폐교결정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박이사장을 비롯 대다수 이사들이 불참해 이사회가 유회됐다.

대원불교대학은 현재 2년제 불교대학과정과 일본불교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어 91년부터 4년제 유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년제 과정은 다음 학기 신입생을 뽑지않아 99년부터 수업이 불가능해지고, 59차 이사회에서 학장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학사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동문과 학생들은 "불교대학을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폐교한다는 극단적 생각은 장경호 거사의 대중불교운동정신을 망각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대원불교대학은 지금까지 1천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천여명의 재가법사를 양성해 현재 전국 6개지회에서 재가불교신행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 95년에는 미국 워싱턴 보림사에 분교를 설립, 지난해 14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권순 대원회법사단장은 "대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인과 법사단, 대학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이사진 영입과 재정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폐교위기를 맞은 대원불교대학. 불교교양대학의 효시로서 72년 개교 1천여명의 재가법사를 양성했다.

"유적지 인접지역 개발도 문화재보호위 허가 받아야"

서울고법 '계명대 선도산 개발' 위법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유적지 인접 지역에서도 앞으로 문화재보호위원회 허가없이 발굴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부장판사 황인행)는 11월 25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관리국을 상대로 낸 '경주 선도산 발굴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재관리국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계명대측은 경주 선도산 자락인 충효동 204-9 일대 1만1천여평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발굴 신청을 냈다가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발굴을 허가 받지 못했다. 발굴 허가를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6분과는 '선도산과 그 주변 역사유적 환경 보존'을 이유로 발굴을 허가하지 않았다. 계명대측은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 이번 판결로 계명대측의 병원신축계획은 일단 좌절됐다.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발굴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건설공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 고시 난이도 높았다

647명 접수 519명 응시

포교사고시가 까다로워졌다. 11월 22일 실시된 조계종 포교사 고시 응시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교원도 불교교양대학의 교과과정을 강화해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년에 비해 매우 어렵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객관식 40문항, 단답형 15문항, 서술형 3문항 가운데 특히 서술형 문제가 어려웠다. '승나승열(僧那僧悅)의 뜻과 내용을 서술하시오.' 율장에 나오는 말로, 대승보살의 서원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뜻이다. 투철한 대승불교관을 파악키 위한 문제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전국 35개 불교대학에서 647명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19명이 응시했다. 조계사와 삼화불교대학에서 각각 74명, 22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1명씩 응시했다. 조계사불교대학과 삼화불교대학은 정화회의 포교원의 이후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뉴스 & 뉴스

진흥원 10~12일 수련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0일~12일 2박3일동안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혜거스님과의 불교진리탐구' 수련회를 갖는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좌선하는 방법과 〈좌선의〉강의, 참선실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719-1855

이은자 기자

민영교도소설치 공청회

법무부는 교정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형법' 개정과 최근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도입 문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교정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질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과 수용자 처우의 대헌장으로 비유되는 '행형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도심포교당 세미나 연기

포교원 포교연구실 주최로 4일 '도심포교당의 위상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도심포교당 세미나가 연기됐다.

포교연구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정상적인 종무행정이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 연기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개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은 또 포교정보지인 월간 〈법화와 설법〉 1월호 발간도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대구 파라미타 심포지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덕)은 5일 오후 3시 진각문화회관 7층에서 '청소년문제 진단 및 포교활성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파라미타 대구지부가 지난달 발족한 이후 갖는 첫 행사로 임전수씨(능인중학교 교사)가 '전환기의 청소년문제'를, 지거스님(동화사 포교국장)이 '지역 청소년포교의 현황과 해결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성세대 및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053)982-0101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금강국수공장 지원 연하장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지원기금마련을 위해 연하장을 판매한다. 연하장은 범주스님의 선묵화가 프린트된 4가지 종류가 선보이고 있으며, 1천원에 보급되고 있다. (02)735-5558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창립 30주년을 맞은 군승단은 11월 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백만명 수계 거사불교 '초석'

군승단창립 30년

법회의식 현대화 한몫

군포교 전담부서 필요

군승단(단장 이희용, 원주 법응사 주지법사)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68년 11월 30일 군승 5명이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군포교가 시작됐다.

5명이었던 군승이 117명으로 늘어났고, 69년 첫 군법당인 불이사 건립을 시작으로 법당도 7백여동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1백만명의 장병들이 수계를 받았으며, 지금도 매년 6만여명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

거사불교의 밑거름을 뿌린 것도 군승단의 업적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말 불교의식을 개발하고 법회의식을 현대화한 것은 군승단의 공로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수계장병들의 제대 후 관리 부재, 체계적이지 못한 포교방법론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인근 지역 사찰과의 협조를 통한 포교극대화도 중요한 현안이다.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면서도 지원에는 인색한 종단의 변화도 요구된다.

한편 군승단은 24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군승 창설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희용 단장은 기념사에서 "사자후의 당당함을 갖춘 진리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에 이어 군승단은 25일 총회를 열어 '군승단 규정'을 개정했다. 〈관계기사 2면〉 기념법회에 앞서 군승단은 '신병 불교신자 포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연꽃마을 노인무료병원
대구 · 평택에 또 개원

총 12곳 운영…연 72만여명 이용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대구 · 평택에 법인산하 11 · 12번째 노인무료병원을 12월 중에 잇따라 개원한다.

대구시 동구 안심3동에 문을 여는 대구 동구경로의원은 건평 88평 규모로 일반외과, 재활의학,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과, 노인상담실 등을 갖추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342번지 북부노인복지회관 내에 60평 규모로 문을 여는 오산경로의원은 전입 운영주체였던 설봉재단의 비리로 인해 평택시가 연꽃마을에 운영을 요청했다. 무료 경로의원 모범 사례를 알고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이처럼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 당 하루 이용 노인들은 2백여명, 연인원 72만여명이 연꽃마을 경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연꽃마을 노인무료병원

지역	전화
송 파	(02)414-6405
마 포	(02)364-6172
청 주	(0431)221-0836
군 포	(0343)396-8092
대 전	(042)634-5820
안 양	(0343)388-6534
보 은	(0433)544-2105
안 양	(0343)443-3677
수 원	(0331)245-3676
인 천	(032)765-3677

목탁소리

소리죽인 '나는 불자'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스님들 싸우는 절에는 뭣하러 가." "스님은 스님이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잖아요." "아,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정 모(42) 보살은 요즘 시내의 한 사찰 부설 불교사회봉사단체에 갈 때마다 이런 말다툼을 한다. 교회에 다니는 이웃집 주부는 볼 때마다 스님들을 비꼬듯이 말한다. 기독교 신자인 고교동창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불교가 원래 그런 것 아니냐"며 부아를 돋운다. 그래서 요즘엔 항시 입던 '개량 승복'도 가방에 넣고 다니며 절에서만 갈아 입는다.

지난 11월 22일 서울 가락동 중앙일보빌딩 강당에서 열린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창립발기인 대회에서는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원룡 목사가 공동명예위원장에 추대됐으나, 불교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공석으로 제외됐다.

원주 소쩍새마을에서는 요즘 'IMF 한파'에다 조계종 사태까지 겹쳐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소쩍새마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감소가 피부로 느껴진다"면서 "조계종 분규가 계속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가원 후원자는 불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많아 불교계의 불미스런 사건에 민감하다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요즘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불교계에 대한 여론 악화로 서울 강남가정복지센터와 종곡복지관 수탁에 실패한데다 총무원 종무행정의 마비로 연말 복지사업 예산의 집행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 11월초부터 상임이사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결재와 대외적인 복지관련 행사의 참석도 유보하기 일쑤.

스님들은 저마다 나름의 명분으로 '정법수호 · 파사현정'을 외치고 있지만 비불자들에게는 '감투 싸움'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자비와 보살행, 비폭력의 종교인 불교가 '공익성과 신뢰성, 안전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장애물이 된다면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jgkim@buddhapia.com)

'98 불국토의 밤

우리모두
올 한해도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고자 정진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가다듬고 서로 격려하면서
불국토의 서원을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에
귀하를 모시고자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교문화 창출과 인간회복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선우들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1998년 12월 4일(음. 10. 16) 오후 5시
■ 장 소
동백홀(부산광역시청 본관 26층)
당일 주차권이 발행됩니다.
■ 문의처
(051)868-0951

'98불국토 산하법인 사업보고회

· 사단법인 불국토
·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대표이사 정 관
상임이사 혜 총 (감로사주지,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장)
상임이사 수 불 (안국사 주지, 보리방송문화상운영위원장)
이 사 정 년 (내원정사 주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사 정 여 (보현선원 주지, 개금사회복지관장)
이 사 범 산 (영주암 주지, 양정청소년회관장)
이 사 진 수 (장천사주지)
이 사 지 현 (관음사 주지, 두송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사 정 현 (천성사주지)
이 사 종 실 (연화사 주지,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타대표)
감 사 박창식 (손수완 회계사무소 사무장)
감 사 김대용 (동제한의원 원장)

· 시 상 식 ·

-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
□ 제6회 자랑스런불자상

- 건전 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 제6회 보리방송문화상

· 일반 TV부문
- 대상, 우수상
· 불교방송부문
- 연출상, 진행상, 지역방송상
· 불교TV부문
- 대상, 우수상

지혜롭고 자비로운 공동체 佛國土

■산하기관: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보리방송모니터회, 보리방송문화상 / 자랑스런 불자상운영위원회, 양정청소년회관(양정청소년문화의 집), 개금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관음어린이집, 보현어린이집, 불국토한의원

입 문

유식불교의 역사, 마음구조 분석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최병식 지음

현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식불교를 쉽게 설명한 책. 유식불교에 대한 개념과 불법의 진리를 밝힌 후 인도의 유식불교 형성과정과 중국 법상종 성립을 통해 유식불교의 역사를 짚었다. 그리고 주체적 측면과 작용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런 후 삼성설(三性說)을 통해 존재와 미망(迷妄)과 깨달음의 관념을 끌어내고, 유식수행의 5단계를 제시했다.

깨달음의 길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도서출판 여래 7,000원 (02)730-8976

불교입문의 교과서



■절에서 배우는 불교/ 혜자스님 엮음

자성을 고요한 마음으로 연기하고 탐·진·치 번뇌에 오염된 삼신을 씻어내고 해탈토록 하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곳 절에는 산문을 시작으로 전각, 예배의 대상, 조형물, 공양구, 의식구, 장엄구, 상징물, 생활용구 등이 중생들의 해탈과 교화의 방편으로써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들을 대하면서도 그 속에 깃든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으며, 또 궁금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해소할만한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은 물론 그 속에 깃든 깊은 의미와 뜻을 바로 전달하는데 교과서가 될만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절을 찾는 일반인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출판사, 12,000원 (02)313-5047

에 세 이

업을 벗어난 아름다운 삶



함께 사는 아름다움·금강경·반야심경 풀이/ 정화스님 지음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삶의 모습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빈 마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움'과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찬 마음의 차이다. 우리의 삶은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자기 한정'이란 업에 매여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함께 사는 아름다움'의 진리가 담겨있음을 말하고, 모든 불자들이 이 경전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이 책은 권한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한정'의 업을 벗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행상담식으로 두 경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에세이식의 소주제로 내용을 분류해 읽는 부담도 덜었을뿐만 많은 일화가 담겨 있어 재미있다.

시공사, 10,000원 (02)588-0831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고로의 탐 대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찾아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말이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략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85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편/ 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상징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들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전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기 타

佛名의미 자세히 소개



■풍수로 보는 가문/강영수 지음

어린 가문에서 정승판서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효자·열부가 나왔는가. 전국을 돌며 취재여행을 하던 풍수사들중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선과 악이 살아있는 역사 현장 이구만!" 그랬다. 괴이하게도 한 가문의 흥망은 '마음 자리'에 있음을 풍수사들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는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충신 열사들의 무덤과는 달리 매국노와 역적들의 분묘는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었음에도 무덤 속은 벌레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 '인과응보' 바로 그것이었다.

선덕을 쌓은 자가 묻힌 땅은 나쁜대로 생기를 감응시켜 그것을 후대에 전한다. 악한 자는 생전에 지은 악업으로 복손됨을 죽음보다 더한 치욕으로 돌이간다. 그 이유는 바로 땅에 있으며, 이 책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중명 8,000원 (02)636-6873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편/ 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상징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들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전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 같은 부처님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정표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함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난해하고 현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간직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원문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승 8,000원/(02)723-1679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어 자세히 답한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올바른 삶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피로감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피로감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텅 빈 마음만 남는 책. 그래야만 새로운 무욕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운주사 6,000원 (02)720-9372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 가르침



■통찰의 체험/현음스님·이금주 공역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지도가 골드스타인(J. Goldstein)이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유신 수행을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하되 여러가지 수행법을 혼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주의력을 기울이되 매일 좌선 수행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규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남' '우리'니 '그들'이니 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공의 일체가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수행에 관한 다른 책들보다 많이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데 이 책의 매력이 있다.

한길, 5,000원 (0346)574-5585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종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등에 불합계도 전생을 기억하는 3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사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큰 넷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까사끼 지끼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습득한 해박한 지식을총동원해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보수적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홍사성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금주의 추천도서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기도성지/정성운외 지음.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병든 사람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약사여래, 천개의 눈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어루만져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갖가지 모습으로 나투어 감응하신다. 사찰에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불교시대사/값 7,000원/(02)730-2500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G2-F21

절전기능-세계최초의 광센서 착용
깨끗한 통화(Filter사용으로 잡음 울림 제거)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문자 메시지는 한글 영문 혼용)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44×26㎜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



한화 G2


SPH-3100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50×22㎜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 가격
1.가입비 분납 20,000원
2. 가입비 일할 70,000원

요금 납부 방법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이외는 [illegible]원이 추가 됩니다
신용카드 [illegible]의 중점 중심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 개월 무료이용 요금)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016 PCS 최신기종·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